

입김 세진 참여연대 ‘영화값 인상’도 태클

통신요 원가공개 대법원 승소 이어 CGV·롯데시네마 요금인상 정조준 “공정위에 답답여부 조사 요청할 것”

시민단체가 대법원으로부터 통신요금 원가 공개 결정을 이끌어 낸 데 이어 이번에는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자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CGV와 롯데시네마가 거의 동시에 영화관람료를 인상하자 시민단체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15일 “CGV와 롯데시네마의 기습적인 영화관람료 인상은 전형적인 독과점 시장의 폐해”라며 “소수의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만큼, 티켓 가격 인상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따져보기 위해 공정위 신고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참여연대가 제기한 휴대폰 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 요구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등 참여연대가 권력 집단으로 부상하면서 공정위가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참여연대 출신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와 행정부 등 요직에 대거 진입했다.

CGV는 이날 11일 영화관람료 1000원을 인상했다. CGV의 발표가 있고 나서 일주일 후 롯데시네마도 19일부터 1000

원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CGV와 롯데시네마 양사의 스크린 점유율은 2017년 기준 약 70%에 달한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2016년에도 멀티플렉스 3사의 연이은 티켓 가격 인상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로 보고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단순한 가격 인상만으로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멀티플렉스 3사를 무혐의 처리했다. 업체들이 가격 인상 전에 공모했다면 답답하지만 선두 업체를 보고 다른 업체들이 그제 따라 올랐다면 답답이 아니라는 게 공정위의 유권해석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한국의 영화 관람률은 연평균 4.2회로 선진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고, 연간 누적 영화 관객이 2억 명을 넘어선 정도로 가장 대중적인 문화생활 수단이라는 점에서 연세 가격 인상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동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기업들이 답답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구두 합의를 하므로 공정위 조사 시 기업의 내부자 신고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답답 인정이 어렵다”라며 “멀티플렉스가 티켓 가격을 인상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가격 인상을 강행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고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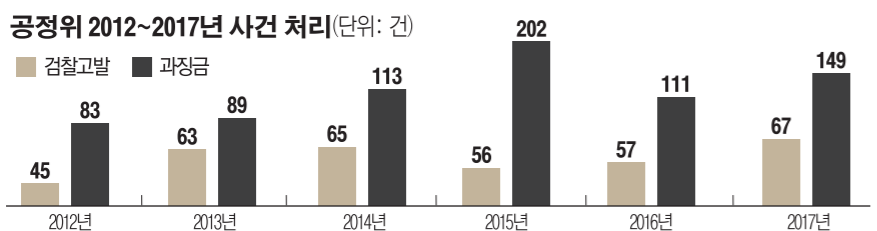
박영림 기자 ellee@

4주기 맞은 세월호... 분향소 찾은 시민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앞둔 14일 경기도 안산 단원구 정부 합동분향소에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합동분향소는 16일 열리는 ‘희생자 영결·추도식’을 끝으로 문을 닫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부당행위 엄격해진 김상조 號 검찰 고발·과징금 크게 늘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춰 닷을 올린 김상조(號)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 수치가 최근 6년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불공정행위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인 결과로 풀이된다.

16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신고 1535건, 직

권인지 1503건 등 총 3038건이다. 이 중 94.7%인 2877건에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가운데 검찰에 고발한 건수는 67건으로, 전체의 2.3%다. 전년 57건(1.5%)보다 건수로 10건, 비율로는 0.8%포인트(p) 증가한 수치인데 이는 지난 6년간 가장 많은 것이다. 유형별로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할부거래 위반 행

위(12건), 부당한 표시광고(7건),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7건) 등의 순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도 강화됐다. 지난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건수는 149건으로, 전체의 5.2%다. 이는 전년 111건, 2.9%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과징금 부과 유형은 부당한 공동행위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37건), 부당한 표시광고(14건),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14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에 공정위가 내리는 행정조치 중 과징금과 검찰 고발은 기업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에서

강력한 제재에 속한다. 또 고발은 검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강도 높은 조치다.

더불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중 경고 이상 처분이 내려진 사건도 1573건(54.7%)으로 전체 처리 건수의 절반을 넘었다.

박병립 기자 riby@

모바일로 보는 이투데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자해論’ GM, ‘속수무책’ 정부

“한국지엠 고의 부도”로 産銀·노조 압박... 사실상 철수 위한 행보 분석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지엠의 고의 부도를 검토하며 2대 주주인 산은은 행과 회사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산은은 “실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지만 GM의 압박에 ‘선(先)지원 후(後)실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6일 정부와 산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들은 GM이 조만간 한국지엠을 법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신청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7년 말 한국지엠 차입금 잔액 3조 2078억 원은 전액 GM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다. 한국지엠이 법원 주도의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이 중 상당액의 채무가 소멸되면서 GM이 손해를 떠안는 구조다. 더욱이 한국지엠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 주권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그동안 GM이 한국지엠 관련 국내에서 펼친 ‘말 바꾸기’ 전략이 힘을 잃는 것이다.

대신 GM이 한국지엠을 고의 부도 낼 가능성은 없지 않다. 부도는 법률용어가 아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을 뜻한다. 한국지엠의 채권자는 GM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GM의 뜻에 따라 부도가 결정된다. GM은 채무를 만기연장, 상환유예하며 산은 또는 노조와 협의를 지속할 수 있지만 데드라인을 강조하며 부도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 업체는 산은이 지원을 조건으로 한 실사를 시작했을 때 “중로 때까지

차입처	만기일	규모	현황
GM 홀딩스 LLC	2018년 1월	3910	전액상환
	2018년 2월	7220	상환유예
KOREA	2018년 4월 1~8일	9880	상환유예
	2020년	1774	미상환
	2021년	5158	미상환
	2022년 이후	4135	미상환

협조하겠다”며 채무 상환유예를 밝혔지만 현재는 말을 바꿨다.

GM은 산은에 요청한 단기 브리지를 받으면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부도는 피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철회했다. 부도를 강요하며 앞으로 있을 차등 감자, 추가 지원 등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반면 GM이 다음 주에 한국지엠을 기업회생절차에 신청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GM이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의 파장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GM이 한국지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한국 시장에서의 대규모 구조조정 등 사실상 철수를 위한 사전 행보로 해석된다. GM은 이미 트랙스 생산의 중국 이전, 부평 2공장 1교대 전환 등 폭넓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이자율이 빠진 은행... ‘생산적 대출’ 줄었다

시중은행 대출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주택담보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생산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비중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의 생산적 자금공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4개 은행의 ‘생산적 대출’ 비중은 2010년 말 대비 6.9~9%포인트 감소했다. 생산적 대출잔액 자체는 늘었지만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다.

생산적 대출은 △생산유발 △일자리 창출 △신용대출 등 3가지 측면에서 영향력·감응도·계수, 고용유발계수 등 업종별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한 금액으로, 이번에 금감원이 처음으로 도입한 개념이다.

우선 생산유발 기준 생산적 대출 잔액은 2010년 말 376조7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452조 원으로 늘었지만, 전체 대출

에서 이 비중은 45.4%에서 37.1%로 8.3%포인트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는 생산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동산업 대출이 큰 폭으로 늘고, 전자업이나 철강업 등 생산유발 효과가 큰 대출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생산적 대출은 2010년 말 기준 44.7%에서 지난해 말 기준 37.8%로 6.9%포인트 감소했다.

은행들은 저금리 기조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늘리기 위해 가계·담보대출과 부동산업 위주의 자영업 대출을 늘렸다. 14개 은행의 전체 대출액에서 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말 48.8%에서 지난해 말 46.7%로 2.1%포인트 줄었다.

자영업 대출을 제외하면, 기업대출 비중 낙폭은 8%포인트(34.3%→26.3%)로 더 크다.

박규준 기자 abc8

모든 것이 명백한 저희의 잘못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이번 우리사주 배당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도 큰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안이었던 업무처리와 프로세스, 미흡했던 윤리의식 모두 대표이사를 비롯한 저희 모두의 불찰이며 책임을 통감합니다.

삼성증권의 모든 임직원들은 조속한 사고수습만이 유일한 반성의 길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실천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 중인 피해 투자자에 대한 구제활동은 마지막 한 분까지 이상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이 완료된 사고 시스템 외에도 회사의 업무전반을 철저히 점검해 재발을 방지하고,

이번 사고의 관련자들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반드시 엄중 문책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신뢰와 주주가치 제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의 잘못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뼈를 깎는 고통과 반성을 통해 거듭나겠습니다.

삼성증권 대표이사 구성훈 및 임직원 일동

청춘반란 ⑮ 이준행 국내 5위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 대표

“안전성 인정받는 거래소 만들 것”

“정부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5위 업체인 고팍스 이준행(35) 대표는 경영목표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팍스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기술적인 향상으로 블록체인의 범용성을 높이고 싶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그만두고 블록체인의 열광 = 이 대표는 2014년 컨설팅 회사와 사모펀드 등에서 근무하던 중 비트코인을 알게 됐다. 그는 “2009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존 금융시스템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순식간에 그를 매료시켰다. 이 대표는 “주변에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이더리움 서적 등을 보면서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 대해 계속해서 공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로 금융거래 시스템에 대한 혁신이 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회사를 다니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회사를 그만두고 이더리움 백서 번역에 참여했다.

이후 이 대표는 스트리밍(고팍스 운영 기업의 사명)이라는 스타트업업을 설립, 가상화폐를 이용한 국제송금 사업을 하던 중 2016년 8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였던 비트피넥스의 해킹 사고를 보면서 거래소 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는 “마운트곡스와 비트피넥스 해킹 사건 이후 제대로 된 가상화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거래소가 시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개발자 80%가 해외파 =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수차례 해킹 사고가 발생해 거래소의 신뢰가 추락한 만큼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 대표는 설명한다. 이 대표는 최고의 개발자 확보에 많은 공을 들였다. 그래서 고팍스의 개발자 대부분이 내로라하는 해외파 출



이준행 고팍스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에 지리한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이만 기자 photoeran@

소가 해킹 사고로 파산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 대표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개발 인력이 중요하다”며 “국내외 대형 거래소와 비교해도 기술력에서 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팍스는 영국 최대 거래소 수준으로 설계돼 있다”며 “초당 거래량도 약 10만 건 이상 가능한 것으로 테스트 결과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실수는 발전의 밑거름 = 이 대표는 고팍스의 장점이 잘못된 것에 대한 빠른 개선이라고 했다. 특히 신규 코인(가상화폐 약칭) 상장 시 매도 주문을 5분 먼저 노출시키는 것은 업계도 참신성을 인정한다. 매도자끼리 경쟁하는 과정에서 매수 대기자들이 시장 상황을 확인한 후 보다 합리적으로 매수 가격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이 대표는 “신중 코인인 사빅(Civic)의 상장 당시 과열 양상이 있었다”며 “이용자들이 분위에 힘써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1월 12일 고팍스에서 사빅 코인을 상장할 때 세계 평균 1달러 수준이던 가격이 국내에서 180만 원에 거래되기까지 했다. 해외 다른 거래소 평균가 대비 1600배나 높은 가격으로 시세가 형성된 것이다. 이후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많은 피해를 양산했다.

매도 주문 선노출 제도 이후 비이성적 매매는 대폭으로 개선됐다. 시장 절차도 투명화했다.

이 대표는 “대주주인 나도 상장 코인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상장이나 고객 자산관리 등의 처리 결정은 직원들과 합의해 이뤄지도록 시스템화했다”고 말했다. 직원들과 함께 회사의 문제점을 개선해 빠르게 발전시킨 만큼 회사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이 대표는 “유명 IT기업에서 인수 제의를 받았지만 매각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신뢰를 얻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세계 1위 비트피넥스 해킹 보며 거래소 사업 관심 우수 개발인력 확보 통해 ‘최대 거래소 수준 설계 코인 상장 때 매도 주문 先노출’ 이용자 피해 줄여

신들이다. 그는 “직원들 중 상당수가 하버드와 스탠퍼드 대학 출신들”이라며 “해외 명문대 출신이 20~30%, 국내 카이스트 출신이 대부분이라서, 일부 해커 출신도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설립된 지 5년밖에 안 되는 신종 사업이다. 이 때문에 충분한 준비 없이 의욕만 갖고 시작했다가 대량의 거래량을 소화하지 못해 서버가 다운되거나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일본의 마운트곡스(Mt.Gox)와 홍콩 비트피넥스(Bitfinex), 미국 폴로니엑스(Polonix), 국내의 유빗(전 아피존) 등 거래

도시바·퀄컴 인수에 재 뿌리는 中

상무부, 퀄컴-NXP 인수·도시바메모리·韓美日 연합 매각 승인 미뤄

일본 도시바메모리 인수전과 미국 통신기업 퀄컴의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 업체 NXP세미컨덕트 인수 건이 마중간 무역 갈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최근 베이징회담이 이끄는 한·미·일 연합의 도시바메모리 인수와 퀄컴의 NXP 인수 승인을 미루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영향을 미친 탓이다. 도시바메모리를 인수하는 한·미·일 연합은 미국 사모펀드 베이징캐피탈이 이끌고 있다. 당국의 인수·합병(M&A) 승인이 미뤄지면서 두 회사 모두 경영계획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중국 상무부, 도시바메모리-한·미·일 연합이 인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도시바메모리 매각안은 이미 일본, 유럽연합(EU), 브라질 등 7개국에서 승인을 받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무역 갈등이 치열해지면서 어떤 M&A의 승인도 진행되지 않으리라고 관측된다.

도시바 관계자는 “인수 검토는 기본적으로 무역 긴장으로 중단됐다”며 “우리는 주요 2개국(G2, 미국·중국)의 무역 갈등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공사가 반도체메모리 사업부를 한·미·일 연합에 매각하려는 도시바의 계획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하면서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과 관련한 M&A 검토를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시바로서는 승인이 더 오래 걸릴수록 기술적 우위를 잃을 위험이 커진다. 반도체 사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인수 이후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일부로 도시바는 도시바메모리 매각을 베이징캐피탈로부터 취소할 권리를 확보했다. 도시바의 경영진은 이번

에 거래를 완료하기 원하지만, 일부 주주들은 매각이 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상무부가 승인을 지체할수록 매각 계약이 철회될 바라는 주주들의 의견이 수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도시바메모리의 M&A 2차 마감 시한은 다음 달 1일이다.

한편 퀄컴은 NXP 인수를 완료하면 2020년까지 퀄컴의 가치가 770억 달러(약 82조3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6년 10월 인수 계약을 맺은 퀄컴은 특히 차세대 이동통신망인 5G 기술에 대한 투자가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믿고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장애물로 부상하자 우려가 커진 스티브 몰렌코프 퀄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말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을 만나 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왕 부주석은 몰렌코프 CEO에게 “이성에 기반을 둔 협상을 치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정치와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중국 상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퀄컴의 NXP 인수 검토 과정에 중국 당국은 퀄컴에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상무부는 이번 주 내로 승인 여부를 완료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1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세부 품목이나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미·중사업위원회의 제이콥 파커 부사장은 “합병 검토와 승인은 이성적 논리와 시장의 공식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 간 정치적 관계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데이터 뉴스 Data News

100억 이상 비상장사 배당 부호 10명...이중근 부영 회장 '600억' 1위

실적 호조로 비상장사들도 배당을 대폭 늘리면서 총 10명이 100억 원 이상의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당금 총액은 2372억6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1.7% 증가했다.

16일 재벌닷컴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비상장사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배당금 중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배당금이 599억6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비자금 조성과 배임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의 배당금은 전년(약 270억 원)보다 두 배 가량 급증해 주목된다.

2위는 최성욱 동은피에프 대표로, 지난해 배당금 400억 원을 받았다. 최 대표는 지분 100%를 보유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연호엠에스에서 300억 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

이어 신창재 교보생명그룹 회장도 최연학 연호 전자 회장이 각각 배당금 346억3000만 원, 210억 원을 기록했다.

이 밖에 권혁민 스마일게이트 회장과 문규영 아

100억 원대 비상장주식 부자 (단위: 억 원)

성명	직위	2016년	2017년 (증감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270.8	599.6 (121.5%)
최성욱	동은피에프 대표	300	400 (33.3%)
신창재	교보생명보험 회장	259.7	346.3 (33.3%)
최연학	연호전자 회장	210	210 (0%)
권혁민	스마일게이트 회장	98.6	149.1 (51.1%)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	72.6	148.6 (104.8%)
김정주	넥스 회장	98.7	141.1 (42.9%)
박한길	에터미 대표	75	126.9 (69.2%)
유상덕	삼탄 회장	63	126.1 (100%)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	115	124.9 (8.6%)
합계		1563.5	2372.6 (51.7%)

주그룹 회장, 김정주 넥스 회장이 각각 140억 원대의 배당금을 받았다. 박한길 에터미 대표(126억 9000만 원), 유상덕 삼탄 회장(126억 1000만 원), 장평순 교원그룹 회장(124억 9000만 원)도 비상장사 주식 보유로 1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손에 쥐었다. 최두선 기자 sun@

www.kepcoco.kr

세계 최고를 넘어, 新에너지 세상으로 -

섬은 떨어져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햇살이, 바다가, 바람이 내일의 빛을 만들어줍니다.

자연에서 전기를 만들고 마법처럼 담아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전력이 꿈꾸는 깨끗한 에너지 세상입니다.

세계 1위 전력회사를 넘어 깨끗한 에너지 생태계를 선도하는

Beyond the Top, Leading KEPCO-

한국전력공사

인성도 능력이라는데... 갑질에 횡령까지 '오너리스크'에 발목 잡힌 기업들

"갑질은 과거 '영주처럼 임원들이 부하 직원이나 하도급 업자를 다루는 행위'이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회사 직원에게 물을 뿌린 이른바 '물벼락 갑질' 의혹에 대해 보도하며 '갑질'을 설명한 대목이다.

실제 우리나라 재벌의 '갑질' 행태는 이 같은 그릇된 의식구조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 비단 조현민 전무만이 아니다. 한화그룹은 물론 동국제강, 삼양식품 등 다수가 논란을 일으켰다. 문제는 오히려 일가의 기업 사유화가 기업가치 및 주주 이익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항공 3세' 조현민 갑질 논란 SNS·이메일 사과에도 일파만파 '폭언·욕설 일상' 내부 폭로 잇따라

삼양식품 회장 부부 횡령혐의 기소 페이퍼컴퍼니 통해 50억 빼돌려 기업 이미지 추락... 주가도 내림세

◇오너가 갑질에 지친 직원들... "항상 있었던 일" = 조현민 전무는 지난달 대한항공 광고를 제작하는 H사와의 회의에서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못한 H사 팀장에게 소리를 지르고 유리컵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으며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다. ▶관련기사 6·9면 이에 조현민 전무는 SNS와 이메일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사과했으나 '물벼락 갑질' 논란의 여파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내부 직원들의 연이은 폭언으로 오호러 '일파만파'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처음 기사를 접했을 때 울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15일 새벽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464편을 타고 인천 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MBC 화면 캡처/연합뉴스

것이 왔다는 느낌이였다"라며 "회사 내부에서는 조 전무가 소속 부서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아 왔다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직원들은 "대한항공에 대한 불매 운동을 진행해 달라", "정부가 항공노선 배분 불이익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서고 있다. 오너가 갑질 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이 같은 극단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삼양식품, 오너리스크로 실적 호재에도 주가 '부진' = '오너리스크'가 잘 나가는 회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대한항공만이 아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 김동선 한화건설 전 팀장은 만취 상태에서 폭행사건을 일으켰으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장남인 장선익 이사 역시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도마 위에 올랐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운전자에게 상습적인 폭행·폭언으로 사회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최근에는 삼양식품도 오너의 검찰 수사와 횡령 기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양식품은 신제품의 인기와 수출 확대 등으로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와중에도 '오너리스크'로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경영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삼양식품의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 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 받은 것처럼 위장해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사장이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4000만 원의 월급을 받아왔으며 회사돈을 자택 수리비 등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 회장의 경우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 악화 상태임에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조처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배임죄까지 적용됐다. 다만 이들은 검찰의 수사가 착수된 이후 뒤늦게 횡령액을 변제해 구속기소는 가까스로 면했다.

문선영 기자 moon@ · 고대영 기자 kodae0@

"무역장벽 뚫는 건 기술력"

韓銀 "무역표준 하나 늘 때 선진기업 품질향상에 20% 더 노력"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비관세장벽 또한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이를 극복하는 것은 역시 지속적인 혁신과 품질 향상 노력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기업 입장에서 충분한 기술력을 갖춘 후 수출시장에 뛰어들 필요가 있다고 봤다.

15일 읍지현 한국은행 국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BOK경제연구 '관세 및 표준이 제품의 품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 따르면 관세가 10% 떨어질 때와 국제표준 하나가 늘어날 때(표준 1페이지 증가시) 품질 향상 노력을 비교해 본 결과 수출 선도기업은 각각 2.7%와 19.3% 더 노력한 반면, 후발기업(수출 후진기업)은 마이너스(-) 18.3%와 -23.2%로 되레 감소했다.

이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유럽(EU) 국가들이 159개국으로부터 수입한 식품산업별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다. 또 같은 가격일 경우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품일수록 품질이 높은 것으로 가정했다.

선도기업이 관세인하와 국가표준이 높아질수록 품질 향상 노력에 나서는 이유는 낮은 수입관세에 따른 경쟁을 피하고 표준준수에 따른 기대이익이 높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봤다. 즉 추가적인 혁신과 품질 향상을 통해 시장에

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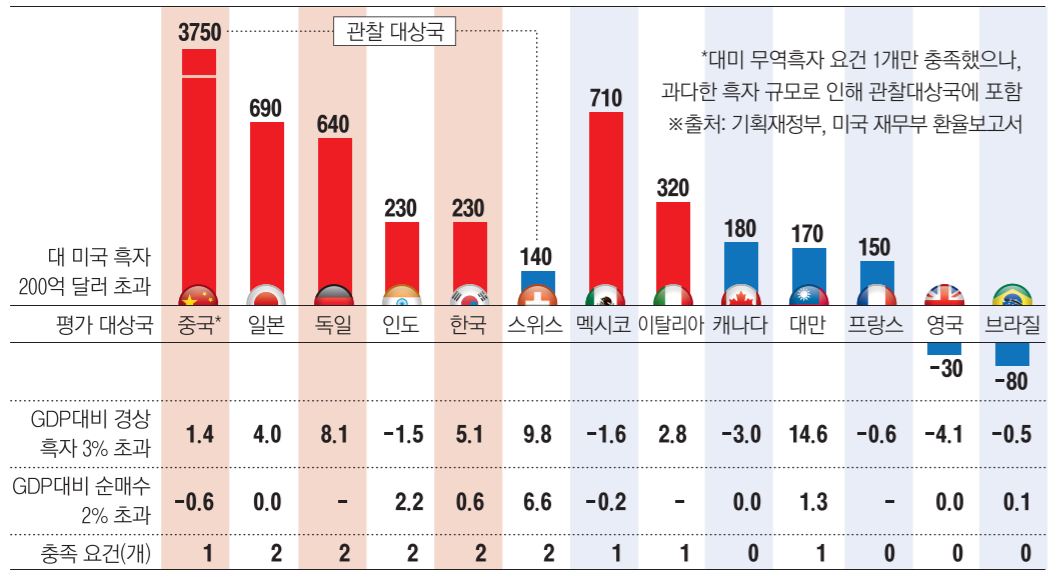
반면 후발기업은 신규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상당 수준의 기술 향상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준수비용 부담도 크다. 또 낮은 수입관세로 극심한 경쟁 증가에 결국 수출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같은 결과는 식료품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모든 산업에 적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선형연구를 보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술격차는 식료품의 경우 45배에 달했고, 모든 산업에서는 20배에 달했다. 분석의 편이성을 위해 기술격차가 더 큰 식료품을 활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읍 부연구위원은 "지금의 무역 추세를 고려했을 때 후발주자들은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자신의 기술이 적정하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 진입시 선도 지위를 확보하면 독점 이윤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충분한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수출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기업 이익에 맞는 활동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류현주 한은 국제경제연구실장도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특정 기술이나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신규 산업 분야에서 기술을 주도할 수 있다면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가 kimnh21c@

2018년 4월 미국 환율보고서 주요국 평가 (단위: 억 달러, 각 조건에 해당하는 국가는 빨간색으로 표시)



韓, 환율조작국 지정 피했지만 美 "외환 개입 내역 공개" 압박

OECD 회원국 중 한국만 미공개 정부, 공개범위·방식 놓고 고심 중

미국이 우리 정부에 노골적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권고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정부는 조만간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권고에 따른 정책적 변화라는 점에서 환율 주권 침해 논란은 가열된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는 13일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를 통해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미국이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외환시장 개입 내용 공개를 권고해 또 다른 불씨를 지폈다. 보고서는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고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인위적인 시장 개입으로 수출제품 가격을 떨어뜨려 미국 시장을 잠식한 반면 미국 기업이 한국에

수출한 제품 가격은 비싸졌다고 보고 있다. 외환시장 개입 내용 공개의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시각도 상존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다만 내용 공개를 통해 환율 주권을 사실상 빼앗길 경우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높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당장 정부의 시장 개입이 느슨해지자 바로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고 있다. 수출 기업들에는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무역협회는 원화 가치가 10% 상승하면 수출 물량이 0.12%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외환시장 불안정성도 커질 우려가 있다. 정부도 그동안 이런 이유로 외환시장 개입 내용 공개가 환율 주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미국을 방문해 므누신 미 재무장관,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과 외환시장 개입 내용 공개 범위와 방식 등을 최종 조율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 내용 공개 주기는 최대한 길게 두고 내용도 매수 및 매도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것보다 순매수액만 공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박도훈 기자 soqood@

작은 병이 큰 병이 큰 이익

되지만도

되지만도

경증과 중증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한화생명 내가 찾던 건강종신보험 무배당 [보증비용 부과형]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보통금)이나 사고보통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1588-6363 www.hanwhalife.com

한화생명

‘法人稅 인하’ 지방선거 쟁점 떠오르나

민생법안 뜯어보기 한국당 개정안 잇따라 발의

초대기업 稅부담 강화한 法개정 통과 3개월여 만에 최고 25%→20%...與 ‘점진적 인상’ 과 충돌 불가피

자유한국당이 현행 최고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초(超)대기업’ 세 부담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인세 인상안을 지난 연말 통과시킨 바 있다. 새 법인세법이 적용된 지 3개월 만에 한국당이 ‘법인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12일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개(현행 4개) 구간으로 줄이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5%포인트 낮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세표준 구간은

두 개로 단순화했다.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법인에는 법인세율 20%(현행 20~25%)를,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법인에는 8%(현행 1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해당 법안에는 총 35명의 한국당 의원이 참여했다. 추 의원 측은 과세표준 구간 축소와 관련해 “여러 구간에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할 경우 조세 형평성이 왜곡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국제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80%가량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한국과 포르투갈만 4개 과세표준 구간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추 의원은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유독 문재인 정부만 법인세를 올리고 있다”며 “이제 와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면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내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당장 한국당은 이번 6·13 지방선거를 ‘문재인 정부 경제 실책’에 초점을 맞춰 치를 전망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 경제 불경기 등을

부각해 관련한 경제 공약들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법인세 인하안 역시 지방선거와 그 이후 정국 운영의 핵심 사안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16일 통화에서 “(한국만 법인세율 인상에) 국제 경기 호조에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모순 현상이 발생했다”며 “(법인세 인하는) 우리 당의 기본적인 당헌·당규와 정신과 부합한다”고 말해 향후 당론 지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밖에 같은 당 강효상 의원도 11일 법인세율을 최대 22%로 낮추는 법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여당은 창업기업에 대한 특혜 등을 제외하고는 점진적 세율 인상을 추진 중이라 향후 야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추미애(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의원들과 묵념을 하고 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뒤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라는 문구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김기식 사태’ 이어 김경수 ‘땃글 조작’ 연루 의혹 앞 안 보이는 임시국회 正常化

4월 임시국회는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로 2주째 공전을 거듭하며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공방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원 땃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각종 민생 법안과 추가 경정예산(추경)안 등 현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민주당원 땃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와 특검을 적극 촉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이 의혹을 부풀려 정쟁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청와대와 집권당이 조직적으로 연루됐을 가능성이 포착된 이상 상황을 개인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땃글 공작 진상조사에 대해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김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된 국정원 땃글 사건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국가기관이 정치 여론

조작에 동원된 사건이라 한다면, 민주당의 땃글 사건은 집권당이 정치 여론조작에 개입된 사건이란 점에서 그 충격 강도가 대단히 소강한 사건”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백혜련 대변인은 “명확한 근거나 증거도 없이 마치 마녀사냥하듯 몰아가는 행태는 정치권의 구약으로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출처 불명의 수사

정보를 짜집기해 마타도어(흑색선전)를 하는 것은 심각한 마녀사냥”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논란에 대해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위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 오후 4시 선관위 전례회의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날 회의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4월 임시국회는 김기식 사태와 김경수 의원의 연루 의혹이 얽힌 데 달린 격으로 쌓여 가며 정상화 궤도에서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월 국회가 지방선거 전 마지막 임시국회일 가능성이 높은 데다 추경 등의 큰 현안이 정제되어 있기에 여야 모두 따가운 여론의 시선을 의식, 막판 타결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김하니 기자 honey@

서울시장 후보들 ‘經濟通’ 이미지 쌓기 첫 행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공략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소상공인 민심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이 이를 앞두고 다가온 만큼 당원을 직접 만나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층 확장에 나서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한 치킨집에서 소상공인 당원들과 ‘차맥(치킨과 맥주)’ 모임을 하고 자영업자에 대해 3가지 공약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서울페이(Seoul-Pay)를 도입해 카드 수수료를 대폭 경감하고, 자영업자 등이 임원하게 되면 일정 기간 근로소득을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 병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20%를 서울시가 부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외국에 가니 디자인 상품을 파는 가게들이 있다”며 “이제는 학생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사게 하는 디자인 문구 만드는 데 도와드릴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를 고민해서 서울에 에코마일리지나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코인을 지급하고, 이 코인으로 동네 가게에서 쓸 수 있게 하는 ‘서울코인’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소상공인의 표심을 얻기 위해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올해 초부터 ‘영선야 시장 가져’를 통해 소상공인을 찾아 현장 이야기를 생생하게 경험해오고 있다. 박 의원은 성수동 수제화 거리를 찾아 당시 소상공인들로부터 ‘젠트리피케이션(구도심의 발전으로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밖으로 내몰리는 현상)’ 문제를 제일 큰 고통으로 의견을 들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아침이 설레는 서울’ 비전을 발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갑질 문화 근절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민주당 후보군이 서울시장 선거에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도 판세를 뒤집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서울시장 공식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창업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과 각종 규제, 금융장벽을 낮춰줘야 한다”며 “창업기업이 시장에 접근할 수 없게 하는 대기업의 횡포를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된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대학교 주변 첨단지식산업 특구 지정과 대중교통요금 상한제 도입을 소개했다. 김하니 기자 honey@

南北 정상 첫 핫라인 통화, 다음주에 가능할 듯

남북이 2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2018 남북 정상회담의 밑그림을 이번 주에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주말인 14일 통신 실무회담을 열고 의견·경호·보도 분야 후속 실무회담은 18일 통일각에서 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실무회담을 마친 뒤 두 번째 남북 고위급 회담을 19~20일 열 것으로 보여 이날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신 실무회담을 한 차례 더 열기로 남북이 합의해 다음 주 초 남북 핫라인이 구축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 통화가 이뤄질 것으로 청와대는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는 (통화)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남북 정상회담 전에 하기로 했으니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이 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의 표어를 ‘평화, 새로운 시작’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담은 11년 만에 이뤄지는 남북 정상 간 만남이자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길잡이 회담으로서 세계 평화 여정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11년 만에 찾아온 기회가 평화의 시작이기를 기원하는 국민 모두의 마음을 표어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대변인은 “표어는 화선지에 붓으로 써서 제작했다”며 “정부 공식 브리핑 배경과 다양한 홍보물에 쓰일 예정이다”고 부연했다.

특히 청와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www.koreasummit.kr)을 17일 정오에 개설해 정상회담 실시간 속보와 자료를 공개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동민 기자 lawsdm@

굿네이버스

지난 10년간 1,800만 통의 희망편지를 통해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꿈꿀 수 있는 내일을 선물했습니다

희망편지쓰기대회는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올해 주인공 '사이먼'의 영상을 만나보세요

마포에 '청년 혁신' 創業기지 만든다

내년 상반기 信保 사옥 리모델링 300개 창업기업 입주공간 마련 금융·교육·네트워크 원스톱 해결

정부가 서울 마포에 청년창업 기지를 구축해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내년부터 3년간 300여 개 창업기업을 입주시켜 3000여 명의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내 신규 일자리의 상당수는 창업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 결과, 2012~2014년 평균 취업자 수 증가 폭(26만8000명)의 89.6%는 1년 이내 창업기업에서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의 창업 지원시설은 높은 수요를 충족하기에 규모와 서비스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매각을 추진 중이나 유찰이 지속돼 유휴공간으로 남은 마포의 신용보증기금 구(舊)사옥을 입주 공간과 창업·금융·교육·네트워크 등 청년창업 전분야의 패키지 지원이 가능한 청년혁신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창업허브 등 인근 창업시설과 대학, 여의도 금융기관 등과 연계해 서북권 청년창업 공간으로 활용이 용이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사업자 선정과 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신보사옥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리모델링 총사업비 약 300억 원은 신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반영한다.

타운 개소 후에는 내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300여 개 창업기업 입주에 들어간다. 실제 운영은 전문기관인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 전담할 예정이다.



김동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장관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입주기업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39세 이하 청년으로 한정해 창업·금융·교육·네트워크 등 원스톱 지원을 특화한다. 입주·창업기업에는 정책자금·펀드 등을 활용해 기업당 1억 원의 자금을 우대 지원한다.

정부는 300여 개 기업 입주 시 3000여 명이 근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전국 권역을 대상으로 청년혁신타운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경제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도 확정 발표했다.

지역별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제로는 △서울경철 청기동본부(동대문) 부지 내 패션혁신허브 조성(서울) △판교 테크노밸리 내 기업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확장(경기) △하천부지 내 신산업 실증시설 구축(대구) △외국인 투자기업의 산업단지 내 공장 증-

개축 허용(광주) 등이 꼽혔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는 △신(新) 유형 관광사업을 포괄하는 관광사업자 분류체계 개편(부산) △폐(廢)인체지방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 허용(대구) △수소차 충전소 등 융복합 충전소 설치·운영 확대(광주) △국·공유지 내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 시 임대료 경감(제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정필 기자 roman@

지역기업 문제해결-청년일자리 '희망이음' 非수도권 25개 회사·청년 75명 경진대회

산업기술진흥원·테크노파크 공동 균형발전박람회서 현장면접 기회

정부가 인재를 필요로 하는 지역기업과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을 위한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2018년 청년희망이음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년희망이음 프로젝트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전국 16개 테크노파크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비수도권 25개 회사, 청년 75명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기업 문제해결 경진대회를 시범 추진한다. 기업의 제품 불량 원인 해결, 유통비용 절감, 고객 서비스 개선, 판로 확대 수출시장 공략법 등에 대한 방안을 청년이 제시하는 과정에서 청년은 취업할 만한 기업인지, 기업은 채용할 만한 인재인지를 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희망이음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시작해 매년 약 1만 명의 청년이 500여 개 기업을 탐방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역기업에 대한 참여 청년의 인식 개선도는 2012

년 67%에서 2017년 81%로 증가했다.

또 청년들에게 기업 정보 제공을 위해 우수기업 기획 탐방도 확대한다. 지역 우수기업 인식 개선을 위해 여성 대표기업, 사회적 기업, 드론산업 기업 등의 기업 탐방을 확대해 우수 청년들이 지역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 하반기 예정된 2018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를 계기로, 채용박람회를 열어 지역기업과 청년 간 매칭과 현장 면접의 기회를 마련해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희망이음 프로젝트 수행으로 창출된 성과는 시상식(12월 예정)을 통해 우수기업 및 청년에게 산업부 장관상 등을 수여한다. 지역기업 문제해결 경진대회 우수팀, 인식 개선을 위해 기여한 공모 기업 및 우수 지역기업을 홍보한 청년에게는 다양한 포상이 제공된다.

안성일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기업과 청년이 더욱 가깝고 친밀하게 상호 탐색할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역기업에 우수한 청년인재가 채용되고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병기 기자 rby@

통영 廢조선소를 '한국판 말뚝'로

국토부·LH,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내년말 착공

통영 폐조선소가 전 세계 아이디어를 모아 '한국판 말뚝'로 재탄생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16일부터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조선업 침체로 2015년 폐업한 통영 신아 에스비(sb) 조선소를 스웨덴 말뚝처럼 국제적인 상징물(랜드마크)로 되살리기 위해 계획됐다. 스웨덴 말뚝시는 조선업 붕괴로 열악해진 도시가 1990년대 중반 도시재생을 통해 환경친화적 교육·문화·관광도시로 재탄생해 유명해진 곳이다.

이번 공모는 건축, 도시, 조경 분야 외에 부동산컨설팅, 문화 및 관광 콘텐츠 분야의 전문 업체(또는 전문가)의 참여를 필수요건으로 제시해 하드웨어적인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과 사업성도 중요시한 것이 특징이다. 또 능력 있는 신규 건축가, 도시계획가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려고 기존 실적보다 도시재생에 관한 아이디어 등을 중요 기준으로 선정한 방침이다.

공모를 통해 기본 구상이 수립되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과 개발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말 이후 부지 조성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와 LH는 대학생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크레인·독 등 기존 시설물 활용 방안, 상징물 건립 방안 등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도 추가로 진행해 지역주민과 국민의 관심 및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폐조선소 근무자 및 인근 주민 등의 창업 및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조선소 건물을 활용해 '(가칭)기업 지원 및 창업 지원 융복합 센터'를 올해 우선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방의 인구감소와 산업 침체에 대응하는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고 통영의 아름다운 경관과 어울리는 세계적인 수변 공간 디자인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 폐업 이후 흉물로 방치됐던 조선소가 오히려 지역 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이 사업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곽도훈 기자 soqood@

인천·김포 레미콘업체, 7년간 '가격 하한선' 담합

공정위, 27개사 적발 과징금 157억·검찰 고발...한달새 23.4% 올리기도

7년에 걸쳐 레미콘 가격을 담합한 레미콘 업체 26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56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5일 "레미콘 가격을 담합한 인천·김포 지역 레미콘 업체 26곳에 과징금 총 156억9500만 원을 부과하고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가 제제한 레미콘 담합 사건 중 최고액이다. 인천과 경기 김포에 있는 해당 업체들은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레미콘 가격의 하한선을 기준가격의 78~91%로 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은 유진기업, 동양, 정선레미콘, 아주산업, 정선기업, 인천레미콘, 삼표, 한밭아스콘, 삼표산업, 한밭레미콘, 한성레미콘, 한일시멘트, 한일산업, 강일, 케이와이퍼서, 드림레미콘, 삼덕, 성진, 금강레미콘, 쌍용레미콘, 반도유니콘, 두산건설, 서경산업, 장원레미콘, 건설하이콘, 비케

이, 경인실업 등 모두 27개 곳이다. 이 중 경인실업은 폐업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인천 북부(김포 포함), 인천 중부, 인천 남부 등 3개 지역별로 모임을 결성했다. 이어 2009~2016년 지역별로 8차례씩, 총 24차례에 걸쳐 중소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의 기준 가격을 담합했다.

담합 업체들은 글로벌 금융 위기 시점인 2010년 9월을 제외하고 레미콘 가격을 지속해서 올렸다. 일부 지역은 레미콘 가격이 한 달 새 23.4%나 오른 경우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업체들은 담합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와 건설 현장을 확인하는 등 감시를 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 가운데 북부권역 12개 업체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가격뿐 아니라 물량 배분 담합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박엘리 기자 ellee@

모두를 위한 SK증권 로보어드바이저



SHAKE는 고도화된 알고리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입니다 [by 쿼터백]

고객행복센터 1599-8245

※ 수익률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지체는 중병이 그러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지 않을 때입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저축보통예금(이하 예금보통예금)보다 변동성이 높을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스타트업 매개수수료 [주식] 0.15% + 1천원 ~ 0.05% + 1백만원 (거래금액별 차등, 세부 수수료율은 당사 홈페이지 참조)
※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테스트베드 통과가 해당 알고리즘의 품질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차고지·버스터미널·주차장·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전국 240곳

車 배출가스 '특별 단속반' 뜬다

'미세먼지 줄이기' 20일까지 활동
노후 경유차량·버스 등 주요 타깃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 지역은 차고지, 버스터미널, 주차장, 도로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 곳이다.

특히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 약 4만4000대를 중점 단속한다.

먼저 전국 17개 시·도는 240여 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 중에서 검사할 차량을 정차시킨 후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검사한다. 배출가스 검사는 경유차의 경우 매

연, 휘발유와 가스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다. 이 가운데 경유차의 매연 단속은 배출가스를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요원이 눈으로 판독해 매연 등급을 매긴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5곳(동호대교 남단·이수교차로·동작대교 북단·행주대교 북단·행주 IC), 울산시 1곳(아산로)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중 6곳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장비(RSD)로 단속한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제1항의 대기환경규제지역과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동호대교 남단과 울산의 아산로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결과를 근처 전광표시판에 알려줄 계획이다.

자동차 운전자가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받는다.

지자체는 이번 단속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린다. 개선명령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특히 급가속 등을 하지 않는 친환경 운전습관,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에 따른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은평 기자 pepe@

매주 일요일 '車 없는 세종대로'



차 없는 거리'가 시행된 1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 설치된 캠핑 텐트와 에어 베드에서 시민들이 주말을 즐기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10월까지 매주 일요일 세종대로 광화문 삼거리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방향 550m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연합뉴스

공무원, 퇴직 선배 만날때 기관장에 신고해야

부정청탁 근절 '행동강령' 개정
'취지 알지만... 지나쳐' 불만도

앞으로 공무원은 퇴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소속 기관 퇴직자와 골프 또는 여행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6일 정부 기관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부하 직원이나 민간에 갑질과 청탁을 못하게 하도록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강령은 공무원이 이해관계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고위 공무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산하기관에 취직시키거나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는 등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각종 갑질을 방지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실제로 공무원 자신과 배우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은 이해관계자에게 금액에 상관없이 협찬 요구를 하거나, 채용 등 인사에 개입하거나 계약 선정 등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 가운데 공무원들이 긴장하는 것은 퇴직 공무원 접촉을 사실상 금지한 대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퇴직한 (공무원)

선배와 신고하고 만날 때야 만남을 자제하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한 공무원은 "가끔 퇴직한 선배들이 기업체 고문 등으로 취직해서 부탁을 하려고 만나자고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요청을 뿌리치는 데 있어 이번 규정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업무 관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배 또는 후배를 만날 때마다 기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취지는 알겠지만 다소 지나친다는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유명회사 만들어 회삿돈 50억 횡령 의혹 삼양식품 회장 부부 법정에서 선다

회삿돈 50억 원을 빼돌리는 등 경영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전인장(54) 삼양식품 회장과 김정수(54) 사장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전 회장과 김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 등은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에

서 납품받은 포장상자와 식품 재료 일부를 폐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삼양식품은 이 폐이퍼컴퍼니로 납품 대금을 보냈고, 그 돈은 전 회장 부부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 사장은 폐이퍼컴퍼니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매달 40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 회장은 회삿돈을 자택 수리비 또는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

다. 전 회장은 또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경영이 악화될 사실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 원을 이 업체에 빌려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전 회장 부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횡령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은 2월 서울 성북구 삼양식품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전 회장 부부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3월 회장 부부를 차례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세하 기자 shys0536@

女검사 성추행·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前 검사장 영장 압박

검찰이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보복한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이번주 초에 신청할 전망이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최근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속 기소' 의견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을 마무리

중이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13일 양측 수위원장 등 15명이 모여 안 전 검사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심의했다. 이날 안 전 검사장 측과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 측 대리인이 모두 참석해 상호 간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심의위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 기소 의견을 낸 만큼 이번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는 동력을 확보했다. 게다가 대법관을 지낸 양 위원장이 이끈 수사심의위가 안 전 검사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여 법원의 영장 발부도 자신하고 있다.

법조계는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성추행 조사단의 영장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전 검사장 사건이 불거진 후 두 달 보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가 지연된 데 따른 거센 비판 여론도 성추행조사단의 행보를 빠르게 할 것이라 관측이다. 더불어 성추행조사단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로 안 전 검사장의 범죄 요건 보완조사를 진행하는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 확보에 주력해 왔다. 장효진 기자 js62@

법원 "소라넷" 운영자 여권발급 제한은 정당

해외로 도주한 성인전용 인터넷 포털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의 여권 발급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16일 소라넷 운영자 송모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여권발급제한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권법에 따르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고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며 "송 씨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청소년성보호법 범죄 등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 사유 및 체포의 필요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송 씨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등 내용이 담긴 결정서를 홈페이지에 공시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권법 시행령은 외교부가 여권 반납 결정할 경우 결정서를 명의인이 나 법정대리인의 주소, 거소에 등기우편

으로 송달하도록 한다"며 "그러나 2회 반송되거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공식송달을 하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소라넷을 운영한 송 씨는 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올라와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청소년보호법 방조죄 혐의로 지난해 5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해외로 도주한 송 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검찰은 같은 해 6월 2일 기소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외교부는 6월 16일 처분 통지서를 외교부 여권과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시했다.

박미선 기자 only@

랜섬웨어 정보센터 www.hauri.co.kr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바이로봇
Anti-Ransomware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바이로봇
APT Shield 2.0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바이로봇 7.0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주) 하우리 | 서울시 중로구 율곡로 238 (예일빌딩) 6층 | 대표전화 02-3676-1100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의 삶을 더 가치롭게 만들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로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행복
 그것이 롯데백화점이 생각하는 '롯데다움'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Lovely Life



신혼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9000만원까지 올린다

금융위, 내주 '서민층 주거안정 금융지원 강화안' 발표

정부가 연 3%대 고정금리로 최대 30년간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현재 7000만 원에서 8000만~9000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1억 원까지 확대를 검토했지만, 서민상품으로 고소득자를 지원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축소된 것이다. 자녀가 많을수록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고소득자 지원 등 비난 고려
부부 합산 1억 상당한 '없던 일로'

다자녀 대출, 자녀 2명 이상 확정
대출한도 확대·금리 할인 혜택

내) 여부, 다자녀가구 여부에 무관하게 △소득요건 7000만 원 이하 △구입 주택 6억 원 이하 △최대 대출액 3억 원 이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우선 가장 쟁점이 된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은 8000만~9000만 수준으로 상향된다. 고소득자 지원 비난을 고려해 1억 원까지는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등 세부적인 기준을 모두 픽스(고정)했는데, 1억 원까지는 안 올리고 최종 확정했다"며 "(8000만 원인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개편

※ 금융위, 이르면 다음주(23일~) 보금자리론 개편 등 '서민층 주거안정'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 발표



구분	현재	4월 출시 새 보금자리론
차주 연소득	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000~9000만 원
대상 주택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자녀 2인 이상부터 대출한도, 주택가격, 우대금리 적용
대출한도	3억 원 이하	
대출금리	연 3.4~3.65%(4월 기준)	
대출만기	10~30년	동일
취약계층 우대금리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 한부모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가구 각 항목별 0.4%포인트 금리 할인, 최대 0.8%포인트 인하 혜택, 금리우대 받으려면 주택면적 85㎡ 이하	자녀 2인 이상부터 금리혜택보는 주택면적 기준(85㎡ 이하) 상향

지, 9000만 원인지) 정확한 소득 요건은 7000만 원 기준은 너무 현실과 괴리된 측면이 있었다"며 "다만 합산 1억 원은 한 명이 5000만 원 버는 건데 이를 서민층이라 볼 수 있겠냐"고 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결혼 5년차 부부 강모 씨(37)는 "중소기업만 취직해도 연 3500만 원 이상은 버는 만큼 부부합산 다자녀 보금자리론은 자녀가 2명 이상

인 가구부터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다자녀가구는 자녀가 자라면서 더 큰 집으로 이사가는 현실을 고려해, 현 대출한도 3억 원,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요건을 완화해줄기로 했다. 현재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살 때만 0.4%포인트 금리 할인을 해주는데, 이보다 넓은 집을 살 때도 금리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자녀 2명 이상'과 '3명 이상'에서 막판까지 고민하다 저출산 현실 등을 고려해 혜택 요건을 넓히기로 했다. 이로써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지금보다 더 비싸고 넓은 집을 사면서 3억 원 넘게 대출도 받고 금리할인도 누릴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주거안정방안에는 보금자리론 외 다른 정책도 포함되는 만큼 같이 모아서 한번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월 정부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 신규 출시, 전세보증 이용차 보증금도 확대, 성실상환 차주 소액임차 특별보증 등 서민 주거안정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규준 기자 abc84@

"카드·캐피탈사 조달금리 0.5%포인트 오르면 최대 8300억 비용 증가"

국내 기준금리 인상으로 카드·캐피탈사의 조달금리가 0.5%포인트 오를 경우 금융비용이 최대 8300억 원 가량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지 여신금융연구원 연구원은 기준금리 상승으로 조달금리가 0.25~0.5%포인트 오를 경우 카드사의 조달비용이 1700억~35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같은 경우 캐피탈사의 조달 비용은 2400억~48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여신전문금융사 전체적으로 보면 4100~8300억 원의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셈이다.

최 연구원에 따르면 금리인상 전망이 카드사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카드사의 조달구조가 시장자금 조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 강화로 카드사 금리가 오르고 스프레드가 확대됐는데 이것이 카드사의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업황 악화에... 카드사 7곳 중 4곳 인력 감축

세전이익 3954억 전년비 28%↓

지난해 4분기 전업 카드사 7곳(BC카드 제외)의 세전이익이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황이 악화되면서 카드사 7곳 중 4곳은 인력을 감축했다.

16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7개 카드사의 2017년 4분기 세전이익은 39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했다. 분기 세전이익이 4000억 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3년 7개 카드사 구도가 형성된 이후 처음이다. 대손비용과 마케팅 비용의 부담이 늘어났고, 명예퇴직급여 지급 등으로 인해 판매관리비용이 증가한 영향으로 조정 충전영업이익률은 3.08%로 전분기(3.72%)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다.

향후 업황 전망도 어두울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해 말 총자산 대비 여신성카드 자산 비중은 32.9%로 올해도 대출 규제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카드론 등 카드대출 비중은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더불어 올해 결제업종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고, 연말 가맹점 수수료가 재산정될 예정이다. 가맹점 수수료는 인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부터 적용돼 카드사들의 결제부문 수익성 악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금리 인상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 같은 업황 악화

카드사 인력 현황 '관호 안은 증감'

카드사	2016년 12월 말		2017년 12월 말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신한카드	2606	285	2631(25)	160(-125)
KB국민카드	1515	54	1513(-2)	60(6)
삼성카드	1844	262	1832(-12)	238(-24)
현대카드	1540	692	1741(201)	709(17)
롯데카드	1281	423	1323(42)	370(-53)
하나카드	736	44	722(-14)	39(-5)
우리카드	388	160	426(38)	165(5)

는 장기적으로 카드사의 신용등급을 떨어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황 악화로 신한, 삼성, 롯데, 하나 등 대부분 카드사들은 인력을 감축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해 정규직을 25명 늘렸으나 비정규직을 125명 감축하며 몸집을 줄였다. 특히 지난해 말 퇴직자를 신청한 직원 200여 명이 올해 1월 회사를 떠나 신한카드의 인력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삼성카드는 정규직 12명, 비정규직 24명 감축, 롯데카드는 정규직을 42명 늘리고 비정규직을 53명 줄였다. 하나카드는 총 19명을 감축했다.

반면 디지털 관련 인력을 대거 충원한 현대카드는 전년 보다 200명 가량 직원을 늘렸고, 우리카드는 43명을 충원했다. KB국민카드는 기존 인력 규모를 거의 유지했다. 정수현 기자 int1000@

중금리 대출 확대 동참했지만... 저축銀 '울며 겨자먹기' 아우성

저축銀 '총량규제 등 유지 사실상 수익 포기하라는 것'

금감원 '실적 좋고 건전성 개선 금리 인하 등 여력 충분할 것'

저축은행 중금리대출

저축은행	상품	금리(%)
SBI저축은행	사이다	6.9~13.5
	중금리바빌론	5.9~17.9
웰컴저축은행	비상금대출	5~6
	텐대출	7.9~19.9
OK저축은행	중금리OK론	9.9~18.9
	JT진에서저축은행 원더풀 와우론	12~19.9

※ 출처: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업계가 금융당국의 중금리 대출 확대 요구에 호응하면서도 대출 총량제 유지에 따른 수익 감소가 불가피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6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저축은행들은 당국의 금리 인하 요구와 중금리 대출 확대 요구에 발맞춰 중금리 대출을 강화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이날 선보이는 '웰컴디지털뱅크'를 통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선보이는 '비상금대출'은 5~6%대 금리를 적용한 상품이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해 중금리 대

출을 확대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른 대형 저축은행들도 중금리대출 상품을 판매 중이다. SBI저축은행의 모바일 전용 중금리 대출 상품인 '사이다'는 6.9~13.5%, '중금리바빌론'은 연 5.9~17.9% 금리가 적용된다. OK저축은행은 연 9.9~18.9%대 '중금리OK론'을 선보였고, JT진에서저축은행은 12~19.9%의 금리를 적용한 중금리대출 '원더풀 와우론'을 판매중이다.

이처럼 저축은행들이 중금리 대출 확대에 동참하고 있지만 내부에

서는 '울며 겨자먹기'라는 아우성이 크다. 금융 당국이 금리 인하와 중금리 대출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도 '총량 규제' 등은 유지하고 있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것도 무산된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라는 것은 수익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금리와 총량 규제 모두 따르라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반면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금리를 낮출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들의 실적이 좋고 건전성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의 당기 순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겼다.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평균 연체율과 고정이여신비율도 작년 말 각각 4.54%, 5.37%로 1년 전보다 개선됐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조달구조 시장자금 의존 영향 급격한 건전성 악화는 없을 듯"

는 설명이다. 캐피탈사도 여전제 발행 의존도가 높다. 이에 따라 시장금리 상승으로 여전채 수요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면 자금조달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고 최 연구원은 진단했다. 다만 최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카드사와 캐피탈사 모두 크진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카드사의 경우 최근 양호한 이익을 내는 등 위험완충 능력이 개선하고 있어 한계자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캐피탈사도 최근 연체율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 연구원은 선제적인 위험요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업권 간 협력채널을 구축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여전사는 자금조달 비용 상승과 대출 관련 대손위험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며 "거시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전업권 간 협력과 소통 채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www.douzone.com

올 A+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Cloud Edition

(클라우드 서비스형)

Anytime 언제나
Anywhere 어디서나
Any Device 어떤 기기든
Anybody 누구나 쉽게 쓰고
Automatic 자동으로 처리되는

더존 Smart A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용하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 업무처리와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며, 수입 고객사 주요 거래 자료를 자동 수집, 분계, 입력하여 가장 시간이 좋고 세무회계사무소의 전산관리와 보안 이슈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세무사님들께서 Smart A Cloud Edition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Smart A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입니까?

- 47% / 데이터 유출 방지
- 21% / 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북)
- 19% / 편의성(스마트워크)
- 13% / IT관리비용 절감

데이터 유출 방지	국가 공인 전자서신센터가 운영되는 안전한 더존 클라우드센터에 Smart A 데이터 보관
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북)	매일 자동으로 거래내역 수집, 빅데이터 분석기술로 회계처리의 정확도 대폭 향상
편의성(스마트워크)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 밖에서도 PC와 모바일 기기로 Smart A 사용, 조회 가능
IT관리비용 절감	더존 클라우드센터의 IT 인프라를 빌려 쓰는 방식이라 각종 전산자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강력한 데이터 보안

- 365일 24시간 보안관리 서비스로 바이러스는 물론, 해킹과 데이터 유출까지 차단
- Smart A에 입력된 데이터는 클라우드센터에 3중 백업 보관
-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가 클라우드센터에 보관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효과 발생

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북)

- 수입처 거래내역을 매일 자동으로 수집, 분계 처리하고 회계전표로 생성
- 회계기준 빅데이터를 함께 분석하여 회계처리의 정확도 대폭 상승
- 자료 수집, 입력 등 전무 스트레스 해소, 가장 및 세무신고 시간 단축

스마트워크 환경 구현

- 언제, 어디서나 PC와 모바일 기기로 Smart A 사용, 조회 가능
- 수입처 방문 시 PC와 모바일 기기로 실시간 데이터 조회 및 상담 가능
- 주요 신고기간의 야근 및 출산, 육아 고민 등 직원 복지 문제까지 해결

탁월한 비용절감

- 클라우드센터의 IT 인프라를 빌려 쓰는 방식이라, 각종 전산자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 사용자 PC가 노후화 되어도 빠른 속도로 업무처리 가능
- MS Office 라이선스 무상제공 / Smart A 전용 메신저 무상 제공

문의 1688-5000

시리아發 국제유가 들썩... 배럴당 80달러 급등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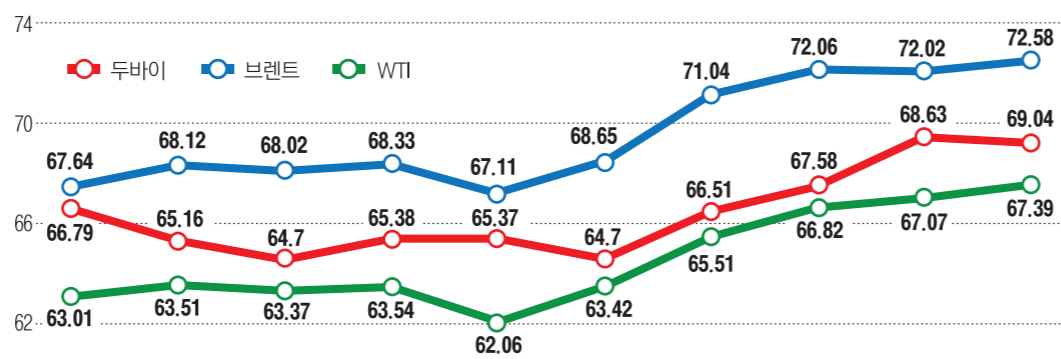
시세차익 수혜에도 '4년 전 악몽' 다시... 고민깊은 정유사

2014년 유가 100달러 넘었을 때 정유사 1조 가까운 적자 기록하기도

정제마진 하락·소비심리 위축 '악재' 업계 원유 공급 다변화 가속화될 듯

미국의 시리아 공습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에 정유업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 국내 정유업체에는 이득이다. 정유업체가 원유를 사 온 가격보다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판매 가격을 높여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급등(스파이크)이 일어나면 오히려 마진이 줄어든다. 유가가 급등한 수준만큼 판매 가격을 따라

일일 국제원유가격



올릴 수 없어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16일 관련 업계와 증권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서방 국가들의 시리아 내전 개입과 이란을 겨냥한 미국-유럽연합(EU)의 제재 가시화로 국제유가가 급

등했다. 공습이 있던 13일 이전에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두바이유는 배럴당 67.58달러, 브렌트유 72.06달러, WTI는 배럴당 66.82달러에 거래됐다. 공습 이후 국제 유가는 모두 상승했으며 브렌트

유는 72.58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정유업체가 무조건 수혜를 입는 것은 아니다. 2014년 국제유가가 100달러가 넘던 시절 정유사들은 1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당시 국제 유가는 북해와 예멘, 시리아, 아르헨티나 등에서 원유 공급 중단이란 돌발 변수와 이란발(發) 공급량 감소가 유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유업체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원유 가격이 아니라 정제마진"이라고 분석했다.

정제마진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에서 원료인 원유 가격과 수송·운영비 등의 비용을 뺀 금액으로 정유사의 수익이다.

정유업체 관계자는 "원유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정유사들의 제품 가격이 원유 가격을 따라가지 못해 국제 원유(비용)와 제품 가격의 스프레드가 줄어들어 정제마진이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위축되는 소비 심리도 정유업체에 악재로 작용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 유가 상승의 한국 경제 파급 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제유가가 만약 배럴당 80달러까지 상승하면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의 구매력 약화로 0.81%의 소비 하락 효과가 발생하고, 기업의 매출 감소, 투자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제유가의 급등락이 소비자가 체감하는 데 걸리는 건 2-3주 후다. 그 이후에 휘발유값이 상승하는 등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정유업체 관계자는 "휘발유값 상승 등으로 대체 에너지 수요가 늘어 정유사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관건은 원유 공급 라인의 다변화로 보인다. 정유업체의 또 다른 관계자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두바이유 수입 비중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류정훈 기자 jungh216@



13일 경북 영주시 상충동 가흥산업단지에서 위치한 SK머티리얼즈 가스 생산공장에서 유독가스가 담긴 탱크가 폭발했다. 사진은 SK머티리얼즈 공장 전경. 뉴스시스

세월호 '슬픈 교훈'에도 잇을 만하면 가스 누출 SK머티리얼즈 또 사고

'안전불감증' 여전... 평소 방지대책 필요

SK머티리얼즈 가스 생산공장에서 폭발화염(WF6)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기업들의 안전불감증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공장 붕괴, 유해가스 유출, 화재 등 잇을 만하면 사고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은 결국 기업들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인재(人災)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13일 사고가 발생한 SK머티리얼즈는 반도체, LCD 제조공정에 필요한 특수 가스를 주로 생산한다. 이 사업장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만큼 특히 주의해야 하지만, 그동안 수차례 사고가 나 주민의 원성이 높다. 2012년 4월 5일 이곳에서 발생한 질소가스 폭발사고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13년 5월 21일에는 반도체 생산공정에 사용하는 규소 가스 0.5 l가 유출되면서 불이 났다. 그해 8월 18일 유독성인 살레인 가스가 누출되고 불이 났을 때는 진화하던 직원 1명이 다치기도 했다.

장호호 SK머티리얼즈 사장은 "영주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영주시, 시민과 공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공장 주변을 철저히 조사하고 완벽하게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기업 생산 현장 사고는 잇을 만하면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두 차례 발생했고, 울산과 여수, 청주 등 국가산업단지에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관련자 조사 및 대응책 마련에 그칠 게 아니라 평소 철저한 안전사고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영록 기자 syr@

'용감한 자매' 이번엔 물벼락 甲질 조현민, 자진사퇴하나

(대한항공 전무)

갑질 파문에 비난 여론 '부글부글' 대한항공 3개 노조 '즉각 사퇴하라' 회사측, 법적대응 변호사 선임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와 관련 조현민 전무 측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려 중"이라고 밝혀 사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5일 대한항공의 3개 노조는 공동 성명을

내고 "조현민 전무는 경영일선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대한항공에는 민주노총 소속의 대한항공조종사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대한항공노조 그리고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대한항공조종사노조가 설립돼 있는데 3개 노조가 공동 성명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항공 노조뿐만 아니라, 조현민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논란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지면서 조 전무는 물론 대한항공 오너일가에 대한 사퇴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법적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에 나섰다. 조 전무 변호에 나선 임상혁 변호사는 "조 전무 본인이 해외 휴가 중 벌어진 일에서 많이 당황한 상태로 사실 파악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서 "현재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

며 "법적 책임은 물론 (사퇴)도적 책임까지 모든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조 전무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때와 마찬가지로 자진 사퇴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만 조현아 전 부사장이 당시 '기내 서비스 및 호텔사업 부문 총괄부사장' 보직에서는 물러나면서 대한항공 부사장 직위와 등기이사직은 유지해 비난을 받은 바 있어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

문선영 기자 moon@



'도시어부' 처럼 '손맛' 느껴볼까

낚시 인기 고공행진에 게임도 열풍 넷마블 '피싱스트라이크' 구글 2위 VR·AR 등으로 짜릿한 재미 더해 게임빌 '피싱마스터2' 하반기 출시

최근 들어 국내에서 낚시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련 게임의 흥행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내 게임업체들은 저마다 낚시 게임을 개발하면서 유저들이 새로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내 TV에는 프로그램들이 '낚시'를 소재로 다루면서 중장년층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낚시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인기 레저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tvN '삼시세끼 어촌편', 올해에는 채널A의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가 예능 강자로 떠오르며 낚시 인기를 이끌었다. 실내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낚시카페'가 생겨나는가 하면 온라인 소풍물 G마켓에서는 1분기 낚시 관련 용품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하기도 했다.

1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낚시 인기에 힘입어 게임을 즐기는 젊은 세대들도 새로운 문화에 눈을 돌리고 있다. 우선 넷마블이 12일 출시한 모바일 낚시게임 '피싱스트라이크'는 국내 구글플레이에서 인기순위 2위에 올랐다. 피

싱스트라이크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251개국 양대 시장에 정식 출시됐다. 게임은 이 용자가 직접 낚시꾼이 돼 전 세계를 다니면서 500여 종에 달하는 물고기를 잡아 수집하는 방식이다. 낚시 본래의 재미와 함께 성장, 스킵, 장비 강화 등을 통해 즐길 수 있다. 특히 잡은 물고기를 360도 카메라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피싱스트라이크는 2월부터 시작한 사전등록에서 글로벌 100만 명을 넘어선 모바일 낚시게임으로는 이례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게임빌은 현재 글로벌 다운로드 3000만 건을 기록한 '피싱마스터'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후속작인 '피싱마스터2'를 선보일 계획이다. 피싱마스터2는 언리얼엔진4를 활용해 3D그래픽으로 즐길 수 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일본에 '피쉬아일랜드2'를 출시했으며 국내에는 올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TV 예능프로그램에서 낚시를 소재로 다루면서 일반인들에게까지 친숙한 생활 스포츠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야외에서 낚시를 즐기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만족시켜줄 만한 게임을 통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관세 피하니 반덤핑 '폭탄' 넥스틸 美 수출 '속수무책'

'불리한 가용정보' 고율 관세 부과 쿼터 제한으로 수출물량도 절반 폭 증견·중소 강관사 불확실성 커져 美 매년 관세 재산정 '눈치보기' 지속

국내 철강업체들이 미국의 '반덤핑 관세 바람' 앞에 놓인 촛불 신세가 됐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에서 해방됐지만, 품목별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경우 수출 다변화 전략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지만, 당장 미국 수출에 의존해야 하는 중견·중소 강관사의 경우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향 유휴용강관 수출 비중이 높은 넥스틸은 11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관세 연례 재심 최종판정에서 해당 품목에 75.81%의 반덤핑 관세 '폭탄'을 맞았다.

지난해 10월 예비판정 때보다 29.44% 높은 고율의 관세가 매겨진 것이다. 미 상무부는 넥스틸의 유휴용강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이유로 '불리한 가용정보(AFA)'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AFA는 기업이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것을 뜻한다. AFA는 객관적인 기준 없이 미 상무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이해 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넥스틸은 이번 반덤핑 관세로 최악 수준의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25% 면세 효과는 사라진 데다, 쿼터로 인해 수출 물량도 절반 가량 줄어들면서 미국 사업에 '비상등'이 켜

넥스틸 대미 수출 현황 '2017년 기준'

수출규모	2281억 원
매출 대비 수출 비중	80%
유휴용강관 반덤핑 관세율	75.81%



진 탓이다. 넥스틸은 미국 로펌 두 곳과 계약을 맺고 1000쪽이 넘는 감사보고서를 미 상무부 제출했음에도 관세 폭탄을 맞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이번 결정에 불복해 미국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00억 원을 투자해 미국에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던 계획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세아제강을 포함한 타 강관 수출 업체는 6.75%의 관세로 예비 판정 때보다 소폭 상승하거나, 낮아져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매년 덤핑 관세를 내려 관세를 재산정하는 까닭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기간 국내업체의 '눈치보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병비 기자 dragonfly@

'가짜홍삼' 파문에 '오너리스크'까지 겹쳐 천호식품 매출 반토막

지나해 341억, 전년 대비 52.4% ↓
사명 바꾸고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

건강식품 전문기업 천호식품이 지난해 '가짜 홍삼' 파문과 오너 리스크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반토막 났다. 이에 천호식품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고 사명도 '천호엔케어'로 바꾸는 등 기존 천호식품의 색깔을 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천호엔케어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이 3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4%나 급감했다. 영업이익은 118억 원의 적자를 내며 적자 폭이 21억 원에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순손실 역시 전년 15억 원에서 작년에 93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천호엔케어는 지난해 초 가짜 홍삼액을 '100% 홍삼 농축액'이라고 속여 팔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호엔케어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원료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확인,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천호엔케어는 고의로 속여 가짜 홍삼액을

팔았다는 지적에 정면 반박하기도 했지만 김영식 전 회장의 '춧발' 폼파 발언 이후 터진 약재로 SNS상에서 불매 운동이 벌어졌다. 가짜 홍삼 논란에 앞서 김 전 회장은 2016년 11월 자신의 카페에 "뉴스가 보기 싫어졌다. 춧발시위, 데모, 옛날이야기 파헤치는 언론 등 왜이런지 모르겠다"며 춧발 집회 비하 발언을 해 오너 리스크를 자초했다.

연이어 터진 약재에 실적이 고꾸라지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급격히 악화했다. 2016년에도 영업손실이 있었지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8억 원 발생했다. 하지만 작년에는 이 계정이 63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가짜 홍삼 파문 이후 창업주인 김 전 회장은 책임을 지고 회장직을 내려놨으며 이어 2015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아 온 김 전 회장의 아들 김지안 대표도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천호엔케어 최대주인 사모펀드에서 파견한 박창환 이사가 잠시 대표직을 맡아 오다 아우홈 출신 전문경영인 이수우 대표를 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 대표는 올해 3월 사명과 CI를 변경하며 변화를 꾀하고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황사·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지켜라 슬기로운 뷰티생활

봄철 불청객 황사와 미세먼지로 클렌징과 피부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가정에서 간편하게 전문적인 홈케어를 돕는 뷰티 디바이스가 각광받고 있다. 피부과나 에스텍샵에서 값비싼 시술이나 전문적 관리를 받는 것보다 셀프 스킨케어를 선호하는 홈케어족이 증가한 데다 미세먼지로 유발된 피부 트러블로 고민하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다양한 피부 고민을 해결해주는 뷰티 디바이스를 잇따라 내놓으며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온' 노매관리.

16일 업계에 따르면 2013년 800억 원 규모였던 국내 뷰티 디바이스 시장은 4년 만에 6배가량 성장해 지난해 4700억 원대의 시장을 형성했다. 올해는 500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뷰티 기기 유통 매출이 늘고 있다. SK플래닛이 운영하는 11번가의 올 1-3월 홈 뷰티 기기 매출은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관련 제품 검색 횟수도 피부 관리 기기가 39%, 진동 클렌저는 26% 각각 늘었다.

대표적 제품은 LG전자의 홈 뷰티 기기 프라엘(Pra.L)이다. LG 프라엘은 피부 톤과 탄력 개선, 안면 리프팅을 돕는 탄력 케어 기기다. 특히 고주파 전류를 이용한 열에너지와 적색 LED 파장이 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며, 미세 전류를 피부 조직과 근육을 자극해 페이스 라인 케어를 돕는다. SNS를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뷰티 디바

저렴한 가격, 집에서 편안하게...
안면 리프팅 피부탄력 개선
홈케어 뷰티 디바이스 기기 각광



LG전자 '프라엘'.

LG '프라엘' 高價에도 인기몰이
아모레 '메이크온' 매출 270% ↑
실른 '진동 클렌저' 마사지 기능도

이스 시장의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출시된 LG 프라엘은 200만 원에 육박하는 고가(189만6000원)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매출이 늘고 있다. 가격 비교 사이트 예능리의 가격 비교에 따르면 올 3월 LG 프라엘의 매출은 1월 대비 338%나 증가했다.

아모레퍼시픽의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메이크온도 올해 1분기 누적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271% 증가했다. 최근에는 빛과 고주파의 더블 레이어 케어로 탄력 있는 눈매를 관리할 수 있는 '썬모웨이브 아이 리프트'를 새롭게 선보이며 제품 라인업을 강화했다. 연약한 눈가 피부는 물론, 팔자, 미간 등 탄력 손실이 많은 부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2014년 브랜드 론칭 이

후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모공 속을 말끔히 씻어내는 진동 클렌저부터 진동 퍼프, 마그네틱 페이스 롤러 등 다양한 제품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은 올 2월 비타민C 성분으로 피부를 밝게 가꾸 주는 앰플과 앰플 흡수력을 돕는 이온 기기로 구성된 'CNP 비타-C 갈바닉 앰플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홈 뷰티족을 공략하고 나섰다. 전기적 성질을 이용해 앰플의 유효 성분 흡수를 돕는 기기인 'CNP 비타-이온 젯'이 앰플 유효 성분의 흡수력을 높여줘 집에서 전문기에게 관리받은 듯 효과적이면서도 간편한 홈 케어가 가능하다.

뷰티 디바이스 전문 브랜드 실른코리아는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케어해줄 다양한 뷰티 기기를 선보이고 있다. 실른 진동 클렌저 퓨어는 클렌징 기능은 물론 마사지기까지 가능한 1석 2조 제품이다. 맨손 세안보다 세정 효과가 뛰어난 클렌저로 음파 진동 효과를 이용해 클렌징 모드와 마사지 모드 2가지 기능으로 사용 가능하다. 또 실른 블루는 피부 속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24개의 블루라이트와 피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프라세닐 열에너지 기능이 있어 피부 트러블로 고민하는 이들에게도 효과적이다. 김민정 기자 mj@



실른코리아의 뷰티 디바이스.

유통·식품업계 '新소비대국' 베트남으로~

CJ, 호찌민에 푸레쥬르 2호점 오픈... 하루 900명 방문 목표 대비 매출 2배

'처음처럼' 다낭공항 면세점 입점

베트남 정부가 최근 수출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낮추고, 지난달엔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는 등 각종 호재에 힘입어 국내 유통·식품업계의 베트남 시장 공략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최근 식품안전 관련 신규 시행령을 발효하면서 각종 행정 수속을 간소화하고 기업의 자원에 맡기는 등 수출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낮췄다. 이번 정책은 현 정부가 해외 기업에 우호적임을 잘 보여준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행정 비용이 90% 이상 줄어드는 등 시간 및 금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이후 '포스트 차이나'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 베트남에 최근 국내 업계 대표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순방길에 올라 시장 입지를 다지고 있다.

CJ푸드빌의 카페 프랜차이즈 푸레쥬르는 지난달 29일 베트남 호찌민에 푸레쥬르 칸호이점을 오픈했다. 이 매장은 '갓 구운 신선함'을 강조한 새로운 콘셉트로, 지난해 12월 오픈한 베트남 하이바중점에 이어 두 번째다. 국내에서 이미 선보인 바 있는 이 콘셉트는 기존 매장보다 달리 고객들이 갓 구운 제품을 직접 맛볼 수 있도록 오픈 키친과 갓 구운 빵 코너를 마련했고 메뉴와 매장 디자인에도 변화를 줬다.

CJ푸드빌 측은 이 같은 변화로 4월 현재 칸호이점의 방문객은 하루 평균 900명 이상이며 목표 대비 2배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7년 베트남에 진출한 푸레쥬르는 현재 37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인터파크투어는 최근 베트남 여행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베트남 전문 물을 오픈했다. 인터파크투어



베트남 고객들이 푸레쥬르 칸호이점 매장을 방문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제공 CJ푸드빌

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 항공권 예약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패키지와 숙박 등의 여행상품 예약은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터파크투어는 베트남 전문 물을 열어 베트남 인기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행상품 예약을 돕는 원스톱 채널을 마련했다.

인터파크투어 관계자는 "베트남은 연중 가장 많이 방문하는 여행지 중 하나로 인기가 꾸준하다"고 설명했다.

롯데주류는 지난해 소주 '처음처럼'이 베트남 다낭공항 면세점에 입점했다고 밝혔다. '처음처럼'이 해외 면세점에 입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트남 소주 시장은 전체 동남아 소주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이에 롯데주류는 베트남에서의 성장을 바탕으로 동남아 시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공항 면세점 입점은 단순 판매 채널 확대를 넘어 그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면세점 입점을 비롯해 동남아 등 해외 시장 진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Vitamin House



좋은 콜레스테롤 올려주고

활성형 모나콜린K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쁜 콜레스테롤 내려주는

모나콜린K의 힘

홍국쌀 발효과정에서 분비되는 신비의 붉은 빛 물질 모나콜린K가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청소하고 혈관 청소를 돕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유지시킵니다.

기능 및 성분 함량 (1일 1캡슐 기준)

모나콜린K 6mg

마그네슘 91mg (부원료)

마늘동결건조분말 100mg (부원료)



www.vitamin-house.com / 1588-8529 비타민하우스 가맹국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창업하고 함께 성공하는 친구처럼!



내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던 친구는 '산업용에어백조끼'를 만들고,
 동물을 사랑하는 친구는 '반려견공놀이기계'를,
 미니홈피에 재능이 있던 친구는 '가구매칭앱'을,
 그림에 끼가 있던 친구는 '색칠놀이앱'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IBK와 함께 창업하고 함께 성장하고
창업이 새로운 일자리가 되도록 IBK동반자금융이 함께 뛰겠습니다.

사람이 기업이다 기업은행이 동반자다



미달 속출... 맥 못 추는 地方 분양시장

대림 양주·포스코 평택·현대 김포 등 공급물량 못 채워
서울 쏠림 심화...충북·경북 외 모두 주택소비심리 하락

지방 분양시장이 맥을 못 추고 있다.

16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대림건설이 경기도 양주 신도시 옥정지구 A-19(1)블록에 공급한 'e편한세상 양주 신도시4차'의 74B형, 84B형 1·2순위 공급물량이 모두 미달됐다. 67㎡ 유형의 2순위 기타경기 경쟁률이 21.83대 1을 기록해 겨우 선풍했다.

포스코건설이 평택에 공급한 '평택 더

샵 센트럴파크 1BL', '평택 더샵 센트럴파크 2BL'은 각각 84㎡ 유형을 제외하고 모두 미달됐다.

현대건설이 김포에서 추진한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1·2단지' 공급 물량 중에서도 1순위 일부가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1단지에서는 76A형, 84C형, 86T형, 102A·B형, 113T형의 '1순위 해당지역'이 모두 경쟁률을 채우지 못했다. 2단지에서는

68B형, 76B형, 102A·F형 등의 청약접수권이 공급물량을 밑돌았다.

이 가운데 GS건설과 한화건설이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 GS건설이 대구 북구에 공급한 '복현자이'는 1순위 해당 지역에서 최고 878.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한화건설이 전북 익산에 공급한 '부송동 한화 꿈에그린'이 59C형 1순위가 미달했으나 최고 37.25대 1을 기록하며 선방했다.

서울의 분양시장이 수백대의 경쟁률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달리 지방 분양시장은 침체된 분위기다. 이는 지방 분양시장의 위축과 서울로 집중된 수요 심리가 맞

물린 현상으로 해석되고 있다.

작년 말 서울을 제외한 14개 지역의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전월 대비)를 보면 충북(101.5→102.9), 경북(92→93)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수치가 웃돌면 가격 상승 및 거래 증가 응답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을 밑돌면 그 반대 의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체 부동산 시장의 일부에 불과한 서울 강남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쏠려 상대적으로 지방 분양시장이 외면받고 있다"며 "일부 지방에서는 청약통장의 필요성도 잘 모르는 곳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시공능력 평가 10위권 대형 건설사 2분기 분양 10곳 중 7곳이 '首都圈'

서울 8·경기 24...32개 단지 몰려

삼성, 현대 등 시공능력평가 순위 10위권 이내의 대형 건설사들은 2분기 분양 예정 단지 10곳 중 7곳을 수도권에서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0대 건설사들은 2분기 전국 45개 사업장(오피스텔, 임대 제외)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32곳에서 분양에 나설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사업장의 71%를 차지하는 수치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8곳, 경기 24곳 등이다.

우선 시평순위 1위 삼성물산은 1분기 분양이 없었지만 2분기에는 서울에서만 3곳에서 분양에 나선다. 이 가운데 5월 양천구 신정뉴타운 2-1구역에서 '래미안 목동아텔리체'가 공급된다. 총 1497가구가

며 전용면적 59~115㎡ 64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또 내달 '서초우성1차 재건축(가칭, 전용 59~238㎡, 일반 232가구)'을 분양하며 6월에는 '삼성동 상아2차(가칭, 전용 71~84㎡, 일반11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5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서 '힐스테이트 신촌' 1226가구 중 전용면적 37~119㎡ 34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고, 이어 '하남 포웰시티' 전용면적 73~152㎡ 2603가구와 '힐스테이트 금정역' 843가구가 같은 달 선보인다.

GS건설은 2분기 예정단지 5곳이 모두 수도권이다.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뉴타운 8구역에서는 '신길파크자이'를 4월 분양할 예정이고,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서는 고덕주공6단지를 재건축한 '고덕자이'를 5월에 공급한다.

대형건설사 2분기 수도권 주요 분양 예정 단지

위치	단지명	전용면적(㎡)	가구수(일반분양)	분양 시기	건설사
서울시					
양천구 신정뉴타운 2-1구역	래미안 목동아텔리체	59~115	1497(647)	5월	삼성물산
서초구 서초동	서초우성1차 재건축	59~238	1317(232)	5월	삼성물산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파크자이	59~111	641(254)	4월	GS건설
강동구 상일동(고덕주공6단지 재건축)	고덕자이	48~118	1824(864)	5월	GS건설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 롯데캐슬	84~102	1361(1253)	5월	롯데건설
서대문구 북아현동	힐스테이트 신촌	37~119	1226(345)	5월	현대건설
경기도					
하남시 하남갈말지구 B6, C2, C3블록	하남 포웰시티	73~152	2603	5월	현대·대우·포스코·태영
군포시 금정동	힐스테이트 금정역	72~84	843	5월	현대건설
성남시 정자동	분당 더샵 파크리버	59~84	506	4월	포스코건설
구리시 인창동	e편한세상 인창 어반포레	39~84	632(339)	4월	대림산업
수원시 정자동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59~149	2355	5월	대우건설

* 자료 : 부동산인포 * 상기 내용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림산업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서 'e편한세상 인창 어반포레' 632가구 중 전용면적 39~84㎡ 일반 339가구를 4월 분양하며, 대우건설은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 일대에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전용면적 59~149㎡ 2355가구를 5월 분양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롯데건설은 5월 분양하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 롯데캐슬'을 내놓고, 포스코건설은 4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분당가스공사 이전부지에 '분당 더샵 파크리버' 전용면적 59~84㎡ 506가구를 공급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1분기 분양시장을 보면 수도권 지역의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를 중심으로 인기를 끄는 등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별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2분기 수도권 분양물량이 많아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성형 기자 carlove@

商街 평균 분양가 3.3㎡당 3306만원

1분기 전국 53곳 3287개 점포 공급

올해 1분기 공급된 상가 평균 분양가는 3.3㎡당 330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를 수집한 2001년 1분기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마곡, 남양주 다산, 하남 미사 등지에서 3.3㎡당 4000만 원을 웃도는 가격으로 상가 분양이 진행된 한편 상대적으로 공급가격이 낮은 LH 단지 내 상가 수는 적어 높은 분양가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8년 1분기는 총 53개 상가가 공급됐다. 분양 비수기와 LH 단지 내 상가 공급 감소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물량이 줄었다. 다만 100개 점포 이상인 대규모 상가 8개가 분양에 나서는 등 전체 점포 수는 전년 동기 대비 9% 많은 3287개 점포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근린 상가가 25개로 가장 많았고 복합형 상가 18개, 단지 내 상가 9개, 테마 상가 1개 순으로 공급됐다. 단지 내 상가의 경우 당분기에 LH 단지 내 상가가 2개 단지만이 입찰에 나서며 비교적 물량이 적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70%, 지방 30%로 수도권 위주로 공급이 진행됐다. 서울은 마곡지구에서만 6개 상가가 분양에 나섰고 경기도는 남양주 다산, 하남 미사 등 새 아파트 입주가 진행되는 지역 위주로 상가가 공급됐다.

당분기 공급된 상가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3306만 원이다. 이는 상가 분양 물량 집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22%가량 상승했다. 서울 노원, 마곡에서 총 7개 단지가 3.3㎡당 평균 4385만 원에서 공급되기 전 체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신철 기자 camus16@

경매 '거래절벽'...3월 낙찰건수 역대최저

2개월 연속 줄어 3067건...낙찰률 3년3개월 만에 35%대로 푼

2월 경매 진행건수 역대 최저치 기록에 이어 3월에는 낙찰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매수심리가 사라진 것이 낙찰건수 하락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1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3월 전국 법원 경매 진행건수는 8566건, 낙찰건수는 3067건을 각각 기록했다. 진행건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전월 대비 462건 증가한 8566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낙찰건수는 1월 3838건, 2월 3213건에 이어 3월에도 전월 대비 146건 감소한 3067건에 그치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3월 낙찰건수 3067건은 경매 통계가 작성된 2001년 1월 이후 역대 최저치다. 이전 최저치는 지난해 12월 3108건이다. 역대 월별 최다 낙찰 기록은 2005년 3월 1만3870건으로 현재

와 비교하면 1만 건 이상 낙찰건수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진행건수 증가 및 낙찰건수 하락은 낙찰률 하락으로도 이어지며 3월 낙찰률은 전월 대비 3.9%p 하락한 35.8%에 그쳤다. 낙찰률이 35%대를 기록한 것은 2014년 12월 34.1%를 기록한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부동산 매수 심리가 악화되면서 낙찰률이 35%대에 접근했다"며 "서울 아파트의 경우 1등 낙찰액이 실거래가에 근접하거나 넘는 경우도 있어 실수요자들이 아직은 시장에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2~3등으로 입찰액이 확인된 일부 물건의 경우 1등과의 격차가 5% 이상 나는 경우도 많아 시장에 일반 매물이 늘어난 경우 낙찰가를 하락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성형 기자 carlove@

최영진의 현안진단

각종 규제 이어 '중부세 인상' 카드 얼어붙은 시장 부양은 못할망정...

"이제 보유세 차려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세계 강화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그동안 공급 제도 개편·개발 규제·수요 억제·공공 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나선던 정부가 지금부터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같은 보유세 인상에 적극적이다.

보유세 개편 담당 기구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첫 회의를 열고 강병구 인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정했다. 특위는 상반기 중 부동산 보유세 관련 사안을 집중 논의해 하반기 세계 개편 안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보유세 인상이 기정사실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거론되던 보유세 압박 카드가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

문제는 재산세를 손낼 것이냐, 아니면 중부세율을 올리느냐이다. 사실 재산세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꾸준히 인상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은 올해 재산세가 대폭 늘어나게 돼 있다. 이런 판에 세율까지 높이면 조세저항이 거세질 게 뻔하다.

그래서 정부는 재산세의 경우 시세를 곧바로 과표에 반영하는 식으로 하고 중부세 쪽을 과감하게 손질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형국이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기준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눈치다.

여당에서도 올해 초 이명박 정부가 완화해 놓은 중부세율을 최고 50% 인상하는 법안을 강구하기도 했다. 아마 재정특위에서도 이런 범주에서 중부세 개편 작업을 다루지 않을까 싶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정부나 국회 쪽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은 과세 표준액 6억 원 이하인 경우 현재 0.5% 세율을 그대로 두고 6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구간은 현 0.75%에서 1%, 12억 초과~50억 원 이하는 1%에서 1.5%, 50억 초과~94억 원 이하는 1.5%에서 2%, 94억 원 초과는 2%에서 3%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다. 게다가 과표의 80%만 세금 계산 기준으로 잡는 이른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제도를 없애고 과표 100%를 적용하자는 의견도 들리고 있어 생각보다 세지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어쩌면 과표 고액 구간의 중부세 부담은 참여 정부 때보다 더 많아질지 모른다.

다행히 정부와 여당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중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대폭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을 갖고 있는 모양이다. 이는 고가의 1주택 소유자 중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사실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라 서울 강남권의 웬만한 아파트는 10억 원 대가 넘는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중부세가 합산 과세되고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까지 가해지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게다가 다주택자는 1가구 1주택자와 달리 주택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분부터 과표로 잡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지 않을 것 같다.

김욱 세무그룹 타스 대표 사무소에 따르면 공시가격 12억 원짜리 아파트 2채를 갖고 있을 경우 주택 합산 가격 24억 원에서 중부세 부과 기준 6억 원을 뺀 과표는 18억 원이 된다. 개편 세율 1.5%를 적용할 경우 중부세는 1650만 원이 된다. 종전보다 300만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별것 아닐 수 있다. 시가 17억~18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세금은 별것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 파급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까 싶다. 수익이 많은 자영업자나 역대 연봉자라면 별로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입장에서 사정이 다르다.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높아도 현금이 없으면 조물리게 된다.

보유세 인상 카드는 다주택자 압박용으로의 가치는 충분이 있다는 소리다. 이는 다주택자의 구매력을 확 떨어뜨릴 여지가 많다. 별다른 수입이 없는 다주택자는 갖고 있는 집을 팔려고 할 것이고, 자금 여력이 풍성한 주택 부자들의 추가 매입 의욕은 위축되지 않겠느냐는 진단이다.

지금까지의 각종 규제책만으로도 주택시장은 맥을 못 추는 판에 또 다른 고강도 수요 억제책을 내놓으면 어쩌란 말인가. 꼭 해야 할 일이면 지난해 주택 경기가 좋을 때 추진했어야 옳았다.

지금의 경기 상황은 침체 국면이다. 부양은 못할망정 더 얼어붙게는 말아야 한다.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대기자 choibak14@

금주의 분양캘린더

4월 셋째 주는 전국에 총 1만7836가구가 분양한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은 9036가구, 지방은 8773가구가 공급된다. 전체 분양물량 중 1만927가구는 행복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금성백조메이지3차' = 금성백조는 경기 화성시 동탄2지구 C7블록에 '동탄역금성백조메이지3차'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7층, 4개 동 규모로 아파트는 498가구, 오피스텔은 420실로 지어진다. 아파트는 전용 84~101㎡, 오피스텔 전용 22㎡ 구성이다. SRT동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2021년 GTX 개통도 예정돼 있다. 아파트는 19일부터 20일, 오피스텔은 19일부터 23일까지 청약예를 진행한다.

◇경분주택(3곳)

경기 평택시 죽백동 '아너하임186' = 일신건설은 경기 평택시 소사별지구 S-1블록에 테라스하우스 '아너하임186'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4층, 12

개 동, 전용 84~93㎡, 총 186가구 규모이다. 경부고속도로, SRT지제역 등 광역교통 접근이 용이하다. 교육 시설은 가내초, 비전중 등이 가깝고 도보권 내 도서관 부지가 계획돼 있다. 견분주택은 20일, 경기 평택시 죽백동 814번지에 개관을 앞두고 있다.

경기 하남시 망월동 '미사한화오벨리스크' = 한화건설은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지구 C10-1블록에 오피스텔 '미사한화오벨리스크'를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10층, 1개 동, 전용 22~49㎡, 총 893실 규모이다. 전실 북측으로 조성된다. 인근에는 지하철 5호선 미사역이 개통될 예정이며(2020년 예정) 9호선 미사역도 계획돼 있다. 한강시민공원, 망월천근린공원, 스타필드 하남이 가깝다. 견분주택은 20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 379-27번지에서 개관한다.

경남 김해시 외동 '김해쌍용에가더클래스' = 쌍용건설은 경남 김해시 외동 1075번지에 '김해쌍용에가더클래스'를 선보인다. 지하 2층~지상 29층, 5개 동, 전용 69~84㎡, 총 360가구 규모이다. 이 중 103가구가 일반분양이다.

날짜	구분	시	구사군	읍면동	아파트명									
4/16 (월)	접수	경기	고양시	지족동	고양지족A3(행복주택) (~4/20)									
				부천시	중동	부천중동1(행복주택) (~4/20)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A3(행복주택) (~4/27)								
				오산시	세교동	오산세교2A7(행복주택) (~4/20)								
				오산시	청학동	오산청학(행복주택) (~4/20)								
				오산시	청호동	오산청호(행복주택) (~4/20)								
				의정부시	녹양동	의정부녹양(행복주택) (~4/20)								
				평택시	죽백동	평택소사별A6(행복주택) (~4/20)								
				화성시	병점동	병점역세미프라움 ♣								
				인천	남구	송의동	인천송마루3(행복주택) (~4/20)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인천논현2(행복주택4BL) (~4/20)							
				광주	광산구	우신동	광주하남(행복주택) (~4/20)							
4/20 (금)	접수	경남	진주시	문산읍	진주남문산역1(행복주택) (~4/20)									
				창원시	석동	창원석동2A4(행복주택) (~4/20)								
				김천시	삼락동	김천삼락(행복주택) (~4/20)								
				충남	아산시	배방읍	아산배방쌍상복합2(행복주택) (~4/20)							
				충남	천안시	신방동	천안신방(행복주택) (~4/20)							
				제주	제주시	봉개동	제주봉개(행복주택) (~4/20)							
				4/17 (화)	접수	경남	김해시	장유동	김해올라리슈빌드스테인(민간인대) (~4/19)					
								세종시	연기면	세종마스터힐스(L1)울목마을1단지 1순위				
								세종시	연기면	세종마스터힐스(M1)울목마을2단지 1순위				
								4/18 (수)	접수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센트레빌 1순위 (당해지역)	
											경남	양산시	주전동	양산양우내안애파크뷰 1순위
											세종시	세종시	연기면	세종마스터힐스(L1)울목마을1단지 2순위
4/19 (목)	접수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금성백조메이지3차 ♣ (~4/20)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센트레빌 1순위 (기타지역)							
				경남	양산시	주전동	양산양우내안애파크뷰 2순위							
4/20 (금)	접수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센트레빌 2순위									
				경남	김해시	외동	김해쌍용에가더클래스							
				세종시	세종시	나성동	세종세일풍경채워너스카이(HC2)나릿재마을3 1순위							

(주1) ♣=오피스텔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피스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AI, 은행원 대체” vs “부풀려진 기대”

금융업계 복잡한 속내

많은 직원은 절반 교체 목표
실제로 AI 업무 제한돼
반복 생산·뉴스분석에 활용
“인력 대체보다 강화로 봐야”

유수의 글로벌 은행들이 인공지능(AI)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금융 산업에서 AI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 업무를 모두 AI가 지배할 것이라는 전망은 과장된 면이 있다고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은행들은 10년간 수익성을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AI의 잠재성은 그런 은행에 비용을 절감하게 해 줄 한 줄기 희망이다.

도이체방크의 존 크라이언 전 최고경영자(CEO)는 전체 9만8000명의 직원 중 절반가량을 로봇으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천명했다. 며칠 전 크라이언 CEO가 임기를 2년 남겨두고 도이체방크를 떠난다고 밝히면서 그의 약속은 지켜지지 어려워졌지만, AI가 금융 산업에 깊숙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만은

분명하다.

비크람 판디 전 씨티그룹 수석 애널리스트는 은행 업무의 30%가 5년 안에 AI로 대체될 것으로 점쳤다. 미즈호파이낸셜그룹도 2027년까지 전체 인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만9000명의 직원을 AI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글로벌 대형 은행들은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2010년 방코산탄데르의 스페인에 있는 방문객 센터를 찾는 고객을 위해 손님 안내 로봇을 선보였다. UBS는 고객 서비스 업무에 아마존의 음성인식 AI 비서인 알렉사를 이용하고 있고, JP모건체이스는 트레이딩 업무에 AI를 사용한다. 모건스탠리는 금융 사기를 탐지하는 업무에 활용하고, HSBC는 자금 세탁, 사기, 테러 자금 지원을 탐지하는 데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의 국제투자신탁회사 로베코의 제론 반 오를 애널리스트는 “장기적으로 AI의 활용 여부가 금융업의 승자와 패자를 가를 것”이라며 “특히 효율적 백오피스 운영에 AI는 경쟁력을 갖추게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나 FT가 글로벌 은행 30곳을 대상으로 AI 사용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마냥 장밋빛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30개 은행은 AI의 중요성에는 모두 공감했으나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관

한 전략은 모두 달랐다. 한 유럽계 은행은 현재 500~800개의 AI를 실제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스웨덴 노르디아은행의 경우 도입한 AI 시스템이 25개 뿐이라고 밝혔다. 책정한 AI 예산 규모도 연간 300만 달러(약 32억 원)에서 1500만 달러까지 천차만별이다.

전반적으로 은행들은 업무 전반에서 AI를 실험하고 있으면서도 알려진 것만 큼 AI 사용을 낙관적으로 보진 않았다. 로열뱅크오브캐나다에서 AI 연구팀을 이끄는 포테이니 아그라피오티 소장은 “사실 지금까지 AI가 해결한 업무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기계와 인간이 같은 수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오해”라며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주장했다.

핀테크 스타트업 카시스토의 조르 고어 로브 CEO는 “은행 업계는 AI의 역량을 비현실적으로 과장하고 있다”며 “가까운 미래에 AI가 100% 업무를 전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탠더드차타드의 사미르 쿤두 최고데이터책임자(CDO)는 “14개의 AI 프로젝트 중 20%가량이 비용 절감과 업무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대부분은 업무 능률을 간접적으로 향상하고, 위험을 줄이는 데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정의하는 AI는 인간이 하는 일의 보조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ING은행은 “우리는 고객에게 더 스마트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AI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며 “따라서 AI 사용을 ‘인력 대체’가 아닌 ‘인력 강화’로 여긴다”고 밝혔다.

AI가 사용되기에 적합한 분야를 선별하는 것도 예상보다 까다롭다. 산탄데르의 린드시 아르갈라스 디지털 담당 책임자는 “AI 만능주의와 같은 ‘AI 함정’에 빠지기 쉽다”며 “AI는 기존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AI가 금융업을 장악하려는 뚜렷한 신호도 아직은 없다. 10년 전 손님 안내 로봇을 선보인 산탄데르는 현재 1만3697개의 지점 중 공식적으로 AI를 도입한 지점이 한 곳도 없다. 스탠더드차타드의 쿤두 CDO는 “금융업의 AI 투자가 결실을 볼지 지금 논의하는 것은 너무 이른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AI가 유용한 분야는 분명히 있다. 산탄데르은행의 벤처투자 자회사인 산탄데르 이노벤처스의 파스칼 부비에 애널리스트는 “반복적 생산 업무의 경우 AI의 접근성은 매우 좋다”며 “은행들이 비용 절감을 하기에 매우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그라피오티 소장은 “뉴스 분석, 세계적인 이벤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AI가 쓸모 있다”고 분석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미국 자동차업체 포드가 지난해 8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도미노피자와 제휴해 피자 배달 실험을 진행한 자율주행차. 마이애미/AP뉴시스

포드, 직접 택시 사업한다

2021년 자율주행 운송 상용화
이미 LA·런던서 버스 서비스
대중교통 넘어 택배·배달 목표
GM·르노닛산과 경쟁할 듯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가 2021년부터 자율주행차 운송 서비스인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잇따른 사고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커지고 있음에도 자율주행차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드러낸 것이다.

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포드는 2021년 운전자가 없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단순히 IT기업과 차량 공급 계약을 맺는 수준을 넘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짐 페일리 포드 글로벌시장 책임자는 “자율주행차 생산업체에 기술을 판매하는 대신 자체 제작 차량을 통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포드는 지난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아르코에 10억 달러(약 1조690억 원)를 투자했다. 제너럴모터스(GM), 도요타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자동차 회사들뿐만 아니라 웨이모, 우버 등과 경쟁하며 자율주행차 기술을 개발 중이다.

자율주행차 시대에 직면한 자동차 제조사의 선택은 두 가지로 나뉜다. 불보와 재규어랜드로버 등은 우버와 웨이모에 차량을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반

면 GM과 르노닛산 등은 자체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포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물품 배송이나 배달 서비스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포드는 지난해 미국 마이애미에서 도미노피자와 제휴해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피자 배달 실험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자율주행차의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가능성도 검증하는 중이다.

페일리는 “실험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 그 자체”라면서 “수익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소비자가 자율주행차 서비스에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고객에게 얼마를 받는 게 운송업체에 적절한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드는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중소기업에도 개방할 계획이다. 페일리는 “현지 택배 서비스와 직접 경쟁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드의 로보택시 서비스는 하루 20시간 운행한다. 자사의 하이브리드차를 이용할 예정이며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트랜짓 밴과 같은 대형 차량도 활용한다. 이미 영국 런던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트랜짓 밴을 개조한 버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FT는 포드가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형차를 이용하는 것은 내년부터 웨보레 볼트를 사용해 자체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GM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분석했다. 르노닛산은 2022년 자체 자율주행차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은 내놓았지만 어떤 차량을 사용할지 등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이주혜 기자 winjh@

몬테네그로 大選 ‘EU 가입 추진’ 후보 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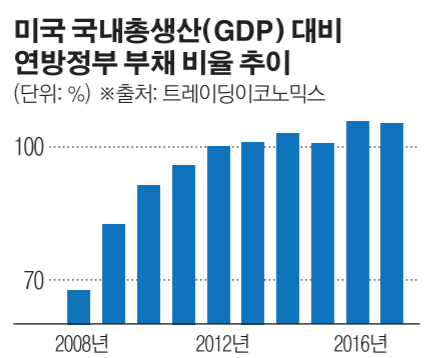
몬테네그로 대선에서 사실상 승리가 확정된 집권 사회민주당(DPS)의 후보인 밀로 주카노비치(가운데) 전 총리가 15일(현지시간)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열린 축하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날 투표 후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카노비치 전 총리는 53%의 지지율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 그는 친(親) 유럽연합(EU) 주의자로, EU 가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드고리차/AP연합뉴스

“미국, 갑작스러운 경기침체에 대항할 무기가 사라졌다”

경제전문가, 감세 철회 주장
“9년째 성장해 조만간 불황 와
감세·저금리 카드 이미지
5년간 GDP 3분의 1 손실”

미국 의회가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감세법안을, 올해 2월에는 대규모 재정적 부양책을 골자로 한 예산안을 통과시켰을 때 시장은 환호했다. 경제성장이 더욱 가속화되고 증시는 호황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그러나 브루킹스연구소의 헨리 애런 선임연구원은 최근 기고한 글에서 감세와 재정 확대라는 두 가지 행동으로 미국은 다음 경기침체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경제 확장이 언제까지 지속할 수는 없다. 현재 미국 경제는 9년간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긴



기방창이어서 조만간 또 다른 경기침체가 올 것임은 분명하다고 애런 연구원은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경기침체를 막으려면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두 가지 도구 중 하나를 쓰거나 모두 사용한다. 애런 연구원에 따르면 지금은 그 어느 쪽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이는 다음 경기침체가 더욱 오래고 깊어질 것임을 의미한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제로(0%)까지 낮추고 상당 기

간 이를 유지했다. 이에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연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애런은 지적했다. 현재 연준이 점진적 금리인상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금리가 여전히 너무 낮은 상태에서 다음 경기침체가 오면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재정정책과 관련된 상황은 더욱 안 좋다. 경제가 이미 완전고용 상태에 다가가는데 의회가 지출을 확대하는 조치를 펼쳐 경제 과열 리스크를 더욱 키우고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도 크게 약화했다.

현재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했을 당시의 두 배로 치솟았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에 가까워지면 이런 비율이 떨어지기 마련이나 오히려 지금은 상승했다. 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에 1조 달러(약 1071조 원)를 넘어설 전망이다. 애런 연구원은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세수가 줄고 실업자 증가로 인한 지출이

늘어 재정 적자가 순식간에 2조 달러에도 달하거나 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UC버클리)의 경제학 교수인 데이비드와 크리스티나 로머 부부는 최근 연구에서 정부가 통화와 재정정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경기침체가 오더라도 3년 이내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현재 통화와 재정정책을 이미 다 써 공격적으로 대응할 여력이 없는 국가는 경기침체 3년 반 이후 GDP가 이전보다 약 10% 줄어들게 된다. 특히 미국은 5년간 누적 손실이 약 6조~7조 달러로, 연간 GDP의 3분의 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애런은 감세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는 감세로 부자들에게 단기적인 즐거움을 선사했다”며 “그러나 경기침체가 오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미국인 모두가 심각한 손실을 볼 것”이라고 거듭 경종을 울렸다. 배준호 기자 baeh94@

‘83년 전통’ 美 육류회사엔 유선전화기 없다



전통기업, 디지털 전환 사할
젊은 기업보다 IT 위기감 높아
경영진 적극적 신기술 도입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IT기술 도입과 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3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기업들이 인공지능(AI),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 활용 경쟁에서 뒤처질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이들 기업은 디지털 전환에 사활을 걸었다고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개했다.

IT건설업 업체 포인트스스가 다양한 산업 분야의 미국 기업 경영진 6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년 이상 역사를 지닌 기업 경영진 중 절반 이상은 “디지털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느껴진다”고 답했다. 반면 젊은 기업 경영진은 40%만 그렇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이력과 상관없이 IT기술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전체 응답자의 90%는 디지털 기술이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답했다. 94%는 지난해 디지털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중 30년 이상 된 기업은 약 40%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IT 기술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 시장 조사업체 가트너는 올해 전 세계 IT 지출

이 3조7000억 달러(약 3958조2600억 원)로 지난해보다 6.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 전환에 노력하는 기업의 지출에 힘입어 성장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가트너는 설명했다.

83년 된 미국 육류공급업체 타이슨푸드는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좋은 예다. 스킷 스프레드리아 타이슨푸드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처음 회사에 합류해 책상 위의 유선전화를 보고 ‘이 유물은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회고했다. 타이슨푸드는 최근까지 사내에서 유선전화를 사용해왔으나 지금은 스카이프를 이용한다.

타이슨푸드는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과정에 IT기술을 도입해 식품 안전성을 높였다. 회사는 물체와 사람을 식별하거나 움직인 패턴을 인식하는 카메라를 생산 시설에 설치했다. 외부인의 침입이나 비정상적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서다. 블록체인 기술도 이용한다. 공급망을 추적해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조류인플루엔자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산 단계나 재배 농가 별 대처가 가능하다.

톰 헤이스 타이슨푸드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변화의 속도보다 앞서가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WSJ는 “오래된 기업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처리 과정이 번거롭고 기술과 직원 교육이 부족해 시간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는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체온 모니터링 ‘피몬’으로 해외시장 노크”

“정보기술(IT)·융합기술에 기반한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는 질병의 진단과 예방이 중요해지는 헬스케어 트렌드에 비춰볼 때 더욱 전망이 밝습니다.”

생체 신호 측정 기술을 개발해 진단 의료기기를 만드는 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 대표인 김정은은 2007년 창업 이후 10여년간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다. 웨어러블 헬스케어 분야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과 기존 산업을 융합하는 4차산업혁명의 주무대다. 하지만 국내에선 원격의료의 제한하는 의료법 등의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그가 해외시장을 노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에선 휴대폰을 통해 병원에 혈압데이터를 보내는 것은 허용되지만 처방은 금지돼 있어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의 확산이 어렵다”면서 “원격 의료의 허용과 시장성이 큰 인도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와 미국 등이 글로벌 진출의 타깃”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해외시장에 자신 있게 내놓을 제품은 자체 브랜드로 개발한 헬스케어 기기다. 그동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유플러스 등 여러 대기업과 협업, 다양한 생체정보 하드웨어를 개발해 상용화했다. 삼성전자 갤럭시 기어, 갤럭시 S9 등

김정환 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 대표



김정환 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LST) 대표가 서울 강서구 LST 사무실에서 10년간 국내에서 쌓아온 디지털 헬스케어기기 개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시장 진출의 의지와 포부를 밝히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대기업 납품으로는 성장 한계... 휴대용 의료기기 규제 아쉬워

10여년 ‘디지털 헬스케어’ 다져... 심전도·통증관리 기기 개발

스마트기기와 헬스케어를 접목, 휴대가 간편하면서도 체지방·혈압·심박수·스트레스 지수 등 다양한 생체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해 웨어러블 헬스케어 제품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자부심도 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대기업 납품에만 의존해서는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과감히 독립을 결심하게 됐다.

야심작은 지난해 말 출시한 국내 최초 패치형 전자체온계 ‘피몬(FEMON)’이다. 피몬은 흡사 바나나 모양의 장난감처럼 생겨 거부감을 없앴으며 겨울이래 붙이고 있으면 앱과 연동돼 유아의 체온

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열이 오르는 아이를 돌리려고 병원을 가도 제대로 아이의 상태에 대해 설명을 못해 답답한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피몬은 언제부터 급격한 체온 변화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제품은 네이버 스토어팜, 온라인몰 텐바이텐,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코너 등에서 판매 중이다. 그는 “국내에서 재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면서 “해외에서도 올해 1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구매 문의가 많다”고 자랑했다.

김 대표가 구상하는 의료 플랫폼은 꾸준히 진화하고 있다. 양 엄지손가락을 활용해 측정된 심전도 수치를 모바일 앱으로 전송해 혈압 추이, 혈관 나이, 동맥경화 여부, 스트레스 정도, 감정 상태 등을 보여주는 휴대용 심장 모니터링 의료기기 개발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웨어러블 헬스기기로 통증을 정량화한 통증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은 임상 적용 평가 중이다.

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는 지난해 12월 말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에 상장했다. 김 대표는 바나나 체온계 피몬과 휴대용 심장 모니터링 제품의 마케팅과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해 2020년에는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민정 기자 puri21@



최신원(앞줄 왼쪽 다섯 번째) SK네트웍스 회장이 총대표를 맡고 있는 아너 소사이어티가 1박 2일간의 연례 회원대표 회의를 가진 뒤 회원대표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SK네트웍스

최신원 회장 “나눔 DNA, 전국으로”

(SK네트웍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대표 회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총대표를 맡고 있는 아너 소사이어티가 1박 2일간의 연례 회원대표 회의를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세계 두 번째 규모의 고객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는 이번 연례 회원대표 회의를 통해 운영 활성화 방안 논의 및 향후 교류의 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1년에 한번 개최되는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대표 회의는 2014년부터 시작됐으며, 전 지회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 아너 소사이어티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

이다. 2013년 및 2014년 서울, 2015년 제주, 2016년 강원, 2017년 대구를 거쳐 올해는 전남 여수에서 행사를 갖게 됐다. 아너 소사이어티 총대표인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너 소사이어티 지역클럽의 발족으로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으로 나눔의 DNA를 전파할 수 있었고, 패밀리 아너로 인해 개인이 하는 기부에서 가족 중심의 나눔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이번 6번째 지역 모임이 아너 소사이어티가 더욱 성장하고, 우리의 나눔 문화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류정훈 기자 jungh216@

국가건축정책위원회장에 건축가 승효상 씨

국토교통부는 국가건축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의 5기 위원장에 유명 건축가인 승효상(사진)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제 대표가 지명됐다고 16일 밝혔다.



국건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민간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9명과 기획재정부 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승효상 5기 위원장은 ‘빈자의 미학’으로 유명하며 서울건축학교와 젊은 건축가 모임 등을 공동결성·운영했고 초대 서울시 총괄건축가를 역임하는 등 건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곽도훈 기자 sqood@

‘골프 기대주’ 김시우, 짧은 퍼트에 눈물

PGA투어 ‘RBC 헤리티지’ 연장 3차전 끝에 준우승

한국의 기대주 김시우(23·CJ대한통운·사진)가 짧은 퍼트에 발목이 잡혀 준우승에 그쳤다.

김시우는 17번홀(파3)에서 벌어진 연장 3차전에서 버디를 골라낸 고다이라 사토시(일본)에게 졌다. 사토시가 먼 거리에서 먼저 퍼트한 볼이 홀에 쏙 들어가 버디를 잡아낸 반면, 김시우의 볼은 홀을 살짝 벗어났다.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다. 우승을 향해가던 경기 후반 퍼트 난조를 보이면서 결국 연장전에 들어 사토시에게 진 것이다.

김시우는 16일(한국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하버 타운 골프 링크스(파 71·7081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투어 RBC 헤리티지(총상금 670만 달러) 최종일 4라운드에서 버디와 보



기를 3개씩 주고받으며 타수를 줄이지 못해 합계 12언더파 272타(68-65-68-71)를 쳐 이날 5타를 줄인 사토시와 타이틀을 이뤘다.

김시우는 2번홀(파5)과 5번홀(파5)에서 세컨드 샷이 둘 다 병커에 빠졌지만,

핀에 붙어 버디를 잡아낸 데 이어 9번홀(파4)에서 세컨드 샷이 그린에 못 미쳤으나 퍼터로 친 볼이 홀을 파고들어 버디로 연결됐다. 후반 들어 12번홀(파4)에서 첫 보기에 이어 15번홀(파5)에서도 짧은 파 퍼트가 홀을 벗어났다. 17번홀(파3)에서도 보기를 범했다. 특히 18번홀(파4)에서 핀에 붙고도 우승 버디 퍼트가 빗나갔다.

우승 다툼을 벌이던 루크 리스트(미국)는 합계 11언더파 273타로 브라이언 디샴보(미국)와 함께 공동 3위, 이안 폴터(잉글랜드)는 합계 9언더파 275타로 공동 9위로 밀려났다.

안병훈(27·CJ대한통운)은 합계 9언더파 275타로 공동 7위에 올랐다. 김민휘(26·CJ대한통운)는 합계 1언더파 283타로 공동 50위로 밀려났고, 최경주(48·SK텔레콤)는 이븐파 284타로 공동 55위에 머물렀다.

안성한 골프대기자 golfahn58@



13일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을지로 푸르니 하나금융 어린이집’에 등원한 원아들이 부모님, 선생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제공 하나금융

“2년 내 직장·국공립 어린이집 100개 건립”

하나금융 “아동 9500명 수용”

하나금융지주는 2020년까지 직장어린이집 10곳과 국공립어린이집 90곳 등 어린이집 100곳을 세우겠다고 16일 밝혔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직장어린이집은 그중 내 수요조사를 벌인 뒤에 건립할 예정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주로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아동 9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하나금융은 예상했다.

하나금융은 현재 임직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8곳과 은행권 공동 어린이집 4곳, 지역사회 대상 국공립어린이집 2곳 등을 운영 중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하나금융의 보육지원사업을 계기로 향후 기업과 사회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이 범사회적으로 확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규준 기자 abc84@

인사

◆법제처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인사담당관실 최홍준

◆국방기술품질원 △감사실장 책임연구원 정원오 △경영지원부장 책임관리원 유기준 △혁신행연구부장 책임연구원 김성근 △분석평가부장 책임연구원 정태운 △기술정보부장 책임연구원 김세일 △전략지원체계연구센터장 책임연구원 김호진 △탄약센터장 책임연구원 김윤희 △합정센터장 책임연구원 장종진 △기동화력센터장 수석연구원 송석봉 △항공센터장 책임연구원 남용석 △신뢰성시험센터장 책임연구원 임희준

◆한화생명 △미래VisionTF팀장 황승준 △디지털혁신실장 엄성민 △CPC 전략실장 나재범 △개인지원팀장 장인순 △GFP사업부장 강재준

◆한겨레 <국립장> △디지털미디어국장 임석규 <부부장> △기획담당부국장 송재용 △콘텐츠1부부장 이종규 △콘텐츠2부부장 박현 △디지털부부장 이재명 △논설위원 김영태 신승근 <에디터> △한반도국제 박민희 △국제 이보영 △경제 김희승 △사회1 석진환 △사회2 김규

원 △정치 최해정 △탐사 이재성 △토요판 안선희 <부장> △섹션매거진부 편집장 김보근 △출판사진부장 이정우

◆연하뉴스 △통일언론연구소 설립추진단장 정일웅 △기획조정실장 이성환 △기획조정실 부실장 정전기 △마케팅본부장 이유 △마케팅본부 고문 김선환 △논설위원실장 현정숙 △논설주간 정성욱 △논설위원 김은주·문병훈·성기홍 △콘텐츠평가실장(고충처리인 겸임) 추영환 △콘텐츠평가실 고문 유일형 △콘텐츠평가위원 김용운·박상현 △감사팀장 송병승 △한민족센터본부장 지일우 △한민족센터 고문 이희용 △정보사업국장 송정호 △DB-출판국장 이창호 △경영지원국장 김동욱 △미디어기술국장 이상우 △디지털융합본부장 최재석 △디지털융합본부 부본부장 최재영 △편집국 정치에디터 겸 팩트체크팀장 권정상 △경제에디터 권영석 △사회에디터 임성우 △국제에디터 김계환 △외국어에디터 양태삼 △통합에디터 유경수 △국제경제부 고문 윤동영 △미주총국장 내정 김현준 △유럽총국장 내정 김민철 △경기취재본부장 고승일

◆연합뉴스TV △보도국장 이성섭 △시청자센터장(고충처리인 겸임) 경경영

확실 부실장 이정내 △보도국 부국장 추승호

◆KBS △대외협력실 홍보부장 유승영 △대외협력실 국제협력부장 김명삼 △혁신추진단 혁신추진부장 권오훈 △남북교류협력단 남북교류협력부장 곽우신 △보도본부 탐사보도부장 유원중

부음

▲변양수씨 별세, 상윤(환경부 사무관)·효정·정웅(NH투자증권 이자출매로 부장)씨 부친상, 김정호(SK이노베이션 홍보실 팀장)씨 장인상, 김미경(특허청 사무관)·성수현(현대연구소 책임연구원)씨 시부상 = 15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7일 오전 8시 30분, 02-2258-5940

▲이원진씨 별세, 이동근(유일엔지니어링 부사장)·동률(건국대학학전대학원 교수)씨 모친상, 권상기(전 기술신용보증기금지점장) 장모상 = 14일, 건국대병원, 발인 17일, 02-2030-7904

▲정용재씨 별세, 박희영(한국외대 철학과 명예교수)·희원(이노피어테크놀로지 사장)·희문(한국화학연구소 선임연구

원)씨 모친상, 정미라(가천대 유아교육학과 교수)씨 시모상 = 1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7일, 02-3410-6917

▲김수자씨 별세, 이형래(강동경희대의대병원장)·형문·형호(심리상담센터과 사외기법 대표)씨 모친상, 차봉상(동양텔레콤이사)씨 장모상, 박지명(아이파트너스코리아대표)씨 시모상 = 15일, 강동경희대병원, 발인 18일 오전 9시, 02-440-8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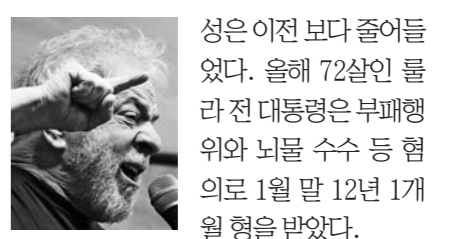
▲조봉현씨 별세, 정재훈(삼성서울병원 내과과장)·재운(미국뉴욕회계사)·재인(연세안과 원장)·수경·재선·윤현씨 모친상, 강지혜(소아청소년과 원장)·김영지·김민정씨 시모상 = 1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7일, 02-3410-6917

▲김용철씨 별세, 호중(미국 거주 사업)·혁중(충남 예산전자공교 교장)·영중(동일부동산 대표)·형중(창원운남중 교장)·낙중(미국LA한국문화원장) 부친상 = 15일, 충남대병원, 발인 17일 오전 7시, 042-280-8181

▲김학봉씨 별세, 미순(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미디어전략팀장) 부친상 = 15일, 국립중앙의료원, 발인 17일 오전 8시, 02-2622-4800

틀라, 식지 않는 인기... 수감 중에도 지지율 1위

부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루이스 이나시우 틀라 다 시우바(사진) 전 브라질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수감 중임에도 인기가 식지 않아 10월 브라질 대선을 앞두고 정국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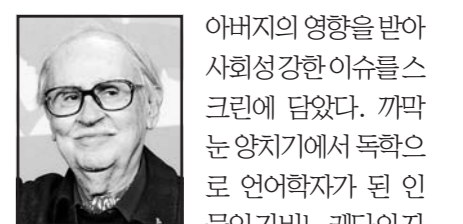
성인은 이전 보다 줄어 들었다. 올해 72살인 틀라 전 대통령은 부패행위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1월 말 12년 1개월 형을 받았다. 극우 성향의 사회자유당 후보 자이르 보우소나루 연방하원의원은 15%, 지속가능네트워크의 마리아 시우바 전 연방 상원의원은 10%를 각각 기록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15일(현지시간) 브라질 여론조사업체 다타폴라에 따르면 틀라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31%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1월 조사와 비교해 틀라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37%에서 6%포인트 하락해 출마 가능성이

칸·베를린 석권 伊 영화 거장 비토리오 타비아니 별세

칸 영화제와 베를린 영화제를 석권한 이탈리아 영화 거장이자 ‘타비아니 형제’로 알려진 비토리오 타비아니(사진) 감독이 8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1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타비아니의 가족들은 그가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이날 로마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그는 동생인 파올로와 함께 타비아니 형제로 불리며 15편이 넘는 영화를 공동 연출했다. 타비아니 형제는 반파시즘 운동가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사회성 강한 이슈를 스크린에 담았다. 각각 눈 앞지에서 독학으로 언어학자가 된 인물이 가비노 레다의 자전적 소설을 각색한 1977년 작품 ‘파드레, 파드레’는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과 국제영화비평가연맹상을 받았다. 그는 최근까지도 활발한 작품 활동을 벌여왔다. 이주혜 기자 winj@



함께 사는 즐거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도와드립니다.



共生 共樂 공동주택 행복지킴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 입주자대표회의 / 동별대표자 / 관리비·사용료 / 장기수선충당금 / 층간소음
공용부분 유지·보수·개량 / 리모델링 / 혼합주택단지 / 공동주택관리기구

신청요건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

031-738-3300





공병호의 독서산책

제이 새밋 '부의 추월이 일어나는 파괴적 혁신'

제이 새밋이 쓴 '부의 추월이 일어나는 파괴적 혁신'이라는 책은 커다란 전환의 계기를 찾는 사람들, 빅 아이디어는 있지만 그 아이디어를 펼칠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 기술 혁신의 시대에 뒤처질 것이 걱정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될 확실한 조언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 누구의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 대부분이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개인과 기업의 파괴적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놓았다는 점이다.

저자는 미국 스타트업 시장에서 기술 혁신가로서 대단한 성공을 거둔 인물로, 이 책은 그의 실제 경험을 담고 있다. 그는 '업계에서 가장 훌륭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되는 인물로 다수의 기업을 창업 혹은 인수해 '포춘 500대 기

혁신은 시장이나 체제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과거의 파괴적 혁신은 소수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지만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도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질 점이 차이다.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면 기존의 기업과 비즈니스 모델로부터 새로운 진입자에게로 막대한 돈이 흘러간다는 점이다. 저자는 "이 책이 그 격량이 뛰어드는 법을 다룬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면 누구든 파괴적 혁신가가 될 수 있는가. 저자는 파괴적 혁신가에 대해 나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린다. "파괴적 혁신으로 만들어 지는 기회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 기술 혁신에 결코 주눅 들지 않는 사람, 끊임없이 자신을 재창조함으로써 자신만의 고유한 자산이 용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사

임병화 칼럼



수원대 경제학부 교수

증권거래에도 블록체인 활용을

건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이른바 '유령 주식'을 바탕으로 입금하면서 증권사 시스템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입력 오류에 대한 점검시스템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신뢰할 수 없는 공매도와 관련한 증권사 시스템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을 보유하고 않아도 매도 주문이 가능한 공매도 제도가 있다. 공매도 중에서도 미리 남에게 빌려 현재가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고 있지만 주식부터 팔고 이후 주식을 빌리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이번 사태는 기관투자자들의 무차입 공매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스템의 허점이 다른 곳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은 개별 증권사 시스템을 넘어 증권 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장된다고 볼 수 있

다. 국내 증권 시장에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도입이 생각나는 이유이다.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은 증권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먼저 분산된 원장으로 증권 거래 내역을 빠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배당 및 주식 분할 등을 스마트 계약에 포함하여 오류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청산·결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도 있다. 삼성증권 사태는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일인 것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 거래 시스템에는 다른 장점도 있다. 분산된 원장을 통해 거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시장 참여자 간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줄여줄 수 있고 국내 증권을 비롯하여 해외 주식이나 채권을 저렴한 비용에 거래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유동성 및 투명성 확보는 가격 발견 기능 또는 위험자본의 모집 등 자본시장의 순기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장외주식 거래에 활용한 다면 벤처기업 투자가 용이해져 투자 확대를 기대할 수도 있다.

또 기업지배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주가 조작 또는 불법 주식 거래가 힘들어질 것이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주주총회에서의 전자투표도 가능해지면 지금까지 무시되었던 소액주주들의 주주권 행사의 폭이 넓어지는 주주 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가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의 나스닥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인 링크(Linq)를 운영하고 있으며, 호주는 작년 말 이미 청산·결제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하였다. 영국, 일본, 홍콩, 칠레 등도 안전성과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블록체인 기반의 주식 거래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거래소가 블록체인 기반의 장외 주식 거래 시스템인 'KSM(KRX Startup Market)'을 개발했지만 장내 주식 시장에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 사건이 안전성과 투명성,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주식 거래 시스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내 커리어는 영원한 베타버전"

업'에 매각한 인물이다. 책의 신뢰도를 더하는 것은 저자의 서문 바로 뒤를 이은 링크드인(LinkedIn) 설립자이자 회장인 리드 호프만의 추천이다. 10여 년 전 그가 링크드인 아이디어를 실현에 옮길 때 많은 사람들은 "턱없는 이야기"라는 평가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그때 호프만은 새밋에게도 아이디어를 소개했는데, 그는 단박에 "그것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 책은 모두 1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왜 파괴적 혁신인가 △먼저 자신을 파괴하고 혁신하라 △나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라 △사내 기업가의 가치 △츰비 아이디어를 찾아서 △5대 가치 사슬 등의 주제들로 각각의 장이 채워진다. 혁신에 관한 서적이긴 하지만 책의 중심은 자기계발서에 가깝다. 기존의 많은 자기계발서와 달리 스스로 파괴적 혁신을 통해 대단한 부를 이룩한 인물의 자전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흥미진진한 사례들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파괴적 혁신은 시장이나 체제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과거의 파괴적 혁신은 소수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지만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도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질 점이 차이다.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면 기존의 기업과 비즈니스 모델로부터 새로운 진입자에게로 막대한 돈이 흘러간다는 점이다. 저자는 "이 책이 그 격량이 뛰어드는 법을 다룬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면 누구든 파괴적 혁신가가 될 수 있는가. 저자는 파괴적 혁신가에 대해 나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린다. "파괴적 혁신으로 만들어 지는 기회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 기술 혁신에 결코 주눅 들지 않는 사람, 끊임없이 자신을 재창조함으로써 자신만의 고유한 자산이 용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사

질주하듯이 스타트업 세계에서 신화를 이룬 인물의 자전적 자기계발서라는 점이 이 책의 특별한 가치이다.

알쏭달쏭 말쑥말쑥

혼서지(婚書紙)

봄, 결혼의 계절이다. 결혼이 확정되면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예물을 보내는데 이를 '납폐(納幣)'라고 한다. 각 글자는 '달일납', '비단 폐, 예물 폐'라고 혼독한다. 신부의 집에 '예물을 들여놓는다'는 의미이다. 예물을 네모지게 만든 나무 상자인 '함(函)'에 넣어 보냈으므로 '납폐(納幣)'를 속칭 '함 들여보냄'이라고도 하는데, 이때에 함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을 '함진아비'라고 불렀다.

옛날에는 신랑 측 집사가 이 역할을 했으나 머슴이나 집사가 없어지자, 1970~2000년대에는 신랑의 친구들이 이 함진아비 역할을 하면서 작정한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부 집 근처에 도착한 함진아비와 신랑의 친구들은 겨우 "함 사세요!"라는 말만 외칠 뿐 일부터 들어가지 않고, 신부 측 혼주를 향해 술상을 차려 오라 하거나 '함값'을

달라면서 익살을 부려 결혼 축하 분위기도 띄우고 싶지만 적당 정도의 돈을 받아서 친구 결혼식 덕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술잔을 기울이며 우정을 다지기도 했다.

물론, 지나친 장난과 과도한 돈을 요구함으로써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때 함에 반드시 넣어 보내는 신랑 측 혼주의 편지를 일러 '혼서지'라고 한다. 사실은 '지(紙:종이)'를 빼고 '혼서(婚書:혼인편지)'라고만 해야 더 정확한 말이다. 이제 함진아비의 풍속도 거의 다 사라지고 비

싼 예물을 보내는 일에만 신경을 쓰는 세상이 된 것 같다.

그래도 전통을 깰지라도 무시할 수는 없는 지 함에 혼서지를 넣어 보내는 일은 더러이 어지고 있다. 필자에게 혼서지를 써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종종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 혼서지가 은통 한자이다 보니 그 뜻을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 성스러운 결혼식에 예물과 함께 보내는 편지라면 그 뜻을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앞으로 2회에 걸쳐 혼서의 내용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온라인 모자모

세월호 참사 4주기, 전국서 추모 물결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참사 4주기를 앞두고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전국 곳곳에 마련된 분향소와 추모 공간에는 수많은 추모객이 찾아 참사의 기억을 되새기고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4·16연대, 4·16가족협의회, 세월호참사 4주기 대학생준비위원회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16 세월호 참사 4주기 국민 참여 행사'를 열었다.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위원장은 16일로 예정된 피해자 영결식을 언급하며 "영결식을 하면 진상을 규명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영결식은 진상규명을 시작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장원의 세월

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사람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며 "끝까지 이뤄내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여의도에서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국회 앞을 출발해 광화문광장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4·16 세월호 참사 4주기 교사-청소년 도보 행진, 가만히 잊지 않겠습니다'를 진행했다. 세월호가 거처된 전남 목포신항 앞대에서는 15일 '세월호 참사 4년 기억 및 다짐대회'가 열렸다. 세월호를 참관할 수 있는 시

간이 마련돼 추모객들이 직접 선체를 둘러 보기도 했다.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이 마련된 인천에서도 각종 추모행사가 열렸다.

트위터 아이디 '@kte****'는 "어느새 4년이 흘렀네요. 아직도 그날 그 시간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있는데 모두에게 애도와 위로로 드립니다. 미수습자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기원합니다"라고 밝혔다. 네이버 아이디 '256d****'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것은 이 사고를 계기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로도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

“ 2중 3중 철통보안으로 빈틈이 없다! ”

우리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지문인식 & 터치패드 철통 보안시스템

지문스캐너와 터치패드가 결합된 디지털락은 사용자의 지문이나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더욱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또한, 강력한 내화성능 등 안전 필수 기능이 결합된 최첨단 디지털락을 경험해보세요.

- 사용자 비밀번호**
비밀번호 4자리~16자리까지 입력
- 지문 등록**
128개 까지 지문 등록
- 이중 잠금기능**
2개의 비밀번호 설정으로 강력한 보안
- 옛보기 방지기능**
비밀번호 알기/하수를 넣어 노출방지
- 경보기능**
45도 이상 기울거나 충격시 경보음
- 마비기능**
틀린번호 5회 입력시 마비
- 감춤기능**
비밀번호와 소리를 감추는 기능
- 저전압 알리기능**
전전지 전량을 감지하여 교체시기 알림

- 지문인식**
- 터치패드**
- 내화성능**

www.hd2.co.kr 검색 현대오피스 제품구매 및 상담 1566-3445 영업시간 평일 9:00~21:00 / 토요일, 공휴일 9:00~18:00

제품구매처 현대오피스 소핑몰 www.hd2.co.kr,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조달청 나라장터, 학교장터, 공무원연금제휴소핑몰, 씨제이올, 신세계몰, 1300K, NH마켓, nsmall, 이마트, SSG, 하이마트, 현대 Hmall, GS SHOP, 롯데닷컴, 롯데이몰, 네이버 스토어팜, 쿠팡, 티몬, 위메프, 예누리닷컴, 다나와

데스크칼럼

안성찬
골프대기자



박성현과 고진영, 그리고 外國人 캐디

대회에서 선수의 기량이나 스코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요인도 많겠지만, 캐디가 크게 한몫한다. 캐디는 클럽을 운반하고 조언하는 등 플레이어의 경기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프로 골퍼의 골프백을 메는 사람은 전문 캐디다. 이 때문에 캐디의 능력에 따라 선수의 성적이 크게 좌우되기도 한다. 프로캐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보다 하는 일이 매우 복잡하고 많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우리 선수들은 대부분 외국인 남자 캐디를 쓴다.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을까. 또한 선수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 특히, 팬들은 '두 사람의 언어가 다름데 어떻게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것이 가장 궁금할 터. 경기 중에 다칠 때면 다른 상황에서 선수와 캐디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확한 공략법을 찾아낼

까. 뛰어난 캐디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캐디는 '슈퍼스타' 박성현(25·KEB하나금융그룹)의 데이비드 존스(아일랜드)와 '무서운 루키' 고진영(23·하이트)의 딘 허든(호주)이다. 고진영과 국내 대회부터 호흡을 맞추고 있는 허든은 26년차 베테랑이다. 허든은 이전에 신지에(30·스리브드)의 캐디였다. 일본에서도 캐디 생활을 했던 허든은 타이거 우즈(43·미국)의 캐디였던 스티브 윌리엄스(미국)에게서 큰 도움을 받았다. 허든은 고진영의 LPGA투어 일정을 짜고, 여러 가지 질문에 보다 정확한 대답을 하기 위해 늘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어떤 경기를 플레이하는 게 좋을까요?", "내 게임에 맞는 골프 코스는 어디인가요?" 하고 고진영이 묻는다면 허든에게서 돌아오는 답은 무엇일까. 언어는 골프 코스에서 둘의 의사소통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다. 이 때문에 처음에는 한국 선수와 외국인 캐디가 잘 어울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에 이질적인 두 사람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의외로 간단하다. 골프 경기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보편적인 편이라는 것. 영어를 30% 또는 40% 정도만 이해해 해도 골프에서 쓰는 언어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다. 언어뿐 아니라 낮은 환경은 선수만큼이나 캐디도 곤란을 겪는 부분이다. 허든은 "문화 및 언어적인 차이와 대립해야 하는 외국 생활이 무척 힘들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캐디를 맡아서 할 선수들과 기본적인 여러 장벽을 없애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토로했다. 이는 존스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LPGA투어 톨렉스 오프의 선수상과 신인상, 상금왕을 수상한 박성현과 함께 최고 한 해를 보낸 존스도 한국으로 옮겨와 비슷한 상황에 부딪혔다. 박성현을 만나기 전에 전인지(24·KB금융그룹)의 캐디를 먼저 했다. 동료들은 존스가 한국에서 캐디를 하는 것에 대해 극구 만류했다. 한국

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캐디는 처음이었던 존스는 먼저 경험한 허든이 최고의 스승이었다. 존스는 허든에게서 선수를 대하는 방법부터 인친 공방, 골프장, 숙소까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든 것을 배웠다. 이는 박성현도 마찬가지다. LPGA투어는 극히 낯설었다. 가족과 친구들이 주는 그런 친숙함,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LPGA투어 선수들과의 경쟁은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었다. 이국땅에서 박성현은 존스와의 만남이 큰 행운이었다. 이미 KLPGA와 LPGA투어를 경험한 존스와 여러 가지 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경기에 대해 박성현과 존스는 자주 문자를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됐다. 이것이 잘 맞아떨어진 것일까. 박성현은 지난해 루키 시절에 낸시 로페즈(미국) 이후 39년 만에 3관왕의 대기록을 달성했고, '루키' 고진영은 1951년 베벌리 헨스(미국) 이후 67년 만에 데뷔전에서 우승하는 대기록을 수립했다. 캐디가 새삼 달리 보인다. golfahn58@

설경진의 루머속살
기업금융부 차장



경쟁(競爭)이 답이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고속성장을 이뤘다. 너무 빨리 달렸던 탓일까. 모든 것이 단기간에 급변하다 보니,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특히 우리 사회는 경쟁에 지쳐 버린 나머지 언제부터인가 '헬조선(지옥 같은 한국 사회)', '흙수저' 등의 자조 섞인 패배의식을 드러내는 말이 일상화됐다. 경쟁에 지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에 반대급부로 발 빠르게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들도 등장했다. 공정한 사회, 경쟁 없는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들은 경쟁에 밀려 좌절한 사람, 경쟁에 지친 사람들에게 "불공정한 경쟁 구조가 원인이고 일부 기득권층의 독식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한다. 얼핏 생각하면 그럴 듯한 논리 같지만, 경쟁이 없는 사회로 흐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경쟁은 기회를 뜻한다. 경쟁이 없는 사회는 기회도 없다. 다시 말해 기회가 열려 있지 않다면 경쟁도 이뤄지지 않는다. 영육의 한국 근현대사에서 보듯, 경쟁이 복리를 증진하고, 더 나아가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최근 주식시장에서 볼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치열한 경쟁이 그 사례다. 셀트리온은 2002년 단 2명이 창업한 회사다. 우리나라가 모든 것이 불공정하다면 두 명이 창업한 회사가 16년 만에 국내 최대 재벌 삼성그룹의 전폭적인 투자로 만들어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어떻게 1, 2위를 다투고 있겠는가. 두 회사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시가총액 37조 원대까지 성장했다. 1, 2위 기업의 시가총액이 37조 원대까지 치솟자 바이오 기업에 투자금이 물밀듯이 밀려들고 있다. 1조 원 이상

의 제약·바이오 기업도 급증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기업들 중 시총 1000억 원 이하 기업을 찾기 힘들 정도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바이오 기업 중 어려움을 겪는 상장사들이 많았다. 신약 개발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자금 조달이 어려워 매출로 내놓은 바이오 기업들도 많았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이후 셀트리온과의 본격적인 경쟁이 두 기업의 실적과 주가 상승뿐 아니라 다른 바이오주까지 주가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항암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많은 나라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치열한 경쟁이 다른 바이오 기업과 주주들에게 간접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삼성 같은 기업이 열 개 이상 있다면 삼성에 입사하고자 하는 취업준비생들의 경쟁은 지금처럼 치열하지 않을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가 아닌 나스닥 등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하려고 했다. 만일 해외 시장에 상장했다면 지금과 같은 셀트리온과의 치열한 경쟁, 또 이로 인한 낙수효과가 과연 우리 주식시장에 있었을지의 문제다. 향후 바이오 산업이 거품으로 끝날지, 미래 성장산업으로 안착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경쟁이 성장을 낳고 성장이 더 큰 파리로 되돌아와 그 혜택을 본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역대 최악의 실업난에 대외무역 여건 악화 등 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바이오 산업에서 보듯 경쟁을 통한 성장이 지금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다는 경제 원론적인 자세로 되돌아갈 때이다. skj78@

객석

노혜연 플루티스트



취미가 놀이가 될 수 있도록

나는 플루트를 연주하는 플루티스트이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플루트 선생님이다. 내가 플루트 레슨을 진행하는 학생들의 부모들은 항상 말한다. "우리 아이는 이걸로 전공할 거 아니에요." 아이의 취미로 악기를 선택했다고 한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아이의 취미는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 엄마나 아빠가 만들어 내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취미라는 것은 무엇일까. 특히 학생들에게 말이다. 그건 일종의 즐거움 놀이가 아닐까. 악기를 전공한 나도 취미 생활로 시작했다. 어렸을 적 방과 후 1인 악기를 시작으로 악기를 접한 나는 점차 플루트를 연주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플루티스트가 됐다. 내가 좋아서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내가 진행하는 수업 시간에 보면 즐겁게 시작하는 아이는 10명 중 1명이나 될까 모르겠다. 정말 손에 짚을 정도다. 이렇다 보니 즐거운 수업을 만들기 위해선 아이와 나 모두에게 많은 인내와 기다림

이 요구된다. 나는 아이들에게 악기를 연주하는 순간이 놀이와 같을 수 있도록 때로는 악보를 먹을 것으로 대신해 이론 수업의 집중력을 높이기도 한다. 그럴 때면 아이들은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즐거워한다. "취미가 뭐예요?"라고 물었을 때, "플루트 부는 게 제 취미예요"라는 대답이 나오도록 즐거운 수업 시간을 만들고 싶다. 이 시간이 또 다른 공부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드는 것이 내가 수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악기 연주에 더 즐거운 취미를 가질 수 있도록 나 역시 즐거운 선생님이 되고 싶다. 대학 시절 옹돈벌이로 시작한 레슨이었다. 하지만 끈기와 인내력을 요구하는 학생 수업을 하며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과 아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악기를 가르쳐 주고 그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스스로를 보게 돼 지금까지 오게 됐다. 음악과 플루트가 즐겁게 내게 다가왔듯이 또 다른 아이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선사하는 취미가 되기를 바라본다.

기자수첩

김정웅 정책사회부/cogito@



부적 바빠진 박원순 시장

요즘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접 볼 기회가 잦아졌다. 언론 설명회 빈도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작년까지 분기에 한번 정도 있던 박 시장의 언론 설명회는 올해 들어 4월 현재까지 8번으로 늘었다. 이런 현상은 이해할 수 있다. 선거에서의 승리는 정치인이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발표가 담은 내용의 질에 있다. 1월 31일 박 시장이 발표한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는 2014년에 나온 '2030 서울플랜'과 내용이 비슷한 게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다. 박 시장은 당시 "2030 서울플랜"에서 발표된 장기플랜이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내용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를 앞두고 지난 번 발표한 대형 계획을 세부적으로 다시 발표했다는 건데, 원래 '오랫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 법'이다. 3월 27일과 4월 3일에는 각각 세운상가의 '다시세운프로젝트 2단계' 발표와 '용산전자상가 Y-밸리 혁신플랫폼' 발표가

있었다. 활력을 잃어가는 낡은 상가를 재생한다는 당초 취지는 높이 살 만하지만, 두 사업의 내용이 상당히 비슷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급작스런 변혁이다. 이달 10일 박 시장은 세종대로의 차로로 절반으로 줄이고 남는 공간 등을 활용해 광화문광장을 3.7배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회로를 확보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안 그래도 교통체증 문제가 있는 세종대로를 절반으로 줄이는 정책에 대해 벌써 시민들로부터 교통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 서울 곳곳에서 재정비촉진사업 지구, 이른바 뉴타운들이 해제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 한 원인은 전후 사정의 고려보다 지지도를 우선으로 생각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의 뉴타운 지정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복구를 위해 정책이 뒤바뀌면 그 비용은 당연히 시민들이 같이 부담하게 된다. 35~36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의 평가는 이번 변곡점에 와 있는 듯하다.

이투데이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정우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박민수
논설실 (02)799-6701	정치경제부 (02)799-2663	정책사회부 (02)799-2612	
기업금융부 (02)799-2665	산업1부 (02)799-2648	산업2부 (02)799-2641	
자본시장부 (02)799-2664	국제경제부 (02)799-2643	온라인뉴스부 (02)799-6741	
사건팀 (02)799-2646	광고협수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 배달안내 (02)799-2684	
www.etoday.co.kr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신가요?

잠을 제대로 못 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면?
아침에 간신히 일어나지만 오전 내내 정신이 멍하다면?
이불 밖으로 나가는 게 싫어서 이불 속에서 계속 버티게 된다면?

1

깊은 잠을 부르는
15가지 방법

2

상쾌하게 일어나는
8가지 방법

3

수면 유형별로
기본 좋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

그렇다면 수면 전문가가 제안하는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비책에 귀 기울이세요!

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다

가저무라 나옴미 지음 / 조은아역 / 224쪽 / 13,800원 / 북이저트

가저무라 나옴미 지음 / 조은아역 / 224쪽 / 13,800원 / 북이저트

BOOK-AGIT 북-이저트

한 번 반하면 '불박이 고객' ... 삼성-LG '빌트인 家電' 도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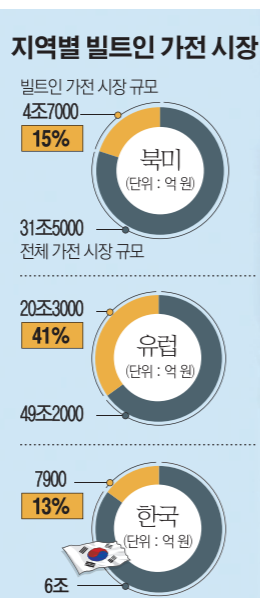
“정체된 가전시장 新수요 창출하라” 성장률 3배 ‘초프리미엄’ 시장 겨냥 삼성, 美 ‘데이코’ 인수 글로벌 진출 LG ‘시그니처 쇼룸 오픈’ 영토 확장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정체된 가전 시장의 새로운 수요처로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시장을 선택, 시장 공략에 팔을 걷어붙였다.

빌트인 가전은 공간의 크기나 인테리어 등에 맞춰 설치하는 맞춤형 가전제품으로, B2C(기업·소비자간 거래) 시장보다 사업 부침이 적고 경기 영향을 덜 받는다. 특히 초프리미엄 빌트인 시장은 일반 빌트인 시장보다 성장률이 3배가량 더 높은 편이다.

맥킨지 등에 따르면 북미 가전시장 규모는 280억 달러로 빌트인 비중은 15%(약 42억 달러)가량이다. 유럽 가전시장 규모는 438억 달러로 빌트인 비중이 41%(약 181억 달러)에 달한다. 국내 빌트인 시장 규모는 연간 약 7900억 원 규모다. 과거 아파트 건설사나 인테리어 회사, 부엌용 가구 회사 등 B2B 물량이 많았지만, 최근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주방을 연출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B2C 수요도 늘고 있는 추세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빌트인 가전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 삼성전자는 현지 브랜드 인수를 통해, LG는 자체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내외 북미 프리미엄 빌트인 시장 공략에 나섰다.



LG전자 모델들이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전시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삼성전자는 2016년 인수한 초프리미엄 빌트인 브랜드 데이코를 이달 국내에 도입한다. 먼저 이달 말 독일 주방 가구 회사 지메텍이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서울 양재동 전시관에서 데이코 제품을 함께 전시하고, 4분기에는 데이코의 단독 전시관을 열 예정이다.

데이코는 2016년 삼성전자가 인수한 미국 럭셔리 주방 가전 브랜드다. 삼성전자는 주택,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전 사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고급

생활가전 라인업과 전문 유통망을 보유한 데이코를 인수했다. 데이코는 스탠리 조셉이 1965년 설립한 럭셔리 가전 제조업체로,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오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주택, 부동산 관련 빌트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김현석 삼성전자 CE(소비자가전)부문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식구들이 모여 있을 때 약 60%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주방 부근”이라며 “집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가장 신경 쓰는 곳이 주방이

고, 리모델링 과정에서도 빌트인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내 빌트인 가전 시장에서 섹트 컬렉션에 이어 최상위급인 데이코 라인업을 선보임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을 드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성숙기(정체기)를 맞은 생활가전 시장에서 재도약시킬 신성장동력이 필요한 삼성전자는 빌트인 가

전을 키워 신수요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아파트 문화가 자리 잡은 국내에서 건설사들과 협력해 빌트인 가전을 키워 나갈 예정이다.

또 글로벌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인 유럽 빌트인 시장도 적극 공략한다. 이달 17일부터 22일까지 밀라노에서 열리는 가구박람회(사비코)에서 데이코 라인업을 전시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국내 첫 초프리미엄 빌트인 전시관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쇼룸을 열었다. 이곳에는 LG전자 프리미엄 가전을 활용한 다양한 명품 주방 공간 패키지를 비롯, LG 디오스 빌트인 가전으로 꾸며진 일반 빌트인 패키지까지 다양하게 전시돼 있다.

LG전자는 후발주자로서 2020년까지 미국 빌트인 가전 시장에서 톱5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미국에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쇼룸을 선보일 계획이며,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를 볼 수 있는 공간 확대를 위해 매장을 대폭 늘려 나가고 있다. 또 해외 유명 전시회에서 LG시그니처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영토를 넓히고 있다.

LG전자의 프리미엄 전략은 실적에서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LG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35분기 만에 1조 원을 넘어서는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이 중 가전사업을 담당하는 H&A사업부의 영업이익이익은 두 자릿수로 추정된다.

오연민 기자 yerin2837@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힘들 때일수록

우뚝! 일어서야 합니다

최대 45%까지 채우감면

3억 원 이하의 다양한 투자 기회

가정경제는 물론 나라경제도 튼튼히 키워줍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뚝! 일어서야 합니다

힘든 생활속에서 쓰러질 때도 있지만 내일을 포기하지 않는 당신에게 대한민국 경제 키우미 캠코가 다시 일어날 힘이 되어드립니다

국민행복기금으로 어려운 서민에게 재기의 희망을! 캠코 온비드로 다양한 부동산 채테크 기회를! 국가토지관리 및 미납세금회수로 국고를 튼튼히!



예술의 도시 밀라노에서 사진계의 가장 구분장 작가의 작품을 삼성전자의 신개념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The Frame)'으로 만나는 이색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물'을 주제로 12일(현지시간) 개막해 약 한 달간 밀라노의 수족관인 아쿠아리오 시비코(Acquario Civico)에서 진행되는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삼성 '더 프레임'을 통해 구분장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예술 품은 '삼성' vs 말 통하는 'LG' 디자인 본고장 '밀라노'서 붙었다

유럽 3대 가구 박람회 이탈리아서 개최 삼성, 유명 작품 담아낸 '더 프레임 TV' LG전자, 이 나뭇잎과 IoT 제품 선보여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디자인 본고장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가전 제품 공략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사진계의 가장 구분장 작가의 작품을 신개념 라이프 스타일 TV '더 프레임(The Frame)'으로 만나는 전시회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12일(현지시간) 개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전시회는 물을 주제로 생명에 부여되는 물의 파동과 불변하는 정체성을 담았으며, 약 한 달간 밀라노의 수족관인 아쿠아리오 시비코에서 진행된다. 유럽 3대 가구 박람회 중 하나인 '밀라노 가구 박람회(Salone del MobileMilano)'가 17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는데, 이 기간에는 유명 작가들의 다양한 전시회가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구분장 작가는 한국 사진 예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더 프레임'은 TV가 꺼져 있을 때도 그림과 사진 등의 예술 작품을 보여주는 아트 모드와 프레임 디자인이 특징이다.

구분장 작가는 "더 프레임은 마치 액자를 보는 듯한 디자인으로 전시장과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작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 전시에 활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더 프레임'을 통해 국내에서 구분장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트 모드에서는 구분장 작가의 작품을 포함해 전 세계 유명 작가들의 작품 70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추종석 전무는 "더 프레임은 작년 출시 이후 디지털 아트 플랫폼으로서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 소비자

들이 '더 프레임'으로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여러 업계와 긴밀한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LG전자는 밀라노 디자인 워크에서 60년 역사를 지닌 이탈리아 명품 가구 브랜드 '나뭇잎'과 스마트홈을 선보인다. 이 공간은 나뭇잎 가구와 LG 시그니처 제품을 접목해 내세운다. 나뭇잎 전시관은 나뭇잎의 '폴로세오' 소파를 비롯해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LG 시그니처 가습공기정정기, LG 싱큐 스피커, 스마트 조명 등이 있는 사물인터넷(IoT) 거실로 꾸며져 있다.

예를 들어 방문객이 '나뭇잎' 소파에 앉아 LG 싱큐 스피커에 "TV 보고 싶어"라고 말하면, LG 시그니처 올레드 TV가 자동으로 켜지고 소파의 등받이가 뒤로 눕혀지고 조명의 밝기가 낮아지는 등 주변 환경이 TV 시청에 최적화된다. 사용자가 LG 싱큐 스피커에 "낮잠 자고 싶어"라고 말하면, 소파와 조명이 스스로 취침 모드로 바뀌고 LG 시그니처 가습공기정정기가 켜진다. 향후 LG전자와 나뭇잎은 양사의 가전-가구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IoT 스마트홈 기술 발굴, 공동 마케팅 등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파스팔레 주니어 나뭇잎 최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는 "거실에 놓인 다른 가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신개념 소파를 개발하고자 했다"며 "침실부터 거실까지 모든 생활공간에 가구를 활용한 IoT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LG전자는 탁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LG전자 이탈리아 그리스 법인장 김성수 상무는 "가전과 가구는 실생활에서 항상 함께하는 파트너"라며 "가전과 가구를 대표하는 양사간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진정한 고객 가치를 느끼는 스마트홈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송영록 기자 syr@

'부의 상징' 수입차, 특급 할인에 '대중차'로 뽐뽐

독일차 할인 경쟁 가속페달

독일 자동차 브랜드가 대규모 할인 정책을 펼치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수입차 업계 1위인 메르세데스-벤츠의 경우 할인 정책에 힘입어 2월과 3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내수 4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BMW도 2월 벤츠의 뒤를 이어 내수 '톱5'에 오르는 등 독일 브랜드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여기에 아우디-폭스바겐도 판매 재개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며 할인 전쟁의 참전을 선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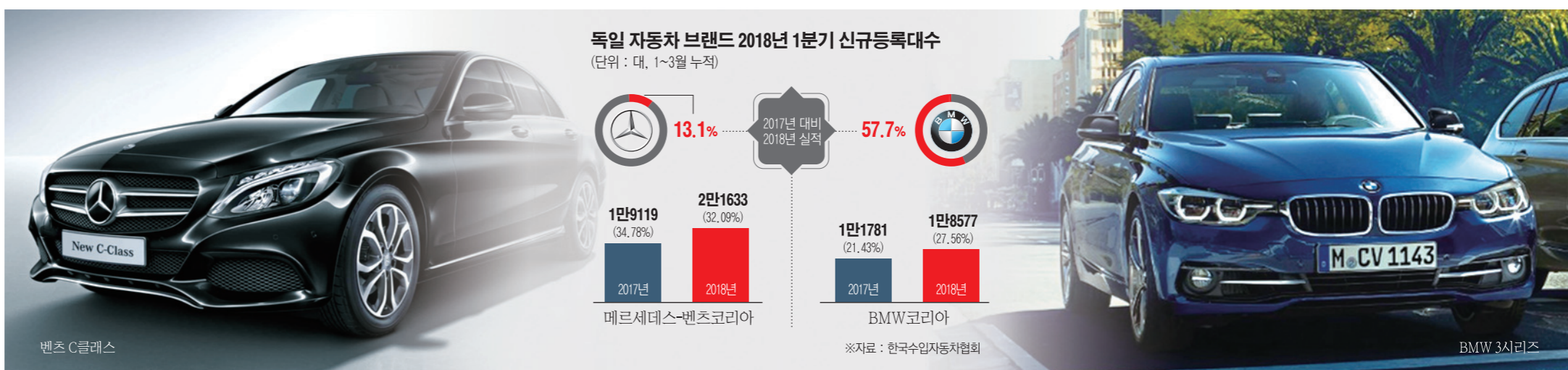
16일 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수입차 누적 신규등록 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6% 늘어난 6만7405대다. 특히, 독일차들이 이 같은 성장세를 견인했다.

벤츠는 2, 3월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보다 내수 판매 기록이 앞설 정도로 성장세가 가파르다. 벤츠는 올해 1분기에만 전년 대비 13.1% 증가한 2만1633대를 팔았다. 프리미엄 수입 자동차 브랜드가 대중(大衆)차를 주로 판매하는 국내 브랜드의 판매량을 넘어서는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받는다.

독일차의 약진은 르노삼성의 신차 부재, 한국지엠의 경영 불확실성 확대 등도 영향을 끼쳤지만, 대대적인 할인 정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입차 시장의 점유율 가운데 절반을 나눠 갖고 있는 벤츠와 BMW는 1000만 원대의 파격 할인 공세를 벌이고 있다. 벤츠의 경우 최대 1800만 원가량의 할인으로 소비자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지난 달 수입 베스트셀링카에 오른 'E200'의 경우 최대 1800만 원이나 할인됐다. 6000만 원대의 E클래스를 4000만 원대에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할인 정책으로 E200은 올해 3월까지 누적 판매 대수(4212대)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C클래스의 할인 폭도 만만치 않다. 중고차 반납 시 500만 원 추가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C클래스는 2월부터 중고차를 반납하면 최대 900만 원



메르세데스-벤츠

6000만 원대 'E200' 최대 1800만 원 싸게 3월까지 4212대 판매... 베스트셀링카 등극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BMW코리아도 벤츠의 할인 정책에 맞불을 놓고 있다. BMW코리아는 2월부터 3시리즈와 3시리즈 GT 모델을 최고 1700만 원 싸게 팔고 있다. 벤츠와 마찬가지로 중고차 반납 시 500만 원 추가 할인 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기본 할인은 1200만 원 인 셈이다. 5시리즈도 1000만 원 가까운 할인을 제공하고 있어 벤츠와의 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벤츠와 BMW가 대규모 할인을 벌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 아우디-폭스바겐 판매 재개를 꼽고 있다. 디젤게이트 이전 국내 수입차 시장의 정상화 차지했던 폭스바겐이 등장하기 전 막바지 할인 공세를 펼쳐 점유율 굳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아우디-폭스바겐이 판매를 재개하면 벤츠와 BMW가 양분했던 국내 시장 수요를 가져가면서 수입 브랜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없게 될 수 있어서다.

BMW

'3시리즈' 1200만 원·'5시리즈' 1000만 원 중고차 반납하면 500만 원 더 할인 받아

디젤게이트의 악몽에서 2년 만에 깨어난 아우디-폭스바겐도 독일차 '할인 전쟁'에 참전했다. 할인을 통해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 국내 자동차 시장에 안착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폭스바겐은 이번 달부터 중형세단인 파사트 GT의 전 트림에 대해 기본 10%로 할인을 제공한다. 중고차 매입 시 400만 원을 추가 할인해준다. 더불

아우디-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 2년 만에 부활 시동 기본 10%에 혜택 더 해 1000만 원 ↓

어 각종 할인 혜택을 더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폭스바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100만 원 바우처도 제공하고 있다. 아우디 자사의 금융 프로그램인 아우디파이낸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최대 1300만 원을 깎아준다.

아우디-폭스바겐의 '컴백'으로 독일차의 할인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대규모 할인이 수입차 전체로

번질지 주목된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지금이 적기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독일 브랜드의 이 같은 할인 경쟁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수입차들의 할인 정책이 인색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수입차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입 자동차 브랜드는 대규모 할인 정책으로 1분기에만 총 6만7405대가 팔렸다. 업계에서는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수입차 연간 판매량이 처음으로 25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타보니 폭스바겐 '파사트 GT 2.0 TDI'



안정성·안락함 더한 패밀리 세단

최고출력 190마력·6단 DSG 변속기 디젤 특유 엔진음, 액셀 밟으면 줄어 부드러운 코너링 전체적 승차감 좋아

폭스바겐코리아가 아꼴던 과거를 딛고 기지를 켜고 있다. 2년 만에 내놓은 북극작은 '파사트 GT 2.0 TDI'다. 파사트는 폭스바겐을 대표하는 모델로 어느 정도 상품성이 보장된 차다. 좋은 평가를 받는 만큼 기대가 컸다. 수입차 시장에서 가장 박 터지는 중형 세단 라인에서 존재감을 나타낼지 주목된다.

최근 파사트 GT를 끌고 서울에서 인천까지 도심과 고속도로를 누볐다. 저속부터 고속까지 달리면서 딱히 단점을 찾을 수 없는 '무난한 세단'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최고출력 190마력, 최대토크 40.8kg·m의 성능을 발휘하는 2.0 TDI 디젤 엔진과 6단 DSG 변속기를 탑재한 파사트 GT는 우렁쳤다. 시동을 걸자 디젤 엔진 특유의 엔진음이 차 전체에 울렸다. 액셀을 밟고 앞으로 나아가니 소음은 점차 줄어들었다. 가속력과 고속 직진 안정성도 나쁘지 않은 편이다. 연비는 공인 연비는 복합 기준 15.1km/l, 도심 13.7km/l, 고속도로 17.2km/l이다. 실제 연비가 더 잘 나온다. l당 14~15km 수준이다. 스티어링 휠

은 다소 가볍지만 고속에서는 묵직해진다. 코너도 부드럽게 돈다. 주행 중 불안함은 없었다. 전체적으로 안락한 승차감을 안겨주는 차다.

차는 주행성능이 가장 중요하지만 디자인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개인적으로 파사트 GT의 디자인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일단 깔끔한 외관을 자랑한다. 대중적인 모델답게 무난하면서도 날렵함이 느껴지는 훌륭한 디자인이다. 특히 수평으로 다듬은 전면 LED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은 차체를 더 넓고 낮아 보이게 만든다. 실내는 꽤 넉넉하고, 고급스러운 모습이다. 특히 수평 라인 대시보드와 눈에 띈다. 그 가운데 있는 아날로그 시계가 멋스러움을 더한다. 편의성도 우수하다. 586 l의 트렁크 적재량은 2열 시트 폴딩 시 1152 l로 증가해 여유로운 수납이 가능하다. 아울러 스티어링 프로파일 셀렉션 △전방추돌경고 프론트 어시스트 △긴급 제동 시스템 △보행자 모니터링 시스템 △트래픽 잼 어시스트 등 다양한 첨단 사양이 무난함에 편안함을 더한다. 전체적으로 날렵하고 편안해 패밀리 세단으로 손색이 없다. 파사트 GT를 어떤 모델과 비교할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겠지만, 동급에서 무난한 세단을 찾고 있다면 큰 고민없이 선택해도 될 만하다고 본다.

이광호 기자 khlee@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7-04981호(2017.11.29~2018.11.14)

KYOBŌ 교보증권

현명한 소비습관 슈퍼그레이트 WIN.K

교보증권 WIN.K 체크카드

교육비 할인 서비스

국내 전 학원업종 10% 청구 할인
교보증권, 핫팩스, 영풍문고, 반디엔터테인먼트 및 어학시험 응시료 10% 청구할인

부가 상품 서비스

스타벅스, 커피빈, 투썸플레이스 등 CU, GS25, 세븐일레븐 등 10% 청구할인
SKT, KT, LG+ 이동통신요금 10% 할인

주유 할인 서비스

SK주유소,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리터당 100원 할인

CMA 금융서비스혜택

RP에 자동투자해서 수익 제공
주식거래까지 One Stop 서비스

연회비 없이 누리는 신용카드급 혜택

(전월 실적 기준 총축 시, 월 최대 4만 3천원 캐시백)

위 혜택이 실화인지 지금 바로 신청해보기

- 1 Win.K 설치 후 비대면계좌개설 시작
- 2 본인인증 Win.K 체크카드 선택
- 3 주소 등 정보입력
- 4 신분증 촬영
- 5 계좌인증
- 6 신청완료 카드배송시작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비대면을 통한 당사 최초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MTS 매매 시 0.014%의 주식매매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체크카드 관련 상세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소비자지원센터(1544-09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멀리, 더 높이”... LCC ‘상장 날개’ 달고 제2도약

저비용항공사 IPO바람 왜?

국내 LCC(저비용항공사) 항공사들이 잇따라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며 제2 도약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미 상장을 마친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이어 티웨이항공과 에어부산이 연내 상장을 목표로 상장 준비에 나섰으며 이스타항공도 내년 하반기 유가증권시장 입성을 계획하고 있다.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이면 에어서울 한 곳을 제외하고는 LCC 5곳 모두 증시에 상장하게 된다.

상장을 준비 중인 LCC들은 이번 상장을 통해 자금을 확보,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티웨이항공-에어부산, 연내 상장 목표 = 16일 항공업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과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이 상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먼저 나선 곳은 티웨이항공이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6월 IPO 추진 계획을 처음 밝힌 후, 10월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을 공동 대표주관사로 선정했다. 현재 티웨이항공은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다.

앞서 두 차례 상장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는 에어부산은 올해 세 번째 도전에 나섰다. 에어부산은 6일 열린 이사회에서 기업공개 주관사 선정에 관한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에어부산은 지난달 2일 주주총회에서 기업공개 관련 의의를 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주주사를 대상으로 기업공개 설명회를 열었다.

에어부산은 올해 안에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달 안에 주관사 선정에 마무리하고 곧바로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통상 1~2년이 걸리는 상장 기간을 고려하면 다소 촉박한 상황이지만 에어부산은 일단 연내 상장을 목표로 상장 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이어 티웨이항공과 에어부산이 연내 상장을 목표로 상장 준비에 나섰으며, 이스타항공도 내년 하반기 유가증권시장 입성을 계획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항공(왼쪽 사진)과 진에어의 유가증권시장 신규 상장 기념식 모습.



제주항공·진에어 이어 티웨이항공·에어부산, 연내 상장 추진 이스타항공도 내년 7월 목표로... 에어서울은 아직 계획 없음 중대형기 도입 자금 활용... ‘중장거리 노선 개발’ 경쟁력 확보

에어부산 관계자는 “최근 LCC들이 성공적으로 상장하면서 상장 시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었던 부산 지역 주주들의 생각도 바뀌었다”면서 “상장을 통해 회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 확보에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30일 주주총회에서 내년 7월을 목표로 IPO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측은 “증시 상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재무구조도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내년쯤 상장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말 미래에셋대우와 KB증권 공동 주관사로 선정한 바 있다.

◇상장 통해 대규모 자금 확보 가능... “신성장 사업기반 구축” = LCC들의 기업공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회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내 LCC들은 LCC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LCC들은 앞다투어 중대형기 도입을 통한 중장거리 노선 개발에 나서고 있다. 대규모 자금을 빠르게 확보해 선

저비용항공사 상장 관련 진행 상황

제주항공	2015년 11월 유가증권시장 상장
진에어	2017년 12월 유가증권시장 상장
티웨이항공	올해 유가증권시장 상장 목표로 상장예비심사 청구
에어부산	상장 주관사 선정 중
이스타항공	내년 유가증권시장 상장 목표로 주관사 선정 완료
에어서울	아직 계획 없음

그동안 대부분 운용리스를 이용해 항공기를 운영하는 LCC는 항공기 운용리스를 부채가 아닌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행될 리스회계 기준 K-IFRS 1116호에서는 운용리스 이용자도 리스 관련 자산·부채를 계상해야 한다. 운용리스와 운용리스의 회계처리방식이 같아지는데, 이 경우 운용리스 이용 규모가 큰 LCC의 부채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비율 등이 증가하면 상장 기업가치(밸류에이션)가 저평가될 수 있어 IFRS 16이 도입되기 전 상장 작업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잇따라 상장에 성공하면서 LCC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좋은 상황”이라면서 “여기에 회계 이슈까지 감안하며 지금이 상장을 위한 적기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제적 기재 도입이 시급한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리스 회계기준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리스 회계기준이 K-IFRS 1017호에서 K-IFRS 1116호로 변경된다.

증시 입성한 LCC 성적은

제주항공, 실적 고공행진... ‘2인자’ 진에어 맹추격

제주항공 지난해 영업익 73% 경증... 매출도 33% 늘어
진에어도 모기업 대한항공 지원·중대형기 도입 ‘성장세’

LCC(저비용항공사) 1, 2위를 다투는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증시에도 차례로 입성하며 경쟁을 펼치고 있다. 제주항공이 선두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진에어가 맹추격에 나서고 있다.

16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시가총액은 1조2137억 원(12일 종가 기준)으로 진에어 9345억 원보다 크게 앞서고 있다.

주기본만 아니라 실적 면에서도 제주항공은 진에어를 넘어선 상태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영업익 1013억 원, 매출액 9963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과 비교해 73.45%, 매출액은 33.27% 늘었다. 같은 기간 순이익도 778억 원으로, 전년보다 46.86% 증가했다.

진에어는 지난해 영업익 969억 원, 매출액 8884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83.37%, 매출액은 23.44% 증가했다.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보다 88.35% 증가한 741억 원이다.

제주항공보다 3년 늦게 시장에 뛰어든 만큼 아직은 제주항공이 앞서는 모양새다. 그러나 모기

업인 대한항공의 지원과 여객 수요 증가로 인해 진에어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다. 특히 LCC 중 유일하게 중대형(B777-200ER) 항공기를 운영하며 타사와 차별화했다.

이에 진에어와 제주항공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진에어의 추적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 두 업체 간 매출액은 약 10%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5%도 채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이들은 전략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제주항공이 LCC 본연의 단·중거리 노선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진에어는 LCC 중 유일하게 대형기인 ‘B777-200ER’를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을 살려 중장거리 노선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석주 제주항공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LCC 모델에 충실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며 “원가경쟁력을 지키는 기반 전략을 유지하고, 높은 고객 충성도를 끌어낼 수 있는 네트워크(노선) 전략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진에어는 “올해 하반기 대형 항공기인 보잉777-200ER 항공기 2대를 들여와 장거리 노선 운영을 통해 매출 1위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거리 노선 대부분이 다른 LCC 업체와 상당 부분 겹쳐 경쟁이 불가피하다”면서 “평가리 부다페스트,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등에 독자적인 장거리 노선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POWERED BY HERITAGE

RICORDO COLLECTION - SKELETON AUTOMATIC MOVEMENT - SCREW CASE BACK AND CROWN

MASERATI

www.timedaily.co.kr
Almanac 070-7840-1715

“가상현실 속 아바타, 진짜 친구될 수 있어요”

벤처 돌직구

손 우 램 리얼리티리플렉션 대표

4차산업혁명 시대 영화에서나 등장하던 가상 현실(VR)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다. 인공지능(AI) 기기와의 대화도 일상이 됐다. 그런데 VR과 AI가 결합된다면 어떨까. 진짜 사람과 대화하는 느낌을 더 받을 수 있을 터이다.

손우람 리얼리티리플렉션 대표는 디지털 스캐닝 기술을 기반으로 VR 세계에 인간을 가장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아바타(디지털 휴먼)를 개발한다. 실제 사람을 촬영해 그 표정과 동작을 아바타에 자연스럽게 입혀내 AI 스피커나 스마트폰, 다양한 장르의 VR 게임에 활용한다. 손 대표는 90년대 한국 최고 해커로 이름을 날리다 벤처업계의 '미다스의 손'이 된 노정석 씨와 손잡고 2015년 리얼리티리플렉션을 창업한 지 3년여 만에 국내 대표 VR 게임 콘텐츠 스타트업으로 부상했다. 그는 실시간 AI아바타가 미래 인류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다는 신념에 차 있다.

- 올해 MWC에 전시했는데 반응이 좋습니까.
“SK텔레콤이 협업했던 대전창조경제센터에 2016년 입주하며 지원을 받았던 인연을 계기로 SK텔레콤과 AI아바타를 공동 개발해 올해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 나갔는데 기대 이상의 인기를 모았다. 걸그룹 레드벨벳의 멤버 ‘웬디’를 회사 내 160대의 DSLR 카메라와 데프스(Depth) 카메라가 설치된 아시아 최대의 3D 스캐닝 스튜디오 설비에서 50가지 정도의 표정을 스캔해 모공과 홍채까지 똑같이 구현해냈다. 목소리로 명령하고 간단한 대답을 얻는 기존 AI 스피커와 달리 유리상자 속 웬디와 흡사한 홀로그램 아바타와 대화하는 모습이 신기했던 모양이다. 당시 현장에서 국내외 통신·전자회사들이 협업을 제의하기도 했다.”

- 가상현실 속 캐릭터는 어디에 적용하고 있나.
“가장 먼저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게임이라고 생각했다. 현재 사용자의 표정을 그대로 읽고 따라하는 이모지 기반 영상 채팅앱 ‘브이모지’, VR 리듬 게임 ‘뮤직 인사이트’, 미래형 VR 스포츠 게임 ‘스피드볼 아레나’, AAA급 VR 포커게임 ‘갱스타 언더그라운드: 포커’ 등을 서비스 중이다. 그다음 단계가 현재 제작 중인 ‘실사형 AI아바타’다. 실사형 아바타는 스피커를 비롯해 AI가 적용되는 모든 제품에 들어갈 수 있다. 핸드폰에서 홀로그램 친구와 대화하다가 집에 가면 TV에서도 나오는 식이다. 평생시만



손우람 리얼리티리플렉션 대표가 서울 성동구 VR 스튜디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SKT와 공동개발 'AI 아바타' MWC 전시... 국내외 협업 제의 빗발 국내 게임사 첫 ICO 진행·블록체인 기술 접목 게임 '모스랜드' 선보

대학 등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 인재 없어 해외서 개발자 섭외 고충도 제안서 제출~개발까지 2년 이상 걸리는 정부 지원사업 유연성 떨어져

나기 힘든 이상형도 가상으로 만날 수 있다. 아바타 캐릭터의 서비스화도 구상 중이다.

영화와 애니메이션 업계에선 이미 실사캐릭터가 사람인지 컴퓨터그래픽(CG)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발전했지만 상황에 따라 캐릭터가 반응하고 리얼타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게임 캐릭터는 없었다. 우리는 얼굴 표정 캡처, 모델링 등 전 과정을 하나로 이어낼 수 있는 독보적 기술력을 갖겠다고 자신한다.”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임을 개발해 화제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증강현실(AR) 게임 ‘모스랜드’를 선보였다. 게임을 블록체인 기술과 함께 녹인 사례로 우리나라 게임사 최초로 가상화폐공개(ICO)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블록체인은 게임 산업의 가치를 높이고 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는 키워드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게임시장은 이미 성숙했고 유통망도 기존업체들이 꽉 잡고 있다. 게임을 잘 만든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퍼블리싱(유통) 업체를 얼마나 잘 만나느냐가 관건이 돼 버렸다. 온라인 아이템 등을 사고파는 가상경제 시스템이 구

축된 게임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경우 거래 투명화가 실현돼 아이템 확률과 조작도 막을 수 있고 유통비도 줄어든다. 이렇게 아바타 비용으로 개발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 기술력이 많이 중요해 보인다. 인재를 끌어모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컴퓨터공학과 졸업하고 석사 때는 CT영상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연구했다. 이후 삼성전자에 입사해서는 이미지(카메라) 사업부 내부에서 엔지니어로 3D 연구를 많이 했다. 이미지 프로세서는, 영상 최종 결과물이 잘 나오게 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했지만 결국 제품은 안 나오고 사업을 접었다. 아쉬움이 컸다. 디지털 스캐닝 기술을 활용한 성형 기술 전후 비교 프로그램을 만들어 한 박람회에선 나갔는데 거기서 노정석 CSO를 만났다. 평소 존경하던 프로그래머였고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였다.

하지만 이후에는 인재를 찾는 것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 국내 대학교나 정부출연 연구소에는 이미지 프로세싱과 관련해 원하는 기술을 개발한 곳이 없었다. 직접 미국이나 영국 등 해

외로 나가 개발자를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 작년 초에는 유럽 투어까지 다닐 정도였다.”

-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나.

“소규모 개발자들은 개발자금 마련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스타트업, 특히 게임업계의 기술 트렌드와 시장 상황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정부 과제는 제안서 제출부터 개발 완료까지 2년 이상 걸려 유연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스타트업의 주기가 너무 안 맞다는 얘기다. 아직 VR 게임 시장이 블루오션인 점은 다행이다. 아직 매출 시장에 출시되는 VR 게임은 30개 정도 수준이다. 모바일 게임이 하루에 100개 이상씩 쏟아지는 것에 비하면 기회가 많은 셈이다. 실시간 기술을 발전시켜 PC 게임 분야를 집중 공략하는 것이 목표다.”

-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한마디.

“돈도 있는 만큼 다 쓰게 되지만 정신적으로도 힘든 것이 가장 문제였다. 다행히 좋은 파트너, 가족같이 믿을 수 있는 팀이 옆에 있어 견딜 수 있었다. 결국 ‘사람’이 핵심이다. 공동 창업은 결혼과 다를 게 없다. 결혼해 가족을 꾸릴 때와 같은 애정과 책임감이 밑바탕이 된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아이템이 아니라 팀워크를 보고 투자한다. 스타트업을 꾸리다 보면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기 마련이고 비전까지 사라졌다 생각될 땐 극도의 절망감을 느낀다. 그때 많은 이들이 포기하고 업계를 떠나기 마련인데 ‘사람’은 충분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전민정 기자 puri21@

기자가 써보니

삼천리자전거 ‘팬텀 제로’

전기가 밀어주니 오르막길도 ‘가뿐’

“전기 자전거를 왜 타지?” 팬텀 제로를 처음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이다. 이미 로드용 자전거를 2년째 타고 있던 기자에게 전기 자전거는 염두도 내지 않았던 신문물이었다. 흥선대원군이 서양의 신문을 들을 때처럼 묘한 반감도 있었다.

자전거의 엔진은 허벅지다. 하체를 단련해 주는 운동에 안성맞춤인 운동기구가 바로 자전거. 모터로 달리는 전기자전거는 아슬 배반처럼 느껴졌다. 이런 저런 선입견을 안고 팬텀 제로를 직접 탔다. 코스는 서울 쌍문동부터 성수동에 위치한 서울숲까지 왕복 36km. 자전거 도로와 중간 중간 일만도로 주행 코스를 섞었다.

스위치를 터치한 뒤 단계를 올리면 오토바이처럼 나갈 줄 알았던 팬텀.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정적이 흘렀다. ‘고장인가?’ 의문도 잠시. 페달을 살포시 굴러보니 내가 쓴 근력에 비해 더 큰 힘으로 나아갔다. 기존 자전거로 따지자면 맨 처음 발을 구를 때 들이는 큰 힘이 절반 정도 됐을까? 생각보다 큰 힘으로 자전거가 앞으로 돌진했다.

타기 전 운동량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걱정은 기우였다. 아니, 차라리 전기자전거에 대한 우매함이었다. 팬텀 제로는 페달을 돌려야 비로소 모터가 작동한다. 파워 어시스트 시스템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내 운동량이 있어야 전기자전거를 작동시키면서 주행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한다.

파워 어시스트 모드는 0~5단계로 구성된다. 0단계는 일반 자전거 모드로 모터가 작동하지 않는다. 1단계부터 모터가 작동하고 2단계, 3단계로 높일수록 모터가 내는 에너지가 강해진다. 예컨대 1단계에서 시속 15km까지 지원해준다면 5단계에 선 시속 25km까지 속력을 내게 도와준다. 힘을 덜 주고 빠르게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단계를 위로 높이면 된다. 포장이 잘된 자전거 도로에서 1단계에 고정된 뒤 평소보다 여유 있게 달렸다.



파워 어시스트 시스템 0~5단계 구성 사용자가 페달 밟으면 보조동력 작동 3시간 충전하면 70km까지 주행 가능

파워 어시스트 시스템이 전기를 발휘한 건 오르막길에서였다. 경사가 가파를수록 많은 운동량이 필요하다. 다리 근력이 부족하면 오르막길은 난공불락의 길이다. 장시간 주행으로 체력이 떨어진 경우는 더욱 그렇다. 팬텀 제로는 이런 부담을 해소해주기에 충분했다. 경사 구간에서 3~4단계로 파워 어시스트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힘 들이지 않고 여유로운 주행이 가능해 체력 손실이 없었다.

경사가 곳곳에 있고, 비교적 평탄하지 않은 일반 길을 주행할 때 파워 어시스트 시스템의 도움을 받았다. 왕복 36km를 다녀왔는데도 다리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았다. 3시간 충전하면 70km(1단계 구동 기준)까지 주행 가능해 출퇴근용으로 손색이 없다.

성능을 시험하고 나니 수려한 디자인이 눈에 들어왔다. 20인치 바퀴를 적용한 콤팩트하고 휴대성 좋은 미니벨로 타입으로 무광 블랙 색상을 입혀 고급스러움과 유니크함을 동시에 잡았다. 프레임은 다운튜브를 없애고 앞바퀴부터 배터리 장착부까지 하나의 라인으로 디자인해 깔끔하다. 안장 밑에 부착된 배터리는 후미등과 함께 배터리 잔량 표기 기능을 겸해 편리하게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전조등도 프레임 내에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어 LCD 패널로 켜고 끌 수 있다. LCD 패널은 주행 가능 거리와 주행시간, 속도 등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USB포트를 추가해 주행 중 핸드폰 충전도 가능하게 했다.

무게는 17kg으로 일반 자전거보다는 무겁지만, 모터가 달린 다른 전기 자전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가격은 98만 원이다.

김범근 기자 nova@

중소 인사이트

음악 유통업계, 저작권료 인상 후폭풍 맞나

스트리밍 사용료도 줄인상... 저렴한 해외업체로 고객 이탈 불보듯

음원 수익 배분율 '60→73%' 확대 편 상품 가격 최대 35% 인상 불가피 카카오엔 '멜론' 사실상 음원 장악 중소업체 점유율 줄어 줄도산 위기

정부가 음악 저작권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멜론 등 음악 유통업체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 배분율을 조정해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을 높이겠다는 의도인데 창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 업체들은 가격 인상은 물론 사업성 악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까지 음악저작권협회, 음반산업협회, 실연자협회 등 신탁단체들이 제출한 음원 스트리밍(실시간 음악감상) 다운로드 묶음 상품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한 외부 의견 수렴을 마무리한다. 문화부는 수렴한 의견을 검토한 후 내달 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출범 100일 기념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도종환 문화부 장관은 “음악인들의 생계 유지와 창작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음원



수익 구조의 불공정함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창작자들이 받는 스트리밍 저작권료 배분율을 얼마나 확대하느냐다. 신탁단체 4곳이 요구한 내용을 종합하면 스트리밍 사용료 배분율을 기존 60%에서 73%까지 확대한다. 멜론, 지니뮤직, 벅스가 음원 사업으로 번 매출의 73%를 이들 단체에 배분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연스럽게 음악 스트리밍 업체들의 수익

는 40%에서 27%로 감소한다.

현재 음원 스트리밍은 월 사용료 7900원이다. 이 가운데 60%(4740원)가 음원 제작회사와 가수·작사·작곡가 몫이다. 스트리밍 업체엔 40%(3160원)가 돌아간다. 하지만 가격 할인과 프로모션 비용(2000원)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료는 5900원 정도다. 여기서 저작권료(4740원)와 결제 수수료(470원)를 제외하면 스트리밍 업체의 수익은 690원이다. 이 돈으로 인건비와 시스템 운영비를 감당하고 이익을 내야 하는 구조다.

음원 유통업체들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이익이 남지 않아 상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은 최근 문화부의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변경된 수익 배분율을 적용했을 때의 적정 음원 가격을 추산해 음원 스트리밍 가격을 25~35% 인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소한의 이익을 유지하려면 7900원의 스트리밍 사용료를 최소 1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1만1000원으로 올려도 부대 비용을 제외한 카카오엔의 수익은 690원에서 250원으로 줄어든다. 음원 유통 업체들은 또 1만 원 안팎인 ‘무제한 스트리밍+다운로드(기간제한)’ 상품이 최대 3만4000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격을 인상하게 될 경우 유료 음원 시장 위축은 피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음원 시장은 10~30대의 젊은 층이 주 이용자만큼 가격 인상에 민감하다. 익명을 요구한 음원 유통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음악 시장을 위축시켜 멜론이 음원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점유율이 더 줄어들어 줄도산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음악유통 시장에서 멜론을 제외한 업체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NHN벅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60억 원으로 2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업계 2위인 지니뮤직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24억 원에 그쳤다. 반면 카카오M의 멜론은 지난해 102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업체와 해외에 분사를 둔 업체 간 격차이다. 구글 유튜브(월정액 7900원)나 애플뮤직(7.99달러) 같은 해외 업체들은 문화부 징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규정 대신 미국 본사 방침을 따르고 있다. 국내 음원 스트리밍 가격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저렴한 해외 업체들을 이용하는 가입자가 늘 것으로 보인다.

김범근 기자 nova@

'신풍제약' 34.4%·'동아에스티' 19.3%↑ 바이오株 훈풍

지난주(9~13일)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25.49포인트(1.04%) 오른 2455.07로 마감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보아오포럼에서 무역전쟁에 대한 협상을 시사했고, 미국은 시리아 군사시설을 타격해 중동 리스크가 부각되는 등, 온탕과 냉탕을 오고가는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에도 우리 기업의 실적 개선세는 호재로 작용했다. 개인과 기관투자자가 983억 원, 720억 원어치를 각각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인 5762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베스트&워스트 4월 9~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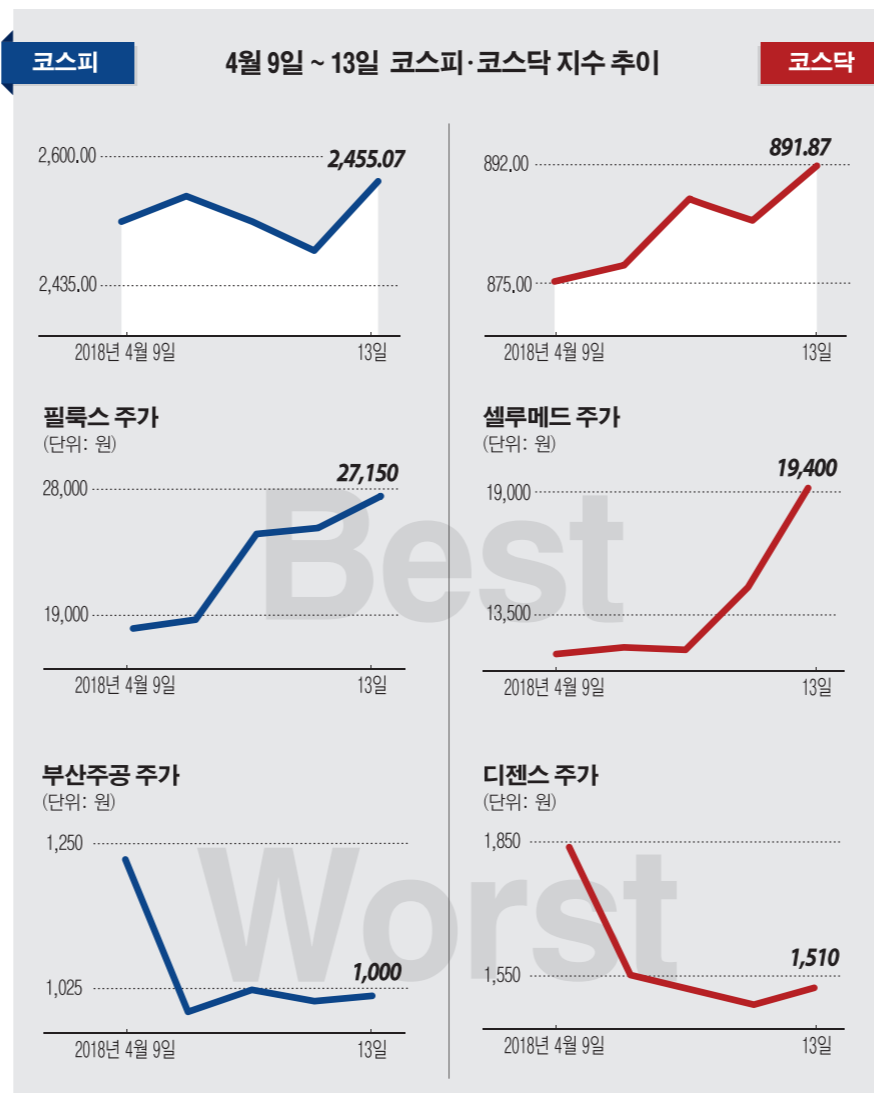
지난주 코스닥지수는 전주보다 23.91포인트(2.75%) 오른 891.87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가 89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코스닥벤처펀드 출시로 제약·바이오 업종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이 긍정적 영향을 줬다. 외국인 투자자가 830억 원, 개인이 665억 원어치를 각각 순매수하면서 수급이 확대됐다. 기관은 1053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필룩스, 바이오 기업 변신 중... 최고 경신 = 조맹업제 필룩스는 바이오 사업 추진 기대감에 지난주 55.14% 상승했다. 이 회사는 9일 서울 도곡동 소재 부동산을 218억 원에 매각하고, 해당 자금을 바이오 기업 인수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필룩스는 미국 바이오 기업인 바이얼진의 주주회사 티제이와 판타이프의 인수를 추진 중이다. 더불어 필룩스는 바이얼진의 모회사 코아젠투스의 최대주주 스타크 월드만 교수와 해리 아레나 코아젠투스 최고경영자(CEO)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면서 11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GS건설은 이달 6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매출액이 3조1073억 원, 영업이익은 380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작년보다 15.05% 늘었고 영업이익은 545% 증가했다.

이 밖에 엔케이이는 수소충전소에 사용되는 초고압 수소용기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18.14% 올랐다. YG PLUS는 콘텐츠 및 화장품 사업 성과가 관심을 모으며 18.01% 올랐다.

◇대규모 유증·인수 불발에... 관련주 '울상' = 지난주 코스피시장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던 종목은 부산주공으로 20.95% 떨어졌다. 부산주공의 급락은 대규모 유증자 공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사는 운영자금 111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현재 시가총액 286억 원



◇벤처펀드 출시하자... 제약·바이오 주 '쌍끌이' = 코스닥벤처펀드 출시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종목 수로 볼 때 제약·바이오 기업은 전체 펀드의 17%를 차지한다. 시가총액 비중은 이보다 더 높은 40%에 달해 펀드 론칭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시장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기업은 셀루메드로 75.5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셀루메드는 FDA로부터 골이식제 '라퓨젠(Rafugen DBM)'의 판매 승인을 받았다고 12일 공시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셀루메드의 주가는 이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프로스테믹스는 암 줄기세포를 억제

시장에서 높은 판매고를 올린 화장품 사업의 영향으로 한-중 관계 개선 수혜주로 거론됐다.

이 밖에 한동안 주춤했던 가상화폐 가격이 다소 오르면서 블록체인 보안 솔루션을 보유한 드림시큐리티의 주가가 지난주 39.52% 올랐다. 비트코인 행렬 경우,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유상증자부터 스톡옵션까지... '투심' 위축 = 지난주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한 기업은 디젠스로 19.47% 하락했다. 이 회사는 이달 10일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128억5000만 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디젠스의 주가는 공시 당일 15% 이상 하락

'필룩스' 바이오 新사업 기대에 55.14% ↑ 상승률 1위 1분기 호실적 'GS건설' 17.38% 오르며 52주 신고가 '부산주공' 운영자금 조달 대규모 유증 공시 -20.95%

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선 것, 12일 1만275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에이프로젠KIC도 면역항암제 개발 및 사업화 기대감으로 지난주 21.29% 급등했다. 이 회사는 항체치료제 개발 업체 다이나노로부터 면역항암 항체 4종류에 대한 독점 개발 및 사업화 권리를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실적 개선에 따른 주가 상승도 이어졌다. 동아에스티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0% 늘어난 89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에 지난주 19.34% 상승했다. 서근희 KB증권 연구원은 "기존 제품의 안정적 매출 및 도입 품목 시장 장악으로 전문의약품(ETC) 매출액 770억 원을 달성할 전망"이라면서 "수출사업 부 매출 353억 원, 의료기기사업부 매출은 21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모두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GS건설은 올해 1분기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기록한 데 힘입어 17.38% 급등,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다. 이 같은 소식에 10일에만 20% 급락하면서 주가가 1000원 밑으로 떨어졌다.

IHQ는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 중단 소식에 지난주 18.27% 급락했다. IHQ는 한국거래소의 조화공시 답변을 통해 "최대주주 달라이브가 그동안 검토해오던 당사 지분 매각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그간 IHQ의 잠재적 인수 후보로 KT, LG유플러스, 카카오, 월드디즈니 등이 거론되면서 주가도 상승했다. 다만, 최근 매각 협상에서 매수 희망자 측과 가격 차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엔지생명엔 신한지주의 인수절차로 자본 불확실성이 불거지며 10.98% 하락했다. 증권업계는 신한지주가 아이엔지생명 인수에 나설 경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판단했다. 비은행 강화, 수익원 다변화 등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신한지주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기존 주주에게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 상승 10종목

종목명	13일 시가총액	4월 6일	4월 13일	증감률
필룩스	1,048	17,500	27,150	55.14
신풍제약	625	8,780	11,800	34.40
에이프로젠 KIC	794	13,150	15,950	21.29
삼화콘덴서	532	42,450	51,200	20.61
동아에스티	1,068	106,000	126,500	19.34
엔케이	193	2,040	2,410	18.14
YG PLUS	149	2,165	2,555	18.01
GS건설	2,470	29,350	34,450	17.38
동부제철	296	10,250	11,850	15.61
진원생명과학	167	6,880	7,880	14.53

코스피 하락 10종목

종목명	13일 시가총액	4월 6일	4월 13일	증감률
부산주공	29	1,265	1,000	-20.95
IHQ	322	2,710	2,215	-18.27
아이엔지생명	3,190	43,700	38,900	-10.98
부국증권	247	26,100	23,850	-8.62
현대상선	1,478	5,180	4,740	-8.49
하이트리로	1,445	22,350	20,600	-7.83
유수홀딩스	181	7,510	6,960	-7.32
삼성증권	3,188	38,350	35,700	-6.91
다온비즈온	1,602	57,900	54,000	-6.74
카프로	359	9,610	8,970	-6.66

(시총:십억 원, 증:원, 주가동향률:%)

코스닥 상승 10종목

종목명	13일 시가총액	4월 6일	4월 13일	증감률
셀루메드	374	11,050	19,400	75.57
프로스테믹스	665	8,790	14,650	66.67
에프엔씨엔터	200	8,450	13,900	64.50
나이백	102	11,250	17,000	51.11
알테오젠	467	25,800	37,000	43.41
안트로젠	1,572	140,200	197,700	41.01
드림시큐리티	331	6,630	9,250	39.52
네이처셀	1,945	26,450	36,750	38.94
메디프론	258	6,320	8,780	38.92
CSA코스믹	263	9,590	13,300	38.69

코스닥 하락 10종목

종목명	13일 시가총액	4월 6일	4월 13일	증감률
디젠스	34	1,875	1,510	-19.47
더블유게임즈	1,005	66,900	57,100	-14.65
오스코텍	782	33,400	28,700	-14.07
중앙오션	118	6,070	5,260	-13.34
영신금융	35	3,120	2,755	-11.70
엑토즈소프트	197	19,650	17,400	-11.45
에이치엘비퍼워	79	1,625	1,440	-11.38
루미마이크로	54	1,590	1,415	-11.01
썬에이지	311	4,580	4,095	-10.59
인화정공	50	5,970	5,390	-9.72

* 자료:에프엔씨엔터

'셀루메드' 골이식제 美FDA 판매승인 75.57% 급등 벤처펀드 효과 안트로젠 41.01%·네이처셀 38.94%↑ '오스코텍' 外人·기관 차익실현 움직임에 14.07% 폭

하는 특정 마이크로 RNA를 확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 주간 66.67% 급등했다. 또 나이백은 콜라겐이 접목된 골 재생용 바이오 제품에 관한 유럽

통합규격인증(CE)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51.11% 상승했다. 알테오젠은 의약품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소식에 43.41% 올랐다.

이 외에도 안트로젠(41.01%), 네이처셀(38.94%), 메디프론(38.92%) 등 바이오 관련 기업이 동반 상승했다. 이 달미 SK증권 연구원은 "의약품 수출 성장이 3월부터 회복세로 전환됐다"면서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수출은 1분기 기준 저점으로 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드 규제 완화로 인한 엔터주의 상승세도 눈에 띈다. 에프엔씨엔터는 지난 한 주간 64.5% 올랐다. JTBC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 출연 중인 소속배우 정해인이 중국에서 인기 급상승했다는 소식이 매수세가 몰렸다. CSA코스믹(38.69%)도 중국

한 것을 시작으로, 자본 희석 우려로 연일 하락했다. 13일 종가는 52주 신고가인 1510원이다.

더블유게임즈는 박신정 부사장이보유 주식 37만3347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에 크게 하락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지분 공시 직후인 13일 하루에만 장중 10% 가까이 하락했다.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움직임도 나타났다. 미국 압 학회에서 항암치료제를 발표할 것이라 소식에 4월 첫 주 26% 올랐던 오스코텍은 지난주 외국인 기관 물량이 대거 쏟아지며 14.07% 하락했다. 한-중 관계 회복 기대감에 연일 상승했던 에이치엘비퍼워 역시 11.38% 내리며 하락 전환했다. 또 최대주주를 마리투자조합으로 변경한 중앙오션이 13.34% 내렸다. 이 밖에 영신금융(-11.7%), 엑토즈소프트(-11.45%), 루미마이크로(-11.01%)도 크게 하락했다.

최두선 기자 sun@

풍부한 현실의 사례를 통해 손쉽게 경제학을 이해한다!

이준구 교수의 열린경제학

- ◎ 담배, 비싸면 과연 끊을까?
- ◎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고 더 잘산다고 할 수 있을까?
- ◎ 소득이 커지면 행복감도 따라서 더 커질까?
- ◎ 세계 각국의 빅맥 가격을 매년 비교해 보는 이유는?
- ◎ 같아 보이고 증거를 사기가 겁나는 이유는?
- ◎ 누가 찬산증이고, 누가 빈곤증일까?



이준구 지음 | 584 쪽
문우사 | 값 20,000원

2017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휩쓸고 간 미국 사회, 승자독식정치를 통한 감세정책은 과연 경제 살리기에 성공했는가?

미국의 신자유주의 실험

이준구 지음 | 288 쪽 | 문우사
값 18,000원

적지만 부유한 나라 싱가포르, 그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

싱가포르 다시 보기

싱가포르의 정치·행정 시스템 분석

고길근 지음 | 372 쪽 | 문우사
값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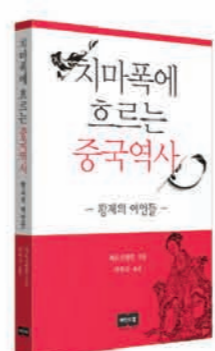
"역시, 역사는 강자의 편이었다" 팔순을 바라보는 학자가 역사와 세상을 바라본 평가이다!!

역사는 강자의 편이었다

힘 있는 자의 밑은 언제나 정의(?)로 포장되어 있다. 반면, 힘 없는 민족과 개인은 비극의 삶이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힘이 지배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힘을 길러야 한다. 힘의 역사를 쓰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 해법은 무엇일까? 인생의 경험을 통해, 역사 속 지도자를 통해 그 답을 제시한다.



김종애 지음 | 304쪽 | 마인드맵
값 15,000원



중국의 왕제들은 여성들과 어떻게 지냈을까? 그리고 황후의 역할은 어느 정도였을까?

치마폭에 흐르는 중국역사

짜오지옌민 지음 | 광복선 옮김
382 쪽 | 마인드맵 | 값 16,000원



2000년 동안 이어진 화교들의 삶정리

화교 역사·문화 답사기 1

김동호 지음 | 194 쪽 | 마인드맵
값 12,000원

“반도체 전방시장 확대로 퀀텀 점프”

마켓이어로 에이디테크놀로지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 설계·외주 생산, 고객사에 턴키 납품 기술 우위 바탕으로 세계적 기업 ARM·TSMC와 파트너십 “올해 역대 최대 매출 달성·글로벌 리더로 도약 원년 기대”

“올해 에이디테크놀로지 설립 이래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겠다.”

국내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에이디테크놀로지의 2018년 경영 목표다. 김준석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음을 체감하고 있다”며 이 같은 포부를 전했다. 모바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5G, 자율주행차 등 반도체가 적용되는 모든 분야로 전방 시장을 확대하여 퀀텀 점프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3606억 원으로, 이 중 시스템 반도체가 전체 반도체 시장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는 정보의 저장 기능을 수행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정보의 처리·제어·연산 기능을 수행해 비메모리 반도체, 혹은 지능형 반도체라고도 불린다.

국내 대표 시스템반도체 칩리스(Chipless) 기업인 에이디테크놀로지는 이러한 시스템 반도체 시장 성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칩리스란 고객사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고성능의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 및 외주 생산에 턴키

(Turn-Key)로 납품하는 사업 구조다. 자체적인 반도체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팹리스와 비슷하지만, 자사의 브랜드로 제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팹리스와 달리 칩리스는 고객사의 브랜드로 제품을 제작해서 공급하는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방식이다. 따라서 종합 반도체 회사, 팹리스를 포함해 넓은 층의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다.

에이디테크놀로지는 2016업계 최초로 16나노 핀펫 공정이 적용된 신제품 개발 계약을 수주한 바 있다. 클럭 중계 회로, 플립플롭 회로, 시분할 기술 적용 버스회로 등 반도체 설계 관련 다수의 특허를 취득하며 기술 고도화에 힘을 쏟았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성은 에이디테크놀로지가 글로벌 선도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현재 에이디테크놀로지는 ARM, Synopsys 등 유수의 글로벌 IP(Intellectual Property)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는 것은 물론,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의 국내 유일 VCA



에이디테크놀로지는 4차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올해 설립 이래 최고 실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에이디테크놀로지 회사 전경. 김준석 대표, 16나노 핀펫 공정이 적용된 시스템반도체 제품. 사진제공 에이디테크놀로지

(Value Chain Aggregator)로서 최신 기술 제공 및 제품 양산과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TSMC와의 굳건한 협력 관계는 에이디테크놀로지만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경쟁력이다.

에이디테크놀로지는 2016년 일부 고객사의 양산 주문 감소로 실적에 부침을 겪었다. 그러나 이후 기술 고도화 및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 사업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림으로써 성장동력 확보에 성공했고, 이에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32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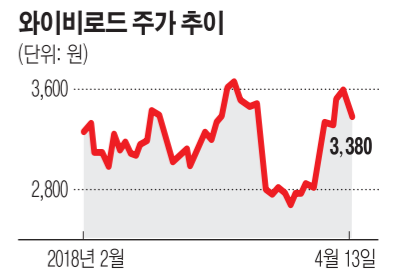
올해는 지난해의 성과를 넘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내 자릿수의 매출액을 달성할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11월 말부터 공시된 기존 제품의 양산 수주 금액만 490억 원을 돌파했으며, 올해 안으로 다

수의 제품이 추가로 개발 완료되어 양산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최적화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솔루션을 확보한 바, 모바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5G 등 관련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김준석 에이디테크놀로지 대표는 “작년 한 해 실적 턴어라운드의 기반을 구축한 바, 올해는 에이디테크놀로지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는 것은 물론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끊임없는 기술 개선을 통한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 확대, 프로세스 최적화를 통한 수익성 향상을 통해 양적, 질적 성장을 고루 달성하고 첨단기술 변화 흐름에 따른 제품 다변화로 지속 성장을 이뤘다”고 포부를 전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최대주주·간판 바뀐 ‘와이비로드’ 상폐 리스크 벗고 주가도 상승세

‘웨이비로드’로 社名 변경 “약재 해소” 주가 이달 22% ↑ 子회사 화장품 사업 장밋빛



피혁제품제조업체 웨이비로드(구 와이비로드)의 최대주주 변경 소식에 증권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최대주주의 품을 벗어나는 모습에 투자자가 반기는 모습이다. 여기에 화장품 사업에 대한 기대도 더해졌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와이비로드의 주가는 33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들어 상승률은 22%에 달한다. 와이비로드는 1975년 설립된 피혁 원단 가공업체다. 1997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다. 최근 웨이비로드(靑島)로 피혁제조 자회사와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코스메트리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지분 비율은 각각 100%, 60%다.

주가 상승 배경에는 최대주주 변경이 작용했다. 11일 파티게임즈는 와이비로드의 주식 176만3829주 전량과 경영권, 경영권에 종속되는 의무를 110억 원에 더우주에 양도한다고 밝혔다. 파티게임즈는 “경영 효율성 증대”라고 주시 처분 목적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더우주는 와이비로드 지

분 11.57%를 보유하게 됐다. 더우주는 화장품 제조판매 및 도소매 업체다.

시장에서는 약재가 해소됐다는 분위기가. 파티게임즈가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통해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탓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 프르바이터로부터 와이비로드 주식 176만3829주를 114억 원에 인수했지만 4억 원을 손해보고 4개월 만에 최대주주 자리를 내줬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장폐지 여부는 5월 초까지 심의된다.

자회사 코스메트리의 화장품 사업에 탄력이 더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됐다. 더우주는 화장품 사업으로 현재 중국 현지에서 6000개 매장 과 기타 해외국가 33국 1900개 매장에 진출했다. 최근에는 스웨덴 제조 유통 일괄형(SPA) 기업 H&M의 북유럽 3개국 257개 매장에 입점했고, 호주 메리 시즌즈(Merry Seasons) 매장에 입점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남주현 기자 jooh@

‘라퓨젠’ 美 FDA 승인... 셀루메드, 52주 최고가

의료기기 및 바이오시밀러 기업 셀루메드가 골이식재 ‘라퓨젠(Rafugen) DBM’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품(FDA)의 승인을 시작으로 미국 시장 영업력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바이오강제장의 순풍도 예상돼 주가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셀루메드는 11일 미국 FDA에서 자사의 골이식재 ‘라퓨젠 DBM’이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전 세계 근골격계 시장 진출 고도화를 확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셀루메드의 12월 주가는 거래상한선인 30%(3450원)까지 올라 1만4950원에 마감했다. 이는 52주 최고가다. 이후 다음날인 13일에는 장 시작부터 상한가를 기록해 1만9400원에 마감했다. 미국본

나라 세계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업계의 전반적인 분석이다.

이와 함께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해 영업이익 적자폭을 대폭 개선하는 등 실적 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셀루메드는 2016년 약 151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후 지난해 94% 영업이익이 증가해 적자를 9억 원대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다. 회사측은 수익성 개선 및 비용절감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으로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셀루메드는 1975년 국제중합인쇄로 설립됐다. 2010년 코리아본팩과 합병해 의료기기와 바이오시밀러 등의 사업 분야에 진출했다. 김우림 기자 hura@

다산, 日 KDDI에 10기가 인터넷 솔루션 공급

다산네트웍스는 일본 통신사 KDDI에 자사의 10기가 초고속 인터넷 솔루션이 채택돼 공급 중이며 상용화까지 완료됐다고 16일 밝혔다.

국내외에서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상용화는 초기 준비 단계로, 회사는 이번 KDDI에 통신장비를 공급한 사례가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한 큰 경쟁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산네트웍스는 자회사인 다산솔루션즈가 주력 광통신 솔루션인 상하향 10기가 이폰(10/10G EPON)을 KDDI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업-다운로드 모두 10기가 속도를 제공하는 가정용 인터넷 서비스가 3월 일본에서 시작됐다.

KDDI는 일본에서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이자 첨단 네트워크

망 구축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세계 시장에 알려져 있다. 다산솔루션즈는 시스템 통합 업체이자 일본 내 판매 대리점인 KCCS(Kyocera Communication Systems)를 통해 제품을 공급 중으로, KCCS는 비즈니스 솔루션 개발 및 관리를 수행하는 KDDI의 계열회사다.

회사 측은 일본 통신사들이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통신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막대한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3년 동안 일본에서 지속적인 사업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또, KDDI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일본에서의 성공적인 경험을 전 세계로 확대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bithumb 빚뽀 **www.bithumb.com** **빗뽀 지수** (2018년 4월 16일, 08: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808,000	36,000 (4.7%▲)	모넨로	208,400	9,300 (4.7%▲)
리플	715	47 (7.0%▲)	비트코인골드	51,500	4,000 (8.4%▲)
라이트코인	137,200	5,300 (4.0%▲)	이더리움 클래식	17,420	670 (4.0%▲)
대시	397,000	25,500 (6.9%▲)	퀀텀	17,400	900 (5.5%▲)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이투데이 Media는 브랜드다

점대!
Passion

다르다!
Difference

뛰어나다!
Premium

이투데이 미디어는 타 매체보다 앞서서 세상의 흐름을 읽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최선의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투데이 미디어 임직원은 항상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꿈꾸며, '빅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02)799-2600 구독문의 02)799-2684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일간 창간

고품격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마이 라이프
2015년 1월 1일 창간

경제전문 연예뉴스
비즈니스
2013년 10월 15일 오픈

12년 연속 세계 판매 1위
2004년-2017년 세계 TV 판매 점유율 1위. ©2018 FutureSource Consulting

SAMSUNG

화질이 변하는 건 당연했다 QLED시대가 오기 전까지

세계적 내내 푸른 상록수처럼 뛰어난 화질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건 QLED입니다

100% TV

삼성 QLED

*100% 컬러 볼륨 구현 인증 획득 (DQ-P3 기준)
독일 VDE 컬러 볼륨 테스트 검증 기준: 2016년 12월



| 컬러 볼륨 100%(VDE 인증, 16년 12월 기준) |
같은 컬러 속 미세한 차이까지 구분한다
플랫 영의 초록색 개리처럼 유사한 컬러들 사이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QLED TV. 같은 장면이라도 전혀 다른 디테일을 볼 수 있는 색을 선사합니다.



| HDR2000 / 눈부심 방지 패널 |
그 어떤 빛 속에서도 선명함을 보여준다
TV 주변의 환경이 눈부시게 밝아도, TV 속의 화면이 환하게 빛나더라도 선명함을 잃지 않는 QLED TV. 그 어떤 빛에도 방해받지 않는 강도를 즐길 수 있습니다.



| 번인 현상 없는 화면 |
오래 사용해도 뛰어난 화질을 유지한다
지금까지의 TV는 시간이 지나면 화질이 변하는 게 당연해졌. 뛰어난 화질을 오랫동안 지켜내는 QLED TV로 화질 노화 걱정 없이 마음껏 보는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 위 비교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장면입니다. * 스크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